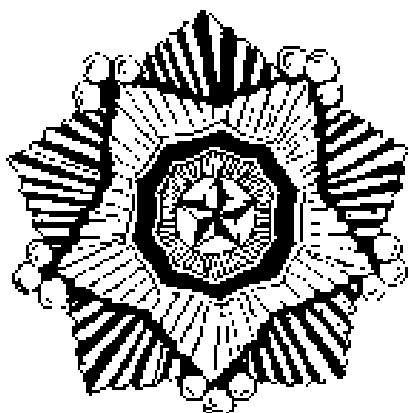




10

주체 91 (200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1(2002)년 제10호

(루계 제 660 호)

◆◆◆◆◆◆◆◆◆◆ 차 례 ◆◆◆◆◆◆◆◆◆◆

원동에	4
북두칠성 빛나는 밤	4
지금은 그 어디에... ..	5
기적소리 울린다!.....	5
선군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는 예리한 평필을 더 높이... ..	6
수령님과 열다섯살	6
두장의 기념사진	6
주체의 당창건과 더불어 길이 빛날 역사적화폭	7
나더러 무슨 말을 더하십니까?.....	12
소쩍새 우는 밤	13
단군묘.....	26
아침해 솟아 오르다	26
단군을 우리러 추모하다	26
명언해설	27
박사부부의 행복한 삶은	27
청원	28

진리	28
선군시문학의 구보전진을 위하여	29
생각	33
우리 사랑 푸르려 갑니다.....	34
우리는 열일곱살	34
새로운 형상세계의 탐구	35
컴퓨터중앙처리장치의 발전동향	38
스승에 대한 회상.....	39
6.15 는 밝은 달	47
《멍청한 백인들》	47
천한산의 붉은 단풍	48
뿌슈킨,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츠	58
겨울의 시내물.....	59
나는 1951 년도 당원이다	68
이 땅에 흐르는 세월을 두고	69
우리는 병사동창생	69
《조기대가리》	70
《돌림임금이래면...》	73
진환생의 나들이	74

원동에

김석주

내 마음 때없이 달려 간다
우리 장군님 가계시는 그 곳
이제는 낮 설지 않은 친근한 고장
로씨야의 원동아

우리 장군님 건강하신가
너 광활한 땅위에 설레는 봇나무야
그리운 장군님께
잠시라도 그들을 지어 드리고
아름다운 잎새들로 더위를 가서 드려 주려마

너 초원과 바다를 넘나드는 바람아
늘 조국과 인민을 생각하시며
먼 길을 재촉하실 그리운 그이께
향기롭고 청신한 미풍이 되어
잠시라도 로고를 풀어 드려 주려마

천선의 나라 로씨야의 원동은 얼마나 멀더나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아시아의 평화 안전을 위해

다시 오르신 외국방문의 천리 또 천리...
낮에 밤을 이어 가고 가시는 장군님

원동의 초원이여 숲이여 강이여
끝없이 멀고 먼 길이여
우리 장군님 가시는 걸음걸음
그앞에 풍경화되어 펼쳐 저 다오
은은한 노래되고 춤이 되어 흘러다오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인민의 장군님
온 인류의 장군님
자주화의 위업에 헌신하시는
그이의 안녕을 지켜다오

내 언제 한번 가본적 없다면
그리운 장군님 잠시 가계시는 땅이기에
하루에도 열백번 달려 가는 마음
이제는 낮 익고 친근한 곳이 되었다
로씨야의 원동아

북두칠성 빛나는 밤

신문경

평양의 밤거리엔 불빛이 눈 부셔
하늘의 별들은 보이지 않아도
북두칠성!
나에겐 언제나 네가 보이누나
북녘을 향한 내 마음의 빛이여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
전선길 걸음걸음 따르며
우리 마음 담아 빛나던 별
장군님을 따라 두만강을 건너
지금은 그 어디서
그이의 마음속 이야기 새기고 있는가

저 별빛아래
가까이 더 가까이 들려 오누나
광야를 구르는 렬차의 동음
더 뜨겁게 안겨 오누나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곳
정의의 최전선에 계시는
우리 장군님 거룩한 모습이
따르는 내 마음엔 국경이 없어
끝 없는 그리움이

하늘가에 띄워 올린 별이여
안녕을 바라는 간절한 이 마음
너와 속삭이는 인민의 그리움

이 마음을 담아서 달빛처럼 밝아지라
이 마음 불 타서 해빛처럼 눈 부시라
구름도 헤치고 차창가에 내려 앉아
조국을 그리시는 그이의 마음속에
나의 노래 조용히 속삭여 다오

아 가까이 모실 때 불 타던 그리움이
멀리에 계시니 더 사무쳐 지는
조국의 이 밤

장군님을 향한 내 마음속에도
별이 빛나네 북두칠성이
장군님 따르는 길에 순간도 지지 않는
오 내 마음의 별
그리움의 별이여!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 있는 령도력과 품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김일성

지금은 그 어디에...

지금도 붓을 들 때면 어언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씨야를 방문하시던 때의 일이 삼삼히 그려 진다.

하싼! 얼마전까지만 해도 하싼은 나에게서 하나의 지리적개념에 불과했다. 더 있다면 일찌기로씨야의 붉은군대가 일제침략군과 싸운 격전터라는 간단한 력사자료상식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하싼으로부터 로씨야의 원동전체가 애뜻한 정과 그리움속에 못내 그려지는 가고싶고 보고싶은 고장으로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신 곳, 지난해에도 가셨고 그전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다녀 가신 곳, 백두산3대장군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찍혀 져고 찍혀지고 있는 그곳은 하나의 평범한. 땅과 지명으로가 아니라 위대한 력사창조의 성지로 전환되고 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싼으로부터 뻗어 간 철길을 따라 무연한 벌과 수림을 더듬는 나의 눈앞에는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눈물겹게 떠올랐다.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만년행복을 위해 밟고 또 밟으시는 길, 바치고 또 바치시는 시간, 이 시각도 장군님께서 조국을, 우리를 생각하실것이다. 최전연의 애젊은 초병들을 껴안아 보시기도 하고 대홍단의 농업전사들과 마음속대화도 나누실것이다. 장군님 그리는 우리 문필전사들의 힘찬 붓대도 미쁘게 그려 보실것이다.

절기가 바뀔 땐데 애들의 건강은 어떤지? 《아리랑》공연무대의 5층탑에서 재주를 부리던 어린 소년의 담찬 모습도 사랑스럽게 떠올려 보실것이다.

그이의 집무탁우에는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글들도 있을것이고 장군님의 심혈 어린 로고와 믿음에 보답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자랑스런 생산성과 소식도 놓여 있으리라.

종이장 번지는 소리, 조용히 미소를 짓기도 하시고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하실 우리 장군님, 아무르강의 검푸른 물결을 보시면서도 우리 인민들의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그려 보시리라.

때식은 어떻게 하시는지, 주무심은 어떠하신지, 애모쁘게 달려 가는 마음, 뜨겁게 젖어드는 가슴속에 용암이 지금 이 시각에도 끓는다.

충성은 간직하는데가 아니라 바치는데 있다.

장군님 따라 달리는 마음에 힘과 슬기도 합쳐나는 다시 붓대를 힘 있게 틀어 잡는다.

우리의 붓대야말로 장군님을 받들고 위하는 기쁨이고 장군님을 지켜 선 총대이기에.

한생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성다한 나의 작품의 주인공-통일에국투사와 나는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그리움을 안고...

4. 15 문학창작단 작가 《김일성상》 계관인
안동춘

기적소리 울린다!

기적소리가 울린다.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울려 오는 저 장쾌한 웨침,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로씨야 련방원동방문의 길을 헤쳐 가시며 울리신 렬차의 기적소리이다.

언제나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선군혁명령도의 천만리길을 이어 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이름도 친근한 하싼역을 통과하여 광활한 씨비

리대지를 누벼 가시었다.

그리고 조용히 떠나시어 걸음걸음 선군으로 빛나는 내 조국의 위용을 펼치시고 걸음걸음 자주위업의 승리를 부르시며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 기적소리에 귀기울이며 충성의 마음을 불 태우고 그 기적소리에 고무되어 매일 매 시각 혁신의 불길을 지핀 우리 인민이다.

장군님께서 타신 열차의 기적소리는 저 멀리로 멀어졌건만 결코 그 기적소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날줄 모른다. 이 세상 한끝에서도 언제나 장군님곁에 살며 일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움이 따로 없는것이다.

하여 나는 지금 이 시각도 새 세기의 빛나는 두번째 로씨야런방방문길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성의 마음 다 바쳐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형상한 총서작품창작에 심혈을 쏟아 붓고 있다.

또 한번 세계를 들었다 놓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돌아오실 때 나는 눈물속에 장군님을 우리

르며 다시 한번 뜨겁게 맹세를 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께서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강성대국 건설에 높이 올리시던 선군혁명령도의 기적소리가 오늘은 온 세상사람들을 자주화의 새 세계에 힘 있게 불러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적소리로 고무된 우리 인민과 인류의 마음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 장군님을 우러러 올리는 뜨거운 감사를 총서작품에 그리겠습니다!...

4. 15 문학창작단 작가 **《김일성상》** 계관인 정기종

선군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는 예리한 평필을 더 높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지난해 력사적인 로씨야런방에 대한 5만여리 장정을 하시여 우리 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고 조국에 돌아 오셨을 때의 그 감격과 환희가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고 있는 때에 또다시 우리 장군님께서 로씨야 원동지역에 대한 방문을 하시여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돌이켜 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 원동지역에 대한 방문을 하시던 그 력사의 순간순간을 우리 평론가들은 더없이 류다른 끝 없는 흠모와 그리움, 충정의 세계에서 가슴 불 태우며 지냈다.

우리 장군님께서 거룩한 자옥을 새기시는 원동땅이 백두산3대장군의 투쟁업적이 깃든 땅이고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력사의 땅이라는데서만이 오는 정회가 아니였다. 우리의 심장을 뚫이며 불 타오르는 정서는 단군조선 5천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을 한껏 받아안은 **김일성** 민족의 궁지와 자부에서 환기되는 환희와 걱정이다.

인류의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수난자였던 우리 민족은 옳은 령도자를 맞이하지 못한탓에 얼마나 통절한 운명속에 몸부림치였던가.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국력은 쇠진해 질대로 쇠진해 저 종당에는 일제에게 먹히워 《시일야방성대곡》을 더치고 오욕의 《국치일가》를 부르며 암흑의 캄캄한 밤길을 가던 우리 민족이였다. 땅위에서는 기차가 달리고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날고 있던 때에 삐걱거리는 수레바퀴로 진창길을 가던 백의민족, 한때 세계적인 규모에서 열린 박람회에 지게와 질신밖에 내놓을수 없었다던 불쌍한 우리 민족이였다.

이러한 우리 인민이 이제는 세계의 중심에서 가장 존엄 높은 민족으로 그 위력을 떨치고 있으니, 이 자랑 높은 민족의 기개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이 안겨주는 최상최대의 행운에서 오는 민족의 영광이다.

오늘의 세계를 곁어 보면 얼마나 풍파가 많고 복잡다단한가. 바로 이러한 세계를 우리 장군님께서 지구자전의 방향타를 쥐시고 자주의 궤도로 이끄신다. 로씨야 원동지역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기간에 온 세계가 이 위대한 현실을 격찬하여 마지 않았는가.

생각할수록 가슴 벅차오르고 흥분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시대에 장군님의 문학을 옹호고수하는 전초병이 된 평론가의 영예와 긍지로움을 그 어디에 비기겠는가.

저희들 평론가들은 또다시 세계를 놀래우고 격동시킨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원동지역에 대한 방문성과에 더욱 고무되어 예리한 평필 활동으로 장군님의 선군혁명문학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우리 평론가들은 선군혁명문학운동에서 해결해야 할 절박한 문제들인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시대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 문제, 우리 문학의 문제성을 더욱 강화하고 내용과 형식을 대담하게 혁신하는데서 나서는 미학실천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는데 평필을 집중하겠다.

평론가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문학창작의 새로운 형상분야를 탐색하고 철학적깊이가 있는 문제평들을 더 많이 써서 실적으로 당의 업적을 받들어 나가겠다. 결의는 높고 각오는 굳세고 실적이 없으면 빈말로 되고 만다.

우리는 다진 맹세 번치 말고 평론창작의 길을 굳세게 걸어 나감으로써 선군문학창작의 전초병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해나가겠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분과위원회 위원장 **최길상**

수령님과 열다섯살

김정철

포평의 이 나루터였더나
광복의 천리길이 시작되는
만경대의 그 갈림길이였더나
우리 수령님
꿈 많은 소년시절과 작별하신 곳은

강 건너 멀리
여기서도 눈발속에 아득한 곳
화전의 언덕에서
《E.C》의 기발을 높이 들던 그때
수령님은 열다섯살이었다

아직은 소년이라 할수 있는 나이
수중엔
아버님의 유산인 두자루의 권총
주위엔
스무살도 못 넘긴 몇명의 동지들

그때 그 누가 알았으랴
열혈의 심장뿐인 그 소년이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 맞서
불의의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리라는것을

내 나라 내 조선의 독립을 위해

가사

이 기슭을 떠났던 배들은 모두
폭풍에 뒤집히고 난파에 부서졌어도
열다섯살 소년의 그 배만은
광복의 기슭에 끝내 닿았거니

그때문에 개선의 광장에서
세상은 것처럼 놀라지 않았더나
백두산 줄기마다 전설을 새겨 온
민족의 영웅이
백발로장으로 그려 온 김대장이
당년 서른넷의 젊은이였을 때

아 동서고금의 영웅호걸들
장년에 이르러서야 세상을 알고
자기의 뜻을 세웠다고 했지만
열다섯살에 벌써 타도제국주의를
천하의 대업으로 펼치신 우리 수령님

그 열다섯살우에
삼십대에 일제를 타승하고
사십대에 미제를 타승한
위대한 령장의
만고풍상이 다 실려 있어라

두장의 기념사진

진춘근

해빛도 따사로운 화창한 봄날
공장을 찾아 주신 우리 수령님
영예군인 남편곁에 안해들 불러
영광의 기념사진 찍어 주셨네

가실 길 멀고 멀어 바쁘시련만
발걸음 멈추고 우리 수령님

이번에는 안해들 앞줄에 세워
또 한장 기념사진 찍어 주셨네

남편들이 변함없이 피워 가는 꽃
안해마음 향기되어 풍기여 주네
못 잊을 기념사진 두장의 사진
영원한 수령님의 사랑이라네

주체의 당창건과 더불어 길이 빛날 력사적화폭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개선》에 대하여-

리창유

최근에 나온 총서 《불멸의 력사》중 해방후편 장편소설 《개선》은 해방직후 당창건업적을 이룩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거대한 화폭속에 깊이 있고 감명 깊게 형상하여 독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고 있는 성과작이다.

작품에서는 해방후 건국사업에 착수하기전에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선차적인 중대사로 당창건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개선후 매우 짧은 기간에 력사적인 당창건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품모를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혁명력사와 업적에는 수령의 탁월한 사상리론과 현명한 령도, 고매한 인간적품모가 집대성되어있다.》

장편소설 《개선》은 무엇보다먼저 해방직후 최우선적과제로 제기된 우리 당창건사업을 중심으로 결출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거장으로서의 어버이수령님의 특출하고 세련된 령도품모를 고매한 인간적품모와 밀접히 결부시켜 감명깊게 그려 보이고있다. 여기에 이 작품이 수령형상 총서작품으로서의 사상에술적풍격이 있고 해방직후 것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 우리 당창건위업을 이처럼 빨리, 순조롭게 빛나게 해결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다면적으로 깊이 있고 뜨겁게 형상한 비결이 있다.

조국개선에 앞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된 조국에서 급선무로 강력한 정치부대인 당을 창건하되 이 당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3대기둥으로 한 근로인민대중의 기반을 기초로 내와야 한다는것, 세계제국주의원흉인 미제가 남조선에 진주하는 조건에서 북반부를 강유력한 혁명적기지로 건설해야 한다는것 등을 명철하게 밝혀 주신다.

그러시고는 원산항에 상륙하시였을 때부터 조선인민혁명군 《김영환정치위원》으로 활동하시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항일유격대원들을 파견하시여 당창건사업을 위한 대중적지반을 꾸리도록 하신다.

한편 광복을 계기로 북남각지에서 머리를 쳐드는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과 서울을 중심으로 《장안당》이니 《재건당》이니 하면서 종파행동을

서슴치 않는자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자파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날친다. 이러한 와류속에서 반당 반혁명분자들의 백색테로에 의해 이미 해방전부터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와 련계를 맺고 조직망을 꾸려 왔으며 해방직후 당조직을 꾸리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손꼽아 기다리던 평안남도의 현준혁, 황해도의 민덕원 등 참다운 혁명가들이 백주에 사살된다.

하지만 당창건위업을 건국의 선행공정으로, 해방된 조국에서 제일 선참으로 해결하여야 할 급선무로 여기고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창건사업을 조속히 그리고 순조롭게 진척시켜 나가자면 사회주의운동자들의 통일단결이 이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였고 그렇게 될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으시면서 조국개선의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형편에서 아무래도, 우리는 서울이 아니라 평양에다 건당, 건국활동의 중심기지를 설정하고 당창건사업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며 당활동의 지도부도 평양에 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미제놈들이 서울을 반공보루로 꾸리려고 획책하는 조건에서 평양에 당창건활동의 중심기지를 설정하고 당창건사업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할것을 선언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단호한 결심, 그것은 내외의 정세와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으로 보아 가장 합리적인 방침이였고 우리 혁명을 사수하고 승승장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정당한 당창건방침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항일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이 당창건 방침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힘차게 밀고 나가시였다. 그러면서도 지난 날 제나름대로 사회주의운동을 하여 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당창건방침관철에로 이끄시였다.

참으로 대해와 같이 넓으신 포용력으로 사회주의운동을 표방한 기회주의자들까지 포섭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도량은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우리 혁명대오에 망라시켜 우리 인민모두를 혁명의 한길로 이끌어 가시려는 수령님의 참다운 민족애의 숭고한 발현이였다.

정녕 어버이수령님의 대해 같은 품이 있어 그때까지 《장안당》이니 《재건당》이니 하는 파쟁

으로 얼룩진 사람들의 영향밑에 인생을 헛되게 살아온 사람들도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참된 인생의 길을 찾게 되었고 《친일분자》로 낙인된 리병훈과 같은 오랜 지식인들도 조국을 위해 떨쳐 나설수 있게 되었던것이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숭고한 애민애족의 역사를 당창건위업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사변의 화폭속에서 뜨겁게 그리고 있다.

작품에서 특히 감명 깊게 형상한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이다.

소설에서는 혁명전사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과 애민애족의 믿음과 사랑을 일관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조국개선에 앞서 대원들에게 우리가 총을 들고 항일전에 나선 첫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한테서 무슨 인사나 치하를 받을것을 생각하여 싸워 온것이 아니라고, 또 승리한 다음 조국에 돌아 와 피 흘려 싸운 대가로 환영의 꽃다발도 받고 높직한 벼슬자리에 올라 앉아 부귀영화를 누릴것을 생각하며 싸운것이 아니라고 그러니 우리가 소문없이 빨찌산식으로 슬그머니 입국하자고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그리운 고향 만경대를 지척에 두시고도 당창건사업을 하시기전에 조부모님을 만나실수 없다시며 강선제강소로 가시는 길에서 조차 고향집을 지척에 바라보시며 차를 돌리시지 않으신 어버이수령님.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이국땅 소사하에 앓는 어머님을 두시고도 혁명의 길에 오르시였고 해방후에는 인민들이 식량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흰쌀밥을 들겠는가 하고 하시며 통강냉이죽도 달게 드시였다.

조국개선의 길에 오르시여서는 함께 오지 못한 전우들 생각에 너무도 가슴 아프시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였고 험벗은 아이의 가궁한 정상을 보시고는 내의를 입히도록 하신 수령님.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어 《재건당》을 꾸린다고 날치는 박헌영의 밑에서 오래동안 시중군처럼 일해 온 리순금이 위대한 수령님 같으신 인민의 령도자는 이 세상 더는 없을것이라고 감탄해 마지 않으면서 인생전환의 길에 올랐고 《친일주구》로 낙인 받던 오랜 지식인 리병훈이 자기 개인병원을 군대병원으로 써달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있던 돈까지 고스란히 나라일에 써달라고 하였던것이다.

사랑이면, 이런 사랑을, 믿음이면 이런 믿음을 그 언제 우리 인민이 받아 왔던가. 하기에 우리 수령님의 높은 명망과 권위앞에서는 한생을 돈벌이로, 돈을 뿌려 《량심적인》 유지로 소문 높던 민족주의자 조만식이도 머리숙었고 제노라고 으시대던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도 움짝 달짝하

지 못하였던것이다.

작품에는 박헌영의 충실한 노복이었던 장시우가 리병훈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연하시는 회의장에 들어가려 할 때 무작정 쫓아버리면서 별의 별 추태를 다 부리는 장면이 있다.

이때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사람들을 쫓고 버리고 때리고 죽이기 위해서 당을 만든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품어 주고 보살펴 주고 살려 주기 위해서 당을 만들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와 착취자들을 타도하지만 그밖의 근로인민대중은 포용하기 위하여 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당은 인간중오의 당이 아니라 인간사랑의 당입니다. 우리 당의 대중적지반은 근로인민대중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로동자, 농민, 근로 지식인을 3대기둥으로 삼는 다는것입니다. ... 로동자, 농민들만이 아니라 지식인들도 꼭같이 중시한다는데 우리 당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장차 우리 당의 상징으로 될 당마크에도 새겨지게 될것입니다!》

정녕 어버이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우리 당의 성격과 임무를 독창적으로 환히 밝혀 준 역사적 선언이였고 인민대중을 배척하고 자파세력확장에 미쳐 날뛰는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 종파분자들의 그릇된 행위를 호되게 비판한 준엄한 논고장이였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인민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그렸으며 해방된 조국을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이끌고 나갈 령수로 떠받들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 시기에 벌써 수령님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것을 각계각층 인민들의 시점에서 뜨겁고도 진실하게 그려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해방후 처음으로 맞게 된 한가위명절을 계기로 열린 운동회장에서 전설적영웅이신 어버이 수령님에 대하여 저저마다 제 아는껏 자기 주장을 내놓고 감론을박하는 원산시 군중들의 모습을 형상한 장면이며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개선렬차를 타고 서울에 입성하신다는 풍문을 듣고 10여만 군중이 역전으로 몰려가 온종일 기다리는 장면 등에서 생동하게 반영되고 있다.

서울에서 제노라고 으시대던 사회주의운동자들과 련계를 맺고있던 원산공산당부 책임자 리주하는 사령부 《정치위원》 으로부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곧 조국에 개선하신다는 희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한다.

《김일성장군의 참여 없이는 건국도 건당도 할수 없다는거야 삼척동자들에게도 뻔한 일 아닙니까! 우리 인민의 항일투쟁사에서 최고업적을 쌓은 민족의 영웅을 모시지 못하고서야 건당이다. 건국이다 해봐야 민중의 인정을 받을수 없습니

요.》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앞에서는 광복 당일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던 려운형도 진심으로 머리숙였고 자과세력을 확장하기에 열을 올리던 종파분자 《거두》들도 움작달작 하지 못하며 저들끼리 대표를 평양에 파견하여 《인정》 받으려 한다.

작품에서는 각계각층 인민들과 공부정인 물들의 시점을 통하여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조선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탁월한 령수이시며 만고에 길이 빛날 전설적 영웅이심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 이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직접적인 내면세계의 묘사를 위주로 하지 않고 각이한 상대인물들의 시점과 심리묘사를 통하여 뜨겁고도 깊이 있게 그려 보인 조건이 있고 작가의 혁신적안목과 탐구세계의 새로운 몫이 있는 것이다.

장편소설 《개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주인공으로 하고 측근인물들인 여러명의 항일혁명투사들과 그와 련계되어 당창건사업에 발 벗고 나서는 인간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선각자》들을 등장시켜 이들의 생활과 성격을 생동하고 개성이 있게 잘 그리고 있다.

수령형상총서작품에서 중요인물의 관계와 사건 줄거리를 비롯한 구성의 기본대를 실재한 인물과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품위있게 펼쳐보이는것은 창작실천상 중요한 요구로 나신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중요인물들인 김책, 강건, 최현, 안길, 림춘추, 팍두섭 등 항일혁명투사들과 박달, 안형준, 현준혁, 김용범, 리주연 등 지하조직원들, 박우현, 박정호 등 당창건사업에 기여한 일군들, 더 나아가 개인병원의사 리병훈과 그의 안해인 일본인녀성 리춘희, 간호원 소원정, 부정인물들인 박현영, 정백, 장순명, 오기섭, 장시우, 현칠종뿐아니라 소설에 얼핏 나오는 타자수 찬옥이와 순복이 등 거의 모든 인물들이 실재한 원형인물들이다. 또한 당창건사업을 위한 회의와 같은 중요한 력사적 사실로부터 해방직후 백색테로에 의하여 희생된 현준혁, 민덕원의 죽음과 같은 사건 등도 다 실재한 사실들이다. 지어 매개 공부정인물의 경력과 일화들도 기본적으로 사실자료와 일치한 다. 소설이 한두명도 아닌 수십명의 인물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해방직후에 있는 그대로 형상으로 재현하면서 중요인물들뿐아니라 얼핏 등장하는 인물들에 이르기까지 성격을 개성이 있게, 생동하게, 격이있게 그린것이 특징적이다.

소설에서는 매개 측근인물들을 형상함에 있어서 이들의 주도적인 성격적특질인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면서도 기질적인 특

질들을 잘 부각시켜 성격을 개성화하고 있다.

레컨대 항일혁명투사 김책은 감정에 지배되어 종종 리성을 잃곤 하는 감정형의 인간이 아니다. 그는 그 어떤 불의의 정황에도 혁명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리성형의 인간이다.

팍두섭은 과격하면서도 불같은 사랑을 지닌, 그러면서도 혁명임무수행에 절대로 사사를 앞세우지 않는 인간이다.

림춘추는 감정형의 인간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항일혁명투쟁의 전 기간 장차 조국이 해방된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투쟁사를 저술할 각오밑에 자료작업과 일기를 쓰는 일을 꾸준히 계속해 온 인내성 있고 착실한 인간이다. 작품에서는 중요인물들의 이러한 기질적특질을 잘 부각시켜 형상함으로써 성격형상의 생동성과 개성화를 능란히 보장하고 있다.

작품에서 특히 충신의 전형으로 잘 형상한 중요인물들로서는 김책, 팍두섭, 현준혁 등을 들수 있다.

항일혁명투사 김책은 언제나 사업의 첫 공정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보위사업을 내세운다. 작품에서는 그가 함경남도에 파견되어 사업하다가 당창립대회소집을 결정지어야 할 중대한 시각에 평양으로 올라 오자마자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사령부처소를 돌아보고 즉시 다른곳으로 옮길것을 강경히 주장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호위를 첫째가는 임무로 여기는 김책동지의 충실성은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하기에 그는 귀국직전에 가진 간부회의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보좌하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문제로 또다시 발기하였었다.

그는 당창립대회에 오기섭과 같은 행세식 사회주의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을 참가시키지 말자고 제기하며 여기에 림춘추가 호응해 나신다.

자신의 안녕이나 권위와 관계되는 문제에서는 자신에 대한 특혜나 특전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수령님의 철저한 평민심과 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싶어 노상 마음을 쓰곤 하는 지극한 공경심때문에 어떠한 생활상 문제나 사업상 문제에서도 견해를 달리한 일이 전혀 없던 김책이 무엇보다도 대회소집을 결정할 시각에 수령님과 의사를 달리 하겠는가? 이것은 장차 당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것이고 대중속에서 당의 영상이 흐려질것을 우려하는것때문이었다. 하지만 김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대렬의 단결과 통일을 위하여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일시 눈이 멀어 자기의 당적, 계급적전우들을 해친 각양각색의 사회주의 운동자들과도 대담하게 손을 잡아야 혁명대오를 확대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자 그 즉시로 자신을 뉘우친다.

이렇듯 작품에서는 중요상대인물인 김책의 충

성심을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격이 높게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당창건위업수행을 위한 탁월한 령도를 품위 있게 그려 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중요인물 팍두섭의 형상은 주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자기 사업에서 열정적이며 성격상 호탕할뿐아니라 사랑에서 신의를 지킬줄 아는 열정의 인간, 의리 깊은 인간이다.

일찌기 처창즈유격근거지에서 작탄을 만들다가 뜻밖의 폭발사고를 내어 화염에 휩싸인 병기창 안에 정신 잃고 쓰러진 그를 결사적으로 구원한 작식대원 조분옥과의 인연, 최후의 비밀약혼, 가슴 아픈 생리별, 백두산밀영에서의 상봉, 횡산병원초막에서 함께 키우던 결혼에 대한 희망찬 꿈... 그다음 보천보전투를 며칠 앞두고 장백현 뒤산에서 조분옥과의 영결...

이런 남다른 사연을 지닌 그는 해방전 국내공작조로 나와 평양비행장을 비롯한 일제의 군사대상물들에 대한 정찰을 진행하던중 부상자리가 도져 전혀 움직일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그가 사동탄광로동자로 가장하고 리병훈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다시금 대오로 돌아 간 일이 있었다. 그때 팍두섭은 조분옥이처럼 얼굴모습이 비슷하게 생긴 간호원 소원정이를 알게 되어 그를 마음속으로 사랑하게 된다.

작품에는 팍두섭이와 소원정의 꼭질많은 애정선이 기본이야기줄거리에 합쳐져 도간도간 펼쳐져 있다.

참으로 작품은 이러한 애정선의 흐름을 통하여 독자들의 가슴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극적으로 펼쳐 나간다.

중요인물 현준혁은 작품의 시작에 정체모를 놈의 저격사건으로 희생되는 인물로서 박달동지를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와 직접적으로 련결된 국내지방당조직자의 한사람이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서울에 도착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식 없는 삼촌 3일제도 안해에게 내맡기고 그곳으로 나간다. 서울에서 형형색색의 사회주의운동자들이 겨품내기로 기층당조직도 없는 당을 내운다고 법석거리는 꼴을 보고 침을 뱉고 돌아 선다.

그는 해방직후인 8월 17일에 이미 꾸려놓은 기층당조직에 의거하여 평안남도공산당위원회를 조직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개선을 기다리는 중이 있었다. 이러한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뵈지 못하고 백주에 피살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산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시고 개선의 기쁨마저 느끼시지 못하신듯 비분에 잠겨 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혁명전사 현준혁은 작품의 기본선상에서 자주 언급되고 혁

명가의 참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밖에도 작품에서는 목탄차를 타고 당창건을 위한 대회소집전에 평양에 가닿느라고 청진에서부터 갖은 고생을 겪으며 달려온 박우현이며 (그는 장순명의 비행을 대회에서 직접 폭로비판한다.) 사동탄광 당조직의 첫 성원이었던 김덕삼 등 여러 긍정인물들의 형상이 감명 깊게 형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인물들, 부차적인 인물들도 작품에서 철저히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실자료에 근거하여 감명 깊게 형상됨으로써 소설은 수령형상총서작품으로서의 력사문헌적성격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었고 또 력사에 아직 기록되지 못한 자료들도 많이 삽입하고 인간학적으로 세련시킴으로써 예술적인 감화력을 훨씬 높이고 있다.

여기에 이 작품이 가지는 수령형상총서작품으로서의 높은 품격이 있고 작가의 깊은 탐구와 사색의 빛나는 결실이 있다.

장편소설 《개선》은 예술적풍격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작품이다.

작품은 불과 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우리 당창건위업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구성상측면에서 볼 때 외면의 시간은 이처럼 짧으나 내면의 시간은 길며 그것은 작품에 우리 당창건의 력사적뿌리인 《ㄷ. ㄷ》조직으로부터 시작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통하여 반영되어 있으며 매개 인물의 일생사가 최상의 수법, 작가의 서술과 작중인물의 대화문 등을 통하여 펼쳐져 있기때문이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내면의 시간은 결코 짧다고 할수 없다. 기본사건, 기본이야기선상에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야기는 엮이여 펼쳐지는 식으로, 때로는 현재에 과거가 굴절되어 펼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매개 인물의 일생사가 현재의 이야기에 보충되어 《소개》되기도 한다.

더우거나 긍정인물을 비롯한 몇몇 특징적인 인물들에 한하여서는 당창립대회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간의 운명사를 간단히 소개하는 식으로 주어 진것도 있다.

작품의 이야기며 매개 인물의 형상이 인상적으로 느껴지는것은 독특하고 생동한 세부형상이 주어 진데도 있다.

작품에는 팍두섭이와 소원정의 애정선 이외의 또 다른 애정선이 겹놓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실제상 작품의 전과정에 예술적흥미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힘들게 주어져 있음을 말하여 준다.

하지만 작품에서는 이러한 난점을 세부형상과 재미있는 일화들을 적극 삽입하는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옷이 없어 경기장에 못 나가는 어린이에게 옷을 입히도록 하시는 세부, 형록삼촌이 이름 모를 아이의 가공한 처지를 생각하여 물고기와 미역 등을 나누어 주는 세부 등 작품에 인상 깊은 세부가 많다. 매개 인물의 경력에서 특징적인것을 취사선택하여 《소개》 한것은 또 얼마나 예술적흥미를 돋구어 주고 있는가.

이밖에도 작품에 등장인물이 많으나 작가의

서술은 극도로 함축하고 비약하여 이야기를 속도감있게 펼쳐 보인것이라든지 심리묘사, 초상묘사, 풍물, 자연묘사도 현대감이 있게, 늘어 나지 않게 집약시킨것 등도 우수한 예술적 기교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개선》은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우리 당창건위업에 바쳐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력사를 형상한것으로 하여 주체문학의 화원에 또 하나의 명작으로 꽃 피나게 되었다.

나더러 무슨 말을 더하랍니까?

최정용

막장에서 흘러 나오는 갯바람은
내 옷자락을 흔들고
굽이 감도는 백암천 맑은 물은
조잘대며 끝없이 속삭이는데
나는 그만 할 말을 잊었습니다

광부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예술공연도 보아 주신 장군님
광부들과 가슴 맞대시고
생활형편이며 자식들의 일까지
마음 써오신 우리 장군님
떠나시던 걸음 다시 돌리시여
금골의 7.1 청년역 찾으신 이야기

잊었습니다 잊었습니다
노래의 붓을 안고 재촉한 이 걸음이건만
검덕이 전하는 이야기에 그만 목이 메여
해야 할 단 한마디 말도 잊고 말았습니다

싸리안전모 쓰시고
20 리 막장으로 향하시던
못 잊을 그날의 추억을 안으시고
역에 들어 서시던 우리 장군님
옷에 스미는 갯의 찬바람을 두고
문득 일군들에게 물으시었습니다

-지금 갯온도가 얼마입니까?
잘 돌보아 주시오
광부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차마 상상도 못한
그 아득한 높이에서
장군님 위대한 심장이 터친 그 진정에
그만해야 일군들
올려야 할 단 한마디 대답조차 잊었거니

나 또한 할 말을 잊었습니다
하루같이 이어 오신 선군령도의 길우에서
비바람 눈바람 다 맞으신 우리 장군님
자신이 당하신 그 어려움은 생각도 않으시고
광부들을 위하시는 인민을 위하시는
아버이장군님 그 뜨거운 인간애앞에
그 열렬하신 인민애앞에

말과 글이 못 미치는 곳에
우리 장군님 펼치신
숭고한 인간사랑의 세계가
검덕사람들 가슴가슴에 일어 번진
감격의 이 거세찬 열풍이
노래중의 노래되어 울려 가거니
내 이제
그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소쩍새 우는 밤

김준학

(1)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금수산우에 솟아 올랐다.

정원으로 나오신 수령님께서는 레의 그 인상적인 걸음새로 뒤집을 지신채 달빛에 축축히 젖어 드는 오솔길을 거닐고 계시었다.

이제 몇시간후면 여든두번째의 탄생일을 맞이 하시게 되는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뜻깊은 이 시각에 수령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었다.

《소쩍- 소쩍-》

어디선가 소쩍새가 온다.

걸음을 멈추시고 그이께서는 점도록 귀를 강구 시었다.

밤고요를 흔들며 다시금 애끓게 들려 오는 그 울음소리는 무중 옛말과 영웅전기로 가득찬 어린 시절에로 그이의 심혼을 이끌어 갔다.

《아버지, 오늘은 단군할아버지에 대한 옛말을 해줘요.》

《그러자구나. 아주 멀고도 먼 옛날 옛적에 저 하늘나라의 임금에게는 땅세상에 내려 와 나라를 세워 볼 큰 뜻을 품고 있던 환웅이라는 한 아들이 있었단다.… 그러나 그는 종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아들 단군이 장수가 되어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나라를 세웠단다.》

《아버지, 그때 단군이 처음 나라를 세웠다는 곳이 내가 아버지를 따라갔던 그 평양성이지요?》

《바로 그 평양이란다. 그후 나라를 자손들에게 물려 주고 산신령이 된 단군할아버지는 후손들이 오랑캐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너무도 원통하고 분해서 온밤 만경봉의 저 소쩍새처럼 슬피 울고 울었다누나…》

그래서인지 그밤의 소쩍새의 울음소리는 류달리 구슬프게, 마치 단군할아버지의 망국호곡처럼 생각되시여 어린 마음에도 슬픔과 비감을 억제할수 없으신 수령님께서는 두주먹을 움켜 잡으시었다.

단군이야기의 여운속에 들려 온 소쩍새의 그 애절한 울음소리는 어언간 그이의 마음속에 이북 어미시샘에 죽은 불쌍한 소녀의 혼백의 곡성이라는 소쩍새에 대한 민족의 보편적관념을 초월하여 나라를 잃은 단군과 소쩍새를 하나로 융합시켜 보시게 했는지도 모른다.

끝없는 슬픔과 원한의 심연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 싶은 피 타는 목소리로 연해연방 소쩍새는 울고운다.

《아버지, 왜놈들에게 빼앗긴 우리 나라를 다시 찾으면 그때는 저 소쩍새도 저렇게 슬피 울지는 않겠지요?》

《그럼.》

《내 꼭 나라를 찾고 저 불쌍한 소쩍새도 기뻐서 노래하게 할테예요. 봄에도 가을에도 말이예요!》

귀전에 그 시절의 랑랑한 목소리가 들려 오는 순간, 목안으로 뜨거운것이 뭉클 치밀어 오름과 동시에 자신의 심장이 산같은 정희의 무게를 감당치 못한듯 그이께서는 천천히 정원의 곁상에 주저앉으시었다.

《소쩍- 소쩍-》

사면팔방에 파문을 일으키며 여음속에 들려 오는 유정한 그 울음소리, 과연 이 밤의 저 소쩍새는 우는가 웃는가? 자신께서도 딱히 그 답을 헤아리기 어려우시었다.

소쩍새울음소리가 들려 오는 어둠속을 이윽도록 응시하시던 수령님께서는 두해전 이맘 때의 그 봄날에서부터 추억의 닳을 올리시었다.

1992년 4월 하순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그해 4월에도 수령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었다.

일군들은 수령님께서 얼마만이라도 편히 휴식 하시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삼가 아뢰이였다.

그때마다 수령님께서는 《괜찮소. 내 이번 생일에 옥체건강하라는 인사를 천년을 살고도 남을만치 받았으니까 일 없을게요.》 하시며 호탕한 웃음을 남기신채 쉬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었다.

노루꼬리만치 남아있던 저녁해가 서둘러 잔광을 거두며 서산으로 넘어가던 어느날 황혼무렵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연보라빛 운무에 싸인 좁은 산골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지석리라...》

부지중 사색 깊은 어조로 방금전에 떠나오신 지명을 입속으로 뇌이시었다.

어제 아침 수령님께서는 평안남도의 어느 한 군에 있는 지석협동농장을 다녀 가시었는데 오늘 오후에 찾으신 평양시 X X군에 있는 농장 역시 지석리였던것이다.

구릉지대 한끝에 펼쳐진 비탈밭에 오르시여
농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누구에게랴없이 마을이름
의 유래에 대해 물으시었다.

그러자 해별에 얼굴이 밤빛으로 익은 다부진
체격의 한 농장청년이(농산작업반 기술원인 그의
이름은 방진삼이라고 했다.) 대답을 드렸다.

《지식리란 말은 고인돌이 많이 있는 마을이라
는 뜻입니다.》

《젊은 동무가 어떻게 그리도 잘 아오?》

그 청년은 사회과학원에 있는 허룡필선생한테서
어릴적에 들은것이라고 했다.

《허룡필원사한테서?!》

그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나라 력사학과와 고
고학계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좌상격의 판록
있는 학자였다.

근간에는 허룡필원사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생
각이 들자 불현듯 그가 못내 그리워 지시었다.

지금도 성천군에 있는 숙소에서 집필에 여념없
을 그와 함께 밤길도록 력사이야기를 나누고 싶
으셨다.

력사는 그이에게 있어 언제나 첫사랑과도 같은
아름다운 감정을 불러일으켜 주곤 했다.

수령님께서서는 아버님의 옛이야기에 심취되었던
유년시절부터 아득히 흘러간 인류력사와 자신의
인생을 한줄기에 잇대어 놓으시었다.

과거, 현재, 미래는 그이께서 언제나 불가분리
의 관계속에서 꼭같이 사랑하여 오신 시간의 3위
1체였다.

울울한 밀림의 밤이면 우등불가에 대원들을 들
러 앉히시고 반만년 조국의 력사에 대해 자랑스
럽게 들려 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였기에 누가
누구를 하는 생사기로의 가렬치절한 전화의 그날
에는 우리가 밤에 서울을 공격하면 경복궁을 비
롯한 귀중한 력사유적이 포사격의 피해를 입어
파괴될수 있다고 하시며 작전시간을 새벽으로 변
경할데 대한 대응단도 서슴없이 내리실수 있었
다.

어찌보면 력사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그 애착
이 그이의 인생을 그렇듯 위대하고 거룩하게, 성
스럽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평생 력사를 사랑하여 오신 그이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일은 바로 이 고인돌을 남겨
놓은 조상의 첫나라-고조선을 누가 언제 건국 했
는가조차 똑똑히 모르고 있는것이였다.

지척의 고인돌로 다가가시여 사색속에 그 주변
을 거니시던 수령님께서서는 프락트르보습 날에 할
퀴어 떨어 저 나간 자리를 한동안 말없이 어루쓸
어보시었다.

옛유적들을 잘 보존관리할데 대하여 말씀하신
수령님께서서는 그 길로 허원사를 찾아 떠나시었
다.

석달전 1월 어느 날에도 허원사에게서 고구려

의 건국년대를 새롭게 확정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이제는 후손들에게 빛을 진것이 없게
되었다고 한시를 놓던 일이 엇그제 같은데 나는
지금 또 그 무슨 빛에 쫓기워...밤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

승용차는 어느덧 그물그물 저녁연기가 오르고
있는 덩실하니 큰 기와집 울밖에 멈춰 섰다.

그와 동시에 솟을 대문이 열리는 가운데 의아
한 눈길을 보내고 있는 한 로인의 모습이 전조등
불빛에 환히 안겨 왔다.

불살이 빠져 잔주름진 하관은 펜촉처럼 날카롭
고 술 많은 은회색눈썹으로 하여 불룩해 보이는
눈두덩아래의 정기도는 두눈에서는 왕년의 강단
과 속대가 예대로 드러나보였다.

허룡필원사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반색을 지으시며 한달음에 달려
온 그에게 손을 내미시었다.

《수령님, 제가 이 산골에 있는줄은 어떻게 아
시고...》

그는 말끝을 여물리지 못했다.

《나야 공화국주석이 아닙니까. 그리 크지도 않
은 나라인데 우리 나라의 이름 있는 력사학원사
가 어디에 있는줄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우스개소리를 섞어 응대하시었다.

《그새 선생의 심장병이 다시 도지지는 않았습
니까?》

이렇게 물으실때면 언제나 습관처럼 허원사의
손목을 감싸쥐곤 하시었다.

《예.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보약을 쓴 다
음부터는 아직 재발하지 않았습니니다. 수령님께
서는 건강하셧습니까?》

허원사는 그때에야 그이의 안부를 먼저 묻지
못한 자신의 인사불성을 알아 차린듯했다.

한참이나 허원사의 손목을 쥐시고 쿵- 쿵- 높
뛰는 심장의 건강한 박동을 확신하신 수령님께
서는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시고 난 뒤처럼 즐거
운 웃음을 지으시었다.

《보다실이 난 언제나 건강하오. 의사들의 말이
내 심장은 염라대왕의 심장보다 더 든든하다고
하오!》

평소에 호방하고 룡담과 해학을 즐기시는 수
령님께서서는 정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시었다.

《아마 그래서 내가 염라대왕을 무서워 하지 않
는것 같소.》

《수령님, 제생각엔 아마 염라대왕쪽에서 수
령님을 더 무서워 할것 같습니다.》

《하긴 그럴거요. 내가 염라국에 가면 거기
도 혁명이 일어나고 변이 날 우려가 있을테니까. 하
하-》

그 폭소에 주변의 산새들이 놀라 푸드득거렸
다.

잠시후 수령님께서서는 혼돈하게 덩허진 허원사
의 방에 들어 서시었다.

예전에 와 보셨을 때와 별로 달라 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경감하고 소박한 온돌방이었다.

예전에는 서재가 놓여 있는 그옆의 벽면에 허원사가 젊은 시절에 손수 만들었다는, 먹으로 푼 짝을 그린 조선반도 한가운데에 거대한 황금색 삼각형을 그려 놓고 그 옆에 《내 기어이 조선의 대피라미드를!》이라고 내려 쓴 옛족자가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로당익장》이라는 족자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허원사와 무릎을 마주하고 앉으신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담배를 권하시며 자신도 성냥을 그어 불어시켰다.

향긋한 담배연기가 공중으로 피어 올라 온 방안을 포근히 감싸주는 듯 싶었다.

《허선생과 이렇게 마주 앉으니 흐르는 세월의 무상함이 새삼스레 느껴 지누만. 우리가 처음 만나던 때에는 허선생도 나도 30대의 흥안이었는데 이제는 여든 나이의 고령들이 되었으니 말이요.》

《서울에서 수령님을 찾아와 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되었습시다.》

옛일을 더듬는 허원사의 눈가에도 이름할수 없는 애뜻한 빛이 그득했다.

《그때가 아마 공화국이 창건된 그 이듬해 봄 밤이었지. 아직도 기억에 선하오.》

수령님께서는 부드러운 빛이 넘쳐 흐르는 두눈을 내려뜨시며 잠시 허원사의 과거를 돌이켜 보시었다.

허룡필은 소년시절 자신의 꿈을 자칭 《피라미드의 꿈》이라고 이름했다고 한다.

그가 하늘아래 수만갈래의 인생길 중에서 굳이 갓 발전하기 시작한 청소한 학문인 고고학에로의 길을 때 일찍 선택하게 된것은 지난 세기 말엽에 전설로 알려 졌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트로이가 발굴된데 이어 1930년대에는 에집트에서 도기의 밑면에 새겨진 이름을 통해 희미하게 알려졌던 소년왕 투탄카멘의 피라미드가 발굴되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기때문이었다.

그 피라미드에서 나온 수천점의 진귀한 보물들은 곧 전세계에 고고학 발굴의 열풍이 일어 나게 했으며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소년의 얼어 붙은 마음에도 작은 꿈망울이 움터나게 했다.

그의 꿈은 유구하고 문명한 조상의 강토에서 세계를 놀래울수 있는 《조선의 대피라미드》를 발굴해 내는것이였다.

허나 일제는 그를 《미치광이 고고학자》, 《무덤도굴자》로 타매하였으며 철창속에 끌어 갔다.

그는 어디에도 자신의 울분을 하소할곳이란 없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의 패망은 20세기초부터 시작된 조선반도에서의 일본인 독점의 《고고학적조사연구》와 도굴행위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사변이었다.

그러나 미제에 의한 북남분렬과 미군정의 실시는 《조선의 피라미드》를 발굴할수 있으리라던 그의 꿈에 다시 찬서리를 들썩였다.

이때 그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위촉장을 받게 되었다.

그는 한시바삐 평양으로 가고 싶었다.

해방된 이듬해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법령으로 역사유적유물을 잘 보존하도록 해주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을 때에는 내각직속기관으로 물질문화조사보존위원회를 내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은, 그리고 벌써부터 고조선시기의 유적인 평양시 락랑구역의 귀틀무덤과 함께 안안 1, 2, 3호무덤을 발굴해낸데 이어 또다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신석기시대의 유적으로 알려 진 궁산원시유적을 발굴해 냄으로써 세계고고학계가 팔목할만한 대성과를 올리고 있는 북녘은 참된 조선의 역사를 연구할수 있는 리상향이었고 희망의 등대였다.

그는 결연히 자신의 꿈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피라미드족자를 가슴에 품고 북행길에 올랐었다.

《허선생, 나는 그사이 선생이 우리 나라 력사 학계와 고고학계에 쌓은 공적을 피라미드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 피라미드란말이 <왕의 무덤>이라는 뜻이 아니라 본래는 <왕이 사는 높은 집>을 가리키는 푸루메주라는 고대에질트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사 선생은 소년시절의 초지대로 <조선의 피라미드>를 발굴해낸셈입니다.》

그 모든 성과를 위해 자신께서 바치신 로고는 다 잊으시고 치하해 주시자 허원사는 자못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라했다.

그의 은실처럼 갸하얀 눈섭아래의 두 눈동자는 숫저움으로 그윽하게 빛났다.

《과분한 평가입니다, 수령님. 불민한 제가 뭘 한게 있다고...》

그는 자신의 뚫어오르는 심정을 다 아뢰이고 싶었다.

수령님께 자신의 솔직한 심정, 고마움과 진정에 넘치는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할수 없는 그의 가슴은 애모쁨으로 가득찼다.

수령님께서는 정 깊은 눈길로 허원사를 바라보시며 자기 주장이 없는 학자는 지식보다 신념이 더 빈곤한 학자이며 그런 사람과는 학문을 논할 재미보다도 말할 재미자체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계시었다.

공과 사에서 언제나 거짓과 융통성을 몰랐고 오로지 과학으로서의 역사를 높이 숭상한 까닭에 권력의 형태에 따라 자기의 주장을 빚어 내지않는 그의 울분은 성미와 과학자적량심을 남달리 값높이 사신 수령님이시였다.

안타까운것은 그가 한해두해 자꾸 늙는것이였다.

날이 갈수록 더 빨리 흐르는듯 싶은 무정한 세월에 대한 야속함과 함께 역시 자신도 그 흐름을 멈춰 세울 비방이 없으심에 더욱 마음이 아파나 섰다.

수령님께서서는 이윽하여 XX에 있는 지식리의 방진삼청년을 어떻게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방진삼?...》

입속으로 조용히 되뇌이던 허원사의 미간이 한참후에야 넓어 졌다.

《아마 그 청년은 제가 이전에 만났던 방로인의 막내손자일겁니다. 그 방로인은 우리 고고학자들이 고구려시기의 유적을 발굴하려고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이 합숙보다 낫다고 하면서 무려 열흘간이나 숙식시켜 주었던 고마운 분이였습니다.》

호합스런 수업발을 위엄 있게 내리쏘곤하던 방로인은 마을사람들속에서 《단군할아버지》로 불리우고 있었다.

허룡필이 10여년 세월이 흐르도록 그 로인을 기억하게 된것은 그집 손자들이 자기 할아버지가 해마다 찾아 가보곤하는 단군릉이 진짜 묘인가고 묻는 말에 《그것은 옛날 사람들이 꾸며놓은 거짓부리묘이다》고 대답해 주었다가 그 로인에게서 되게 졸경을 치른 일이 아직도 잊혀 지지 않기때문이었다.

그때 방로인은 《자기 조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네가 무슨 학자인가? 촌놈은이의 소견이긴 하지만 력사학이란거야 자기 조상이 누구이고 넌 누구의 후손이라는걸 똑똑히 알려주기 위해 필요하게 아니겠나. 이 땅에서 살아 온 민족의 족보가 바로 력사학일진대 자네는 그게 무슨 괴이한 잡설인가? 그래 단군할아버지를 내놓고 누가 우리의 조상이란 말인가?》고 하면서 소리 소리 꾸짖었다고 한다. 나중에는 그를 《왜놈과 꼭같은 소리를 하는 반동력사학자》라느니 《제 조상도 모르는 개통력사학자》라느니 하면서 지독스레 욕했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은듯 로인은 그날 저녁으로 그들 일행을 모두 리합숙으로 쫓아냈다고 한다.

《내가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만났던 오가자의 변프로쓰끼같은 로인이구만.》

방로인에 대한 후일담으로 하여 허원사의 이야기는 길어졌다.

로인은 얼마후 옛책을 썬 꾸레미를 안고 허룡필을 만나러 사회과학원에 왔다고 한다.

허나 그가 출장중이여서 종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 갔다.

얼마 안있어 돌아 온 허원사가 지식리에 전화를 하니 그사이 로인은 운명했다고 한다.

《림종시 로인은 자꾸만 책꾸레미를 가리키며 무슨 말인가 하고싶어 했답니다. 아버지가 사회과학원에까지 들고 올라갔으니 필시 그곳에서도 쓸모가 없어 그냥 되돌려보낸것이라고만 짐작하

고 있던 자식들은 방로인이 그리도 애지중지하던 책을 함께 물어 달라는 뜻으로 알고 그의 소원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100살은 문제없을것 같은 로인이었는데 참...》

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대책이 없으시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질은 어둠이 뒤덮인 창밖에서는 벽시계의 고르로운 똑딱소리처럼 소쩍새의 유평한 울음소리가 가깝게 멀게 들려 왔다. 잊지 못할 밤새의 울음소리였다. 이윽하여 수령님께서서는 《허선생, 밤도 퍼그나 깊었는데 이제是我们 두 늙은 이들끼리 민족의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나 나눠봅시다. 고조선사연구에서는 뭐 기대되는 새 성과가 없습니까?》하고 화제를 돌리시였다.

《아직 이렇다할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고조선사연구는 1960년대에 중국동북지방 일대의 유적발굴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은후 30년이 되여 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책으로 송구해 하는 허룡필을 바라보시며 수령님께서서는 《하긴 고고학은 다른 과학에 비해 상대적으로한성이 너무도 많지.》하고 그를 위로하듯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어느 사이엔가 벗어 드셨던 안경을 다시 거시였다.

《동무들이 작성발표했던 <중국동북지방 유적발굴보고>를 읽은 기억이 나오.》

《그때 그곳에서 발굴된 강상무덤이 노예순장 무덤이라는것을 근거 잡아 우리는 고조선의 건국기념을 기원전 10세기 이전으로 소급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대시기 청동기문화가 가장 발전된 료동지방에서 고조선이 건국되었고 그후 그 령역이 조선반도로 급속히 확장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력사학계에서 공인되고 있는 청동기시대의 국가발생설과도 일치되는것이니 그렇게봐도 우리는 옳지...》

수령님께서서는 허원사의 말에 공감을 표시하시였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공감이라고는 할수 없는 불만과 미혹스러움이 융합된 공감이었다.

《그렇다면 허선생, 우리 나라 서북지방에서만도 검은모루유적을 비롯하여 100만년전이래의 원인, 고인, 신인단계의 화석들이 다 발굴되었는데 그에 비해 료동지방에서는 아직 그런 화석들이나 유물들이 나타나지 않은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 물음은 수령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품고 계시였던 고고학적의문이었다.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결부시켜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비파형단검이나 좁은 낫단검을 비롯한 청동기시대의 유물들과 고인물을 비롯한 유적들이 료동지방에서 조선반도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발전되고 이른 시기의것이 많이 나타났기때문에 그렇게 보았을뿐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시며 수령님께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허선생은 우리 민족의 첫 건국설화인 <단군신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 그 신화에는 원시공동체사회가 무너지고 고조선국가가 형성되어 전 력사발전과정이 반영되어 있을뿐 단군 그 자체는 실재성이 의심되는 그야말로 신화적인물로 보고 그이상 더 논의해볼지 못했습니다.》

《그 신화를 확증할수 있는 고고학적유적이거나 유물이 안발침되지 못했기때문이겠지요?》

수령님께서 허원사의 뒤말을 넘겨 짚으시었다.

《이차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고조선의 중심이었던 룡하하류 동쪽류역에서 이 신화를 뒤받침할수 있는 우리 민족사의 시조자료들이 나타날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고조선의 수도도 룡동지방에 있으며 또 단군이 신화적인물이 아니라면 그의 무덤도 그곳에 있을것이라고 말입니다.》

철두철미, 객관적인 물적증거나 력사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인 상상과 그것을 빈틈 없는 철의 논리로 설명해 오는데 한평생 습관되어 온 허원사의 얼굴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의 빛이 력연했다.

《하긴 룡동지방을 포함한 만주땅은 고금의 조선과 중국력사의 수많은 왕조들을 출산시킨 <산토>이기도 하지요.》

이어 그이께서는 《요즘 세계 고고학계의 새 소식은 없습니까?》 하고 화제를 돌리시었다.

《흥미 있는 고고학적자료를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끄는것은 인디안의 마야문명이 우리의 고구려문화와 너무도 류사한 점이 많다고 하는 새로운 주장에 마야력사전문가들이 반론을 못하고 합구무언하고 있는것입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많은 고고학자들은 1949년이래 메히꼬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무덤 피라미드들이 만주의 즈안과 환인지역 일대에 분포되어있는 1만 2천여기의 고구려식 피라미드와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뿐아니라 메히꼬의 무덤피라미드들에서 발굴된 유골들도 우리 선조들의 유골과 흡사한 점이 많아 고고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다 또 얼마전에는 미국과 도이칠란드의 고고학자들이 아메리카주의 원주민들이 조선반도에서 건너간 이민의 후예라는것을 립증하는 자료를 발표하여 세계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것이다.

홍분하여 얼굴이 벌개진 허원사의 일장의 설명이 끝나자 수령님께서는 《시간은 외곡된 조선민족의 정체를 증명해 보일것입니다.》라고 힘 주어 말씀하시었다.

나라의 최고수반과 한 지성인이라는 엄연의 한

계를 초월하여 벌어진 학문적인 대화는 날이 밝도록 계속되었다.

1992년 5월 상순

이 밤 수령님께서는 몹시 피로하시었다.

나흘전 80고령의 몸으로 이른 새벽부터 땅거미지는 저녁무렵까지 온 하루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개성시의 력사유적들을 하나하나 답사하면서 왕건왕릉을 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시조왕릉답게 더 잘 꾸릴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수령님께서는 이날 또다시 동명왕릉을 찾아주시였던것이다.

집무실의 탁상시계는 밤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이께서는 방안의 전등을 끄시고 결상에 몸을 실으시었다.

어둠속에서 푹푹-푹푹하는 시계의 고르로운 초침소리만이 이 시각에도 끊임없이 생명을 낳고 성장시키는 거대한 우주의 맥박소리처럼 들려왔다.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느라니 그이께서는 마치 이 밤 시간과 단독으로 마주 앉아 있는듯한 환각속에 자신이 한평생 그 시간과 싸워 오신 듯이 생각되시었다.

자신이 하신 모든 일, 조국광복성전과 여러차례의 사회혁명과 미제와의 전쟁과 지금도 계속되고있는 첨예한 대결- 이 모든것이 어찌보면 시간에 대한 성전이고 혁명이고 투쟁인것 같았다.

고즈녁이 못별이 웃는 창가로 다가가신 수령님께서는 활짝 창문을 열어 쫓히셨다.

막혔던 제방의 물이 흘러들듯 정체되어 있던 봄밤의 향기와 생명의 리듬이 삼시에 흘러들었다.

쭉쭉 뚫는 외쭉뚫이며 부웅-부웅- 하는 부엉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그 누구에게 하소하는듯한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검푸른 밤하늘 한가운데서 은하수같이 빛나는 추억의 대문이 소리없이 열린듯 아버님의 모습이 안겨 왔고 옛말을 하시던 그 살뜰하고 차근차근한 음성이 들려왔다.

바로 저 하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려고 환웅이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요란한 풍악을 울리며 하강했던 그 하늘이란 말인가.

단군생각이 떠오르셨다.

《단군할아버지》로 불리웠던 지식마을의 방로인이, 제 조상도 모른다고 허원사에게 노염을 토해다던 그 로인의 신선 같은 모습도 환영처럼 보여 왔다.

과연 단군의 건국사적을 전한 《단군신화》가 일제가 떠들듯이 《중들이 꾸며 낸 허황한것》이겠는가?

고고학의 전성기를 열어 놓은 하인리히 쉴리

만의 《트로이발굴》은 그 당시까지 신화문학으로 간주되던 호머의 서사시 《일리아드》에서 착상된것이라 한다.

고고학의 발전에 의해 《신의 아들》이라고 하던 예수도 2천년동안 칭칭 두르고 있던 신적외피가 벗겨져 저 순수한 인간의 자태로 나타났고 《성서고고학》이라는 학파는 세계도처에서 성경속의 신화와 사변들이 실재했음을 증명하는데 몰두하고 있으며 최근에만도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 옛 도시》로 알려졌던 4천년전의 메소포타미아의 고대도시 마수간 사피루 유적의 발견은 세계고고학계에서 《과거 40년간의 최대의 발견》으로 극구 찬양되고 있다.

(단군이아기가 신화적형식으로 엮여져있다는것은 오히려 이것이 매우 오랜 태고적에 단군을 신성시하던 우리 선조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오랜 세월 면면히 전해져 내려오면서 민족의 의식속에 깊이 뿌리내리였음을 실증해 준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문득 어리셨을 때 봉화리에서 보시던 단군릉 앞에서의 성대한 개천절행사장면이 떠올랐다.

우리 선조, 우리 겨레들의 마음속에 첫 건국시조로, 민족의 원시조로, 민족혼의 유일무이한 상징으로 세세손손 떠받들리우며 숭배되었던 단군.

그러나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 온 전통적인 관념이나 민족의식만으로는 단군이 반만년전에 첫 국가를 창건한 실재한 인물이었다는 역사적고증이 전혀 불가능한것이다.

2,200여년전의 고구려의 건국년대보다 더 먼 태고의 단군과 고조선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확정이 묘연하기만 한것이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5천년전 과거의 그 공백에 도전하고 싶으셨다.

그 힘은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이 민족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과정에 체득하신 진리, 《우리 조선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기롭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며 거짓과 변덕을 모르는 순박하고 의리가 깊고 강건한 민족이다》는 80평생 체험해 오신 그 확신에 기초하고있었다.

광활한 사색의 세계를 종횡무진하시며 결심을 굳히신 수령님께서서는 집무실의 불을 켜시였다.

그리고 서가에서 《삼국유사》를 뽑아드시고 집무탁을 마주하시였다.

《...지나간 2천년전에 단군 왕검이란 이가 있어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불렀으니...》

이 봄밤하늘과 땅사이에서 밤새들은 그냥 울고 있었다.

1993년 4월 하순

이해의 봄은 류례없이 준엄했으나 또한 긍지높은 봄이기도 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대용단과 철의 의지에 의해 《핵무기전과방비조약》에서 탈퇴할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단호한 성명은 온 세계에 지구가 깨어져 나간것과도 같은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그것은 곧 미래의 세계는 장차 이 조선민족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될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낳게 했다.

선망과 불안의 눈길로 세계는 조선을, 평양을 지켜 보고 있었다.

현시대의 그 어느 강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평양은 그때 반만년전 과거의 옛 영광으로 육박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금수산의 사당에서 허름필원사를 비롯한 사회과학원의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을 기다리고 계시였다.

...강동군에 있는 단군릉에 대한 발굴은 그해 1월부터 시작되였다.

온 나라의 대소사를 다 돌보시느라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나라와 중국의 역사책들까지 일일이 탐독하시며 예리한 안목으로 고대사를 재검토해보신 수령님께서서는 《삼국유사》에 씌여있듯이 단군이 처음 도읍지로 정했다는 《평양성》이라는 지명이 그 저자가 당대에 주석한것처럼 고려시기의 서경 즉 이전에 고구려가 도읍지로 정했던 오늘의 평양이 옳다고 확신하시였다.

왜냐면 《삼국유사》보다 근 150년전에 씌여진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천왕 21년기사에는 고구려가 천도한 《평양은-본시 선인왕검이 살던 곳이다》고 그 역사에 대해서만 씌여 있는데 비해 《삼국유사》의 저자는 그 평양에 대해 《오늘의 서경》이라고 주석을 한 까닭은 바로 고려가 평양을 《서경》으로 개칭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여서 지명상의 혼돈을 피해서였을것이라는데 생각이 가닿으셨던것이다.

그리고 《삼국사기》자체가 고구려가 멸망한후인 고려시기에 신라왕족출신의 사대주의 사가 김부식이 쓴 역사책으로서 그가 고구려의 남진정책과 평양천도를 그런 세상에 없는 왕창같은 거짓말을 꾸며내면서까지 정당화하고 두둔해 나설 아무런 리유도 없어 보였다.

그에 대한 정답은 바로 강동군에 있다는 그 단군릉이 안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 무덤이 과연 진짜이겠는가, 가짜이겠는가?

왜서인지 선조들이 남긴 옛 기록과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될 일로 생각되시였다.

그리고 단군을 실재 인물로, 고조선의 건국시조로 섬겨 오던 우리 민족의 전통적관념이 점차 사라지고 신화적인 인물로 보게 된것은 일제의 조선강점직후부터였다는 사실을 그냥 스쳐지나보실수 없으셨다.

그 다음날 수령님께서서는 사회과학원의 책임일

군을 만나신 기회에 강동의 단군릉을 발굴해 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수령님, 지나간 일이지만 70년대 초인가 한때 우리 력사연구소의 젊은 학자들속에서 단군릉을 발굴해 보자는 논의는 있었습시다.》

《그렇소?!》 처음 들으시는 소리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무척 흥미를 가지시였다.

《그런데 어떻게 되였소?》

《허룡필원사를 비롯한 관록 있는 학자들이 반대해 나서자 그만 물거품처럼 제풀에 스러지고 말았습시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러다 얼마전에 우리는 수령님께서 묘향산과 구월산일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단군관계 유적들과 전설들을 수집할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을 실천하는 과정에 다시 그 문제가 상정되었으나 지난번처럼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더 논하지 못했습니다. 허원사는 여전히 <료동중심설>을 주장하면서 강동군의 <단군묘>라는것도 <기자묘>처럼 가짜라는것입니다.》

《가짜묘라?》

수령님께서서는 알릴듯 말듯 머리를 저으시였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수십년간 갑론을박하던 그 단군릉을 속 시원히 발굴해 보지 않겠소? 그냥 넘기면 후손들에게 빛으로 남아 있게 될거요. 발굴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단니 그들을 중심으로 대담하게 발굴해 보오. 아무렴 밀져야 본전이겠지!》

미제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여 온 민족을 핵참화속에 몰아 넣겠다고 호언하고 있던 일촉즉발의 그 긴장한 정세속에서 내리신 배심 만만한 용단이였다.

단군릉발굴대는 다음날로 조직되어 떠났다.

대한의 땀땀 추위와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그들은 작업을 시작한지 한달도 채 안되는 2월 중순경에 발굴을 완전히 끝냈다.

즉시 발굴결과를 보고 받으신 수령님께서서는 뜻밖의 소식에 한동안 기쁨보다는 놀라움이 더 크시였다.

단군릉에서는 금동왕관앞면의 세움장식과 돌림띠조각 그리고 금동띠패쪽이 각각 1 개씩 나왔으며 여러점의 연질도자기조각과 판에 박았던 쇠판 못 6개와 함께 뜻밖에도 남녀 두사람분의 유골 86개가 발굴되였다. 적어도 3,000년전 이상의 무덤으로 보았던 단군릉에서 유골이 나타나자 적지 않은 학자들이 그 진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 고구려시기의 어느 귀족의 무덤이거나 혹은 그것이 왕릉이라 해도 그 유골의 주인공들은 원래의 임자가 아닐수도 있다고, 마치 뼈꾸기가 자기 알을 남의 둥지에 낳듯 후세의 누군가가 그 왕릉에 자기의 조상들을 묻었을것이라고 하면서.

《추측이나 하지 말고 빨리 년대측정을 해보도록 하시오. 옛날 《기자묘》라는데서는 기껏 벽돌 몇장과 사기조각밖에 나온것이 없었는데 단군릉에는 묘관시설도 있었고 또 묘대우에서 유골과 부장품이 나왔다는것만 해도 대단히 큰 성과입니다. 그 유골들이 진짜 단군의것인지 아닌지는 과학만이 증명해 보일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한번 측정하는데 500그램이상의 시료가 드는 탄소측정기구로 하면 뼈가 얼마나 남아있겠는가, 그러니 몇그램의 시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초미량분석기인 전자상자성공명장치로 해보라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처음 유골발굴소식에 접하시였던 그 순간의 충격과 놀라움은 어느덧 확신으로 바뀌어 졌다.

그것은 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조상숭배관념이 강하고 선조에 대한 공경과 례의가 지극했던 이 민족의 고결한 성품과 미풍량속에 대한 믿음이였고 다름아닌 그 민족의 피줄기를 이어받고 살아오시며 체득하신 본능적인 감각이기도 했다.

권력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 동기혈육과도 칼부림을 하고 왕위를 차지했던 이 나라의 역대 봉건 통치배들조차 앞선 왕조의 모든 룡묘를 자기 조상의 묘처럼 원상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를 두어 춘하추동 돌보게 하였다.

특히 시조왕릉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자금으로 더 잘 개축해주고 해마다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며 그 명복을 빌도록 하였으니 그런 풍조는 세계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력사에서든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조선민족 특유의 미풍량속이였다.

하물며 우리 나라 력대의 모든 시조왕들이 스스로 자신을 그의 후손으로 자처하고 숭배하여 온 단군의 룡에, 나라를 빼앗긴 일제통치 40년간에도 변함없이 민족의 건국시조로 떠받들리고 보존되어 온 그 성스러운 룡이 과연 이 나라 자손들중 그 누가 들어 와 늙는단 말인가?

얼마후 년대측정결과가 나왔다.

전화로 그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서는 너무도 놀라와 자신의 귀를 의심하시며 두번세번 거듭 물으시였다.

《수령님, 모두 5천년이상이라는 년대측정 수치가 나왔습시다!》

거듭 보고 드리는 사회과학원 책임일군의 목소리도 온몸을 휩싸는 전율로 해서인지 세차게 떨리였다.

송수화기의 엷은 금속판을 통해 전달되는 책임일군의 흥분과 격조는 즉시에 전류를 타고 수령님의 심장으로 옮겨 졌다.

그것은 그야말로 기적인것이다. 아니, 기적을 초월한 그 이상의 기쁨이여서 얼른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송수화기를 드신채 한동안 응답이 없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다시 해보라고 하시오. 열번, 아니 스무번 더 해보라고 하시오.》라고 지시하시였다.

전화를 끊으신지 5분도 채 안되어 그이께서는 다시 사회과학원의 책임일군을 찾으시었다.

《아무래도 사회과학원에서만 하지 말고 다른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구로도 측정해 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철저한 객관성과 과학성, 진실성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어언간 수령님의 안광은 근엄해 지시였다.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다른 연구소에서도 5번에 걸쳐 년대측정을 한 결과 그 모든 값이 5천년 이상을 넘어 섰다.

《나는 아직 믿을수 없습니다. 이제 열번 더 해보도록 한 다음 보고하십시오!》

(그것은 우연인가, 기적인가?)

수령님께서서는 앓을념을 잊으신채 안절부절 하시며 그냥 방안을 거니시였다.

거의나 확신에 가까운 결단으로 시작하신 일이였고 그것이 성공으로 끝났으면 기뻐 해야겠으나 그이께서는 지금 바닥을 알수 없는 불가사의한 의문속에 빠져 드시였다.

돌이켜 보니 이런 심경을 그이께서는 지나온 여든평생에 너무도 많이 체험하시였었다.

천출위인이라고 떠받들어 온 이 나라 인민들의 기대와 칭송에 아직도 습관되지 못하여 매사에 거북스러움과 당혹감을 느껴 오시던 수령님이시였다.

자신이 바라고 희망한것이 성사되고 확신하여 오신것이 만민공동의 진리로 되고, 예언하신것이 그대로 사실로 됨에 그이께서는 자못 자신에게만 그 어떤 편역을 드는듯 싶은 이 세상의 신비로움에 의혹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성공의 축배잔을 들어야 할 지금 이 시각에도 그이께서는 마음을 누잡히시고 한평생 자기 자신에 대해 품어 오셨던 그 의문을 풀어 보시려는듯 유골들을 거듭거듭 다시 측정하도록 지시하시였던것이다.

버드나무 우거진 대동강가로 나오신 수령님께서서는 밝은 달빛속에 어롱어롱 굽니는 물결을 바라보고 계시였다.

수령님의 눈앞에는 이곳 대동강이 감돌아 흐르는 평양에서 태어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고이 묻혔을 단군과 그때에 쌓은 굳건한 성곽들과 거대한 고인돌들이 그리고 그속에 수천 년세월이 흘렀어도 녹슬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청동기들이 보여 왔고 아득한 원시의 태고적부터 대동강 맑은 물을 젖줄기 삼아 그 류역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역사를 개척해 온 우리 선조들의 성장의 모습이 한줄기로 잇달아 련상되시였다.

이윽하여 수령님께서서는 대동강의 물을 두손으로 정히 떠올리시였다.

그 한웅큼의 맑은 물에도 5천년, 아니 백만년을 헤아리는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명과 숨결이 맥맥히 깃들어 있는듯 싶었다.

그 다음날 수령님께서서는 평양시 X X군당에서

단군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급히 올린 보고를 받으시였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수령님께서 단군릉을 발굴하도록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지식리의 방씨로인의 손자들은 《시대에 뒤떨어 진 미신쟁이 할아버지》라고 팔시했던 자신들을 깊이 뉘우치며 할아버지의 무덤에 함께 넣어 보낸 옛책들을 다시 파내어 학자들에게 보이면 단군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아버지(나이 65살)와의 의논 끝에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연히 아들들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된 어머니는 정하겠으면 막내며느리가 해산을 한 다음에 하라고 반대했다고 한다.

그 집의 막내며느리(방진삼의 처)는 시집 온지 여러해가 되어 오도록 태기가 없다가 평양산원에서 치료를 받고 임신을 했는데 어머니의 반대리유는 임신부가 있는 집에서 묘를 옮기거나 보수를 하면 병신아이나 죽은 아이를 낳는다는 조상전래의 금기관념때문이었다.

어느 아들 하나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특히 작업반비서인 말아들이 극력 반대해 나섰다고 한다.

수령님께서서는 그 문건의 여백에 활달한 필체로 대책을 세워 주시며 다시 한번 방씨로인에 대해 상기해 보시였다.

그후 두 연구기관에서 각각 24번, 30번씩 측정한것을 종합한데 의하면 5011 ± 267 년이라는 최종적인 답이 나왔다.

그것은 과학이였다. 진실이였다. 그 어느 학파나 개인을 편역들지 않은 그야말로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력사의 증거이였고 대답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금수산의사당의 홀로 들어 서는 허룡필원사와 력사학자들을 향해 마주 걸어 나가시였다.

《허선생얼굴이 그새 퍼그나 축갔습니다. 어디몸이 편찮은것이 아닙니까?》

《수령님, 전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허원사의 목소리는 겨울날의 문풍지소리마냥 섬약하게 떨렸다.

왜서인지 언제보나 기품 있고 도고해 보이던 허원사가 오늘은 촌늬은이처럼 초췌해 보이는것이 특별히 마음에 췌였다.

이어 력사학자들과 허물없이 한 원탁에 자리를 같이하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들모두에게 이번에 단군릉을 발굴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다시 한번 치하하여 주시였다.

《허룡필원사선생은 단군릉에서 발굴된 유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원사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 섰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수령님께서서는 허원사의 옆에 앉아 있는 사회과

학원 책임일군과 다른 학자들의 시선이 모두 긴장되어 조마조마해 있음을 직감하시었다.

(왜 그럴까?!) 언뜻 떠오르신 의문이였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이 분명했다.

허원사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으나 눈길을 내리떨군채 먼구한 표정을 지으며 부자연스럽게 말을 할듯할듯 주름잡힌 입술을 해어진 손뽕금의 풍낭처럼 움지려거리기만 했다.

《저...》

《어서 자기 견해를 마음 놓고 말씀하십시오. 나이상으로나 학위학직으로야 선생만한분이 있습니까? 학문을 론하는 이 자리에서는 나도 한 청취자에 불과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선생의 고견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탁우에 놓여 있는 담배팩을 드시여 모두에게 차례로 권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자신도 한가치 입에 가져다 대시였다.

그러시고는 범연한 낯으로 드윅-하고 성냥을 켜시였다.

여유작작하고 아량 있는 그이의 태도에 힘을 얻은듯 허원사는 비로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자신과 둘이서 역사를 론하던 그때의 그 생기와 약동을 거의나 찾아 볼수 없이 잦아드는듯 한, 그의 곁에 앉아 계시는 자신께서나 겨우 가려 들을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낯은 목소리로 힘겹게 말마디들을 이어나갔다.

《수령님...저는...당최 ...믿을수...아니... 믿어지지...않습니다. 그 유골이... 5천년전의것 이... 옳다고 해도... 그것이 꼭... 단군의것이라 하기에는... 현재로써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워낙 얇은 학자가 되어서... 그러겠지만...저는... 단군이라고는...》

매우 피로계, 어찌보면 비장하게조차 들리는 그 마지막 말을, 자기 혼신의 힘과 온 운명을 걸고 짜내는듯 한 그 마지막말을 그는 끝내 맺지 못했다.

장내의 누군가가 저도 모르게 내쉴 한숨소리에 위압되어서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던져 질 동료들의 실망의 눈빛에 심장이 떨려와서인지.

《그렇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평소의 울림폭이 큰 음성으로 혼연히 말씀하시였으나 그이께서 받으신 심적충격은 어지간히 큰것이였다.

우리 나라 역사학계의 거장인 그가 솔선 부정해나서서가 아니였다.

《그런데 그 반대근거는 무엇입니까?》

수령님께서 마디마디에 그루를 박으시였다.

《...》

침묵, 스스로 자신도 역겨워 지는 피로운 침묵 속에서 벗어 나려고 허원사는 몸부림쳤으나 좀처럼 헤어나올수 없었다.

《일없습니다. 허선생, 이왕지사 자신의 견해를

발표한 다음에야 뭘 더 남의 눈치를 볼게 있습니까? 허선생, 어서 말씀하십시오.》

그이께서 다정한 음성으로 재촉하시자 마침내 허원사는 강인히 마음의 구박에서 벗어난듯 자기의 견해를 담담하고도 조리있게 피력하기 시작하였다.

《수령님, 지난 시기 우리 학계에서는 단군의 존재여부를 놓고 당초에 논의해 본 일조차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것은 《단군신화》에서 전해오는 기원전 2,333년의 고조선건국설이 아무런 역사적타당성도 없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너무도 허황하고 무근거한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고고학계에서는 고조선의 건국년대를 기원전 8세기경, 더 높잡아서 10세기경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도 평양이나 조선반도에서가 아니라 료동에서 건국했다는것이 오늘날 더더욱 부정할수 없는 역사적사실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이번에 발굴된 유골을 단군의것이라고 한다면 고조선의 건국년대가 《단군신화》의 단기보다도 무려 700년이상 이나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조선이 청동기시대 말기가 아니라 신석기시대인 기원전 30세기초에 건국된것으로 대폭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2천년의 공백을 메꿀수 있는 고고학적유적유물이나 문헌자료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그 유골 하나만을 절대시하고 역사상에 단군이 실재했다고 한다면 현재의 고대사체계에 의혹의 그림자를 던져 주게 될것이며 고조선의 중심지문제, 나아가서 우리 나라에서의 신석기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구분에서도 풀기 어려운 난문제가

착잡하게 제기될것입니다. 그러면 고대사전반을 혼돈과 미궁속에 빠뜨릴수도 있는 우려가 있음을 굳이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어서 그 유골의 입자가 단군인가 아닌가는 문제는 결국 고조선이 언제 건국되었고 그 중심지가 어디인가 하는데 귀착되는 순수 학술적인

문제로서 보다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제 생각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허원사는 손수건을 꺼내어 이마에 즐벅히 내뻗 땀을 문다쳤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서인지 미간의 반점은 검시레해졌고 셋하얏던 눈섭과 머리칼마저 불그레해보였다.

《그러니까 허선생은 오늘날 단군의 실체에 대한 고고학적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겠소?》

수령님께서 물으시였다.

《제 짧은 소견에는 지난 기간 우리가 국내외에 있는 고조선관계의 유적유물들과 자료들을 가능한것 다 발굴하고 연구해 본 조건에서 5천년전의 고조선건국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들을 새로 찾아내는것은 거의나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이 끝나자 잠시 생각에 잠겨 계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이윽하여 좌중을 둘러보시었다.

《다른 학자선생들도 자기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명의 학자들이 일어났다.

그들은 한결같이 문제의 유골은 조상대대로 《단군묘》라고 하던 곳에서 나온 유골이며 또 서로 다른 기관에서 50여차의 측정결과 나온 가장 과학적인 년대수치이므로 5천년전에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음이 고고학적으로 해명된것이나 같다고 열렬히 론조로 력설했다.

그리고 단군묘가 그곳에 있게 된것은 고구려의 평양 천도시 동명왕의 무덤과 함께 단군무덤도 옮겨 온것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맨나중에 일어난 사회과학원 책임일군이 허원사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을 내놓고는 절대다수의 많은 학자들이 단군의 유골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총괄하여 말씀 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장내의 분위기는 납덩이처럼 더욱 무거워졌다.

그이께서는 그들의 어조와 론조에서 어딘가 모르게 학술적인 론쟁의 범위를 벗어나 마치 허원사를 타매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사상투쟁마당에 자신이 참석하신듯 한감을 느끼시었다.

일순 수령님께서서는 여기로 오기전에 있었을 분명치 않은 그 론쟁광경이 떠오르심에 절로 마음이 긴장해 지시었다.

그 학술적인 론쟁과 론의의 뒤끝에 내려진 결론은 정치적생명에 대한 위협이나 그의 당성에 대한 의혹, 혹은 강요된 자기반성일런지도 모른다.

숫제 《이것은 수령님의 뜻이다!》,

《그이께서는 오직, 기쁨과 만족만을 드려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바늘방석에라도 앉은듯 불편해하는 허원사의 심정을 료량해 보시는 수령님의 마음은 더욱 쓰라리고 아파 나셨다.

학자다운 솔직함과 지성이 비껴 맑게 빛나던 그의 두눈엔 장마철의 구름이 낀듯 침침했다.

허나 그의 온몸에서는 숙여 들수 없는 학자로서의 자존과 감출수 없는 량심이 은근히 빛발치고있었다.

(햇빛을 손바닥으로 가리울수 없듯이 그 무엇으로도 진실을 감출수는 없는 법이지. 다만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로 되기까지에는 일정한 시간과 검증이 필요할뿐이다.)

하지만 자신앞에서도 단군을 부정하는 허원사가 과학자적량심과 지조를 위해서라면 단두대에라도 서슴없이 몸을 내댈 영웅처럼 보였다.

기실 허원사는 이 자리에 참석하기전까지도 그 유골의 주인은 단군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여러가지로 설복도 하고 협의도 했으나 완고하

게 제 주장만 고집하는 그의 우직스런 모습은 일부 사람들의 광막에 각이하게 비쳐 졌다.

그들은 한결같이 쓴 입을 다시며 머리를 내저었다.

그 누군가가 열결에 《원사자격이 있는가?》고 경망스럽게 한 말은 여러번 굴곡되고 굴절되어 본인에게는 《원사증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로 전달되었다.

그는 격분했다.

《목숨은 내놓아도 이 원사증은 못 내놔! 수령님께서서 수여해 주신 이 원사증을 감히...》

허나 누구에게도 자신의 그 피로운 심정을 터놓지 못했다.

지금 처지에서 누가 그에게 동정과 지지를 보낼수 있단말인가 ...

허원사가 무턱대고 긍정하리라고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이 자리에서 그가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할수록 왜서인지 되려 자신의 마음이 든든해 지셨고 순편해지셨으며 가슴 그득히 그 어떤 야릇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너그러움과 동정심만이 아닌 인간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한없이 숭고한 감정의 분출이였고 충만감이였다.

허원사야말로 지극히 고지식하고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자기의 과학적신조와 량심을 지킬줄 아는 순결무구한 인간이요, 그 어떤 믿음과 인정에 눈이 멀어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거나 절충치 않는 참다운 과학자이라는 믿음이였다.

무릇 《력사는 진리이다》고 한다.

그러자면 우선 그 력사자체가 진실로 충만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은 무조건 과학이어야 한다.

철학이 신학의 노예가 아니듯이 력사도 정치의 부속물이 아니며 오히려 스승이고 예언자인것이 다.

만약 허원사가 과학적신념없이 경우맞춤으로 지지해 나섰다면 그의 《성격과피》에 아연실색하셨을것이며 못내 자신의 가슴이 쓰라리셨을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뇌리를 쳤다.

허원사에게 있어 유골평가문제는 고조선의 건국년대에 대한 학술상의 문제이지만 그이에게는 과학자의 신념과 량심, 인간의 성실성과 존엄에 대한 문제였기때문이었다.

또한 과거에 대한 문제인것이 아니라 먼 후날의 미래에 대한 문제였다.

모두는 수령님께서 자신들의 이 론쟁을 판결해 주실것을 기대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그이를 우려했다.

《단군궁정론이나 부정론이나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당장 단군룽발굴보고를 발표한다는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허원사가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의 론거에 일리가 있기때문입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깃들여 방안에 조명이 켜진지

도 이속했다.

《생각해 보시오. 동무들, 2000년의 그 공백을 그래 무엇으로 메꾸겠습니까? 동무들은 그 공백을 단군릉을 발굴하도록 지시한 나에 대한 찬사로 다 채워 놓으려고 작정한것은 아닙니까? 후날의 책임도 모두 허원사나 나에게 밀어 놓고 동무들은 <만세>나 부르자고 말입니다.》

긴장한 분위기를 늦추시려는듯 그이께서는 해학적으로 말씀하시며 크게 웃으시었다.

좌중은 쑥스러운 웃음으로 술렁이였다.

허원사의 두눈은 한순간 뿌잇해 지더니 전보다 더 크고 맑게 보였다.

알릴듯말듯 그는 가볍게 어깨를 들먹이며 숨을 감시였다.

《속담에 말 타면 전마 잡히고 싶다고 나는 발굴범위를 단군릉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고조선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재고증하는 의미에서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고조선관계의 유적들을 다 발굴해 보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이께서는 결론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당면하여 나는 고인돌을 비롯한 고조선의 유적들이 서북지방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조건에서 앞으로 한 서너달동안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를 모두 발굴해보자는것입니다. 아예 속시원하게 말입니다.》

《웁습니다. 수령님! 우리는 지난 기간 고조선의 역사를 중국 료동지방에서만 찾아 보려 했고 기껏해서 일부 특대형고인돌들에만 관심을 돌려왔지 크고 작은 고인돌들이 도처에 남아 있는 우리 나라 서북 지방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관심했고 경시해 왔습니다. 이제 당장 평양과 그 주변지역에서 전면적인 발굴선공을 일으키겠습니다!》 책임일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신심에 넘쳐 결의를 다졌다.

《좋습니다. 나는 그 발굴책임자로는 허원사 선생이 제일 적임자라고 봅니다. 단군부정론자의 엄격한 검열을 받고 나온 최종결과라야 그 객관성과 공정성, 진실성이 보장될수 있습니다. 허원생, 어떻습니까?》

수령님께서 믿음어린 눈길을 보내시자 허원사는 너무도 황송하여 《수령님, 늙고 암매한 제가 어떻게...》 하며 더 말끝을 잇지 못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것이 선생이 소년시절부터 품어 왔던 <피라미트의 꿈>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선생도 언젠가 들렸댔다면 그 X×군 지식리의 고인돌 무덤일대부터 발굴해 보십시오. 방씨일가도 만나 볼겸말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좌중을 둘러보시며 《동무들도 모두 합심하여 발굴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라고 힘 주어 말씀하시었다.

순간 장내에서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1993년 9월 하순

세월은 너무도 빠르게 흘렀다.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와 그로 하여 우리 당과 혁명앞에 제기되는 풀기 어려운 난문제들이 수령님께 시시각각으로 제기되였다.

그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과 그 주변일대의 유적발굴조사사업이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그들모두를 다시금 집무실로 불러주시었다.

허원사를 비롯한 모든 성원들의 얼굴은 해별에 검실검실 탔고 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다.

《허선생, 년로하신 몸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새 앓지는 않았습니까?》

현지에 나가 있는 그를 위해 전문의사를 보내도록 하여 주시고 때없이 그의 건강상태에 대해 알아보신 수령님께서서는 그에 안심치 않으신듯 다시금 물어보시었다.

건강하다는 허원사의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그게 제일 기쁜 성과입니다.》라고 하시며 대단히 흐뭇해 하시었다.

허원사는 그동안에 진행한 사업들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초보적으로 조사한데 의하면 평양부근에는 무려 1만 4,000여기의 고인돌 무덤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료동반도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108기의 고인돌과는 대비조차되지 않는 량입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평양지방에 왕릉급으로 볼수 있는 특대형의 고인돌무덤이 다른 지역보다 더많이 집중되어 있는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비파형단검과 창끝, 청동활촉 등을년대측정해 본 결과 기원전 4천년기 후반기를 청동기시대로 편년할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과는 예상외로 컸다.

단군릉이 있는 강동군 남강로동자구 황대마을 앞산에서는 5천년전에 축조한 산성인 황대성을 새로 발굴하였고 평안남도 성천군 룡산리에서는 우리 나라 령역에서 처음으로 기원전 4000년기 말에 만들어 졌다고 볼수 있는 순장무덤을 발견하였다.

《불과 다섯달동안의 발굴결과에 오래동안 존재하여 온 <료동중심설>은 그 존재명분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침이 마른듯한 입술새로 얹게 새여 나온 허원사의 이 마지막보고의 말은 신음소리처럼 애처롭게 그리고 무척 갈린듯이 들려 왔다.

이어 허원사는 수령님께 붉은천에 쓴 증서를 드리며 경건히 말씀 드렸다.

《수령님께서 10년전에 저에게 수여해 주셨던 력사학 원사증서입니다. 저는 자신에게 원사자격은 커녕 조선의 력사학자의 초보적인 자격조차

없다는것을 통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5천년을 거슬러 들려 오는 민족의 옛 노래를 들으시는듯 허원사의 발굴보고에 심취되어 계시던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돌연한 행동에 못내 의아해 하시었다.

《허선생, 내가 그걸 받고 어찌라는겁니까. 선생에게는 원사가 아니라 대원사학위라도 있다면 서슴없이 주고 싶은것이 지금의 내 심정인데 왜 그러십니까? 이 원사증은 내가 준것이 아니라 선생이 쌓은 공적을 평가하여 인민이 준것입니다. 나는 다만 그 심부름을 했을뿐입니다.》

언제나 겸허하신 수령님이시였다.

단군의 출생지와 우리 민족사발전의 중심지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허원사를 바라보시며 《허선생의 건강이 허락된다면 또 하나 새 일감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정답게 물으시었다.

《수령님, 제 로구의 몸이지만 꼭 해내겠습니다. 무슨 과업이든지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허원사가 활기 있게 자청해 나섰다.

그는 정말 50대 중년 같아 보였다.

《난 언제나 허선생을 생각할 때마다 선생의 그 <피라미트의 꿈>이 떠오르군 합니다. 조선민족이 절대로 남만 못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슬기롭고 문명하고 위대한 민족이라는것을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 싶었다던 그 꿈을 어떻게 하던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꽃 피울수 있을가하고 말입니다. 이제는 그 꿈을 완전히 꽃 피울 때가 온것 같습니다. 선생은, 아니 우리 조선민족은 그 거대한 영광의 피라미트를 기어이 발굴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대소민족가운데서 자기 원시조의 유골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오로지 우리 박달민족뿐입니다. 단군이 신화적인물이 아니라 실재한 인물이라는것, 단군이 여기 평양에서 5천년전에 동방의 첫 국가를 세웠다는것을 확인한것은 그야말로 인류문명사에 쌓아 올린 조선민족의 거대한 피라미트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신듯 싶었다.

목소리도 평소의 목소리가 아니였고 손도 정지될 때마다 가늘게 떨리는것이 모두에게 쉬이 알리였다.

《난 단군의 유골을 우리 민족 고유의 형식인 피라미트형의 돌무덤에 안치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모두가 반대 없다면 그 도안을 허선생에게 위임하자고 합니다.》

뜻밖의 믿음에 눈지방이 붉어진 허원사를 참가자 모두는 감격의 박수로써 열렬히 축하해 주었다.

《단군은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만큼 고무려시조의 무덤인 동명왕릉보다 더 크고 높게 하는 원칙에서 도안도 잡고 설계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서는 차라리 이제 당장 단

군의 룡터를 잡으려 가보지 않겠는가고 제의하시였다.

오후로 예견되어 있던 외국대표단과의 회담을 래일로 미루도록 하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들 모두를 데리고 강동으로 떠나시였다.

수령님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달리는 허룡필의 뇌리엔 문득 미처 아뢰이지 못한 사연이 떠올랐다.

《수령님, 저는 이번에 지식리에 가서야 수령님께서 방로인에게 돌려 주신 사랑과 은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방씨로인의 손자들이 기어이 할아버지의 책을 꺼내야겠다고 하면서 저들끼리 일을 시작했을 때 갑자기 삽과 곡괭이를 둘러멘 군당일꾼들이 수령님의 명의로 된 화환을 앞세우고 나타나더랍니다.》

뜻밖에도 방로인의 무덤을 파는 일은 군적인일로 되였다.

조상의 풍습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 책을 꺼냈으나 아쉽게도 책은 많이 손상되어 거의나 글자를 알아 볼수 없었다. 다행히도 부피 두툼한 그 책속에는 강동군과 이웃하고 있는 성천군의 옛 지도인 《성주읍도록》이 비교적 성한채로 남아 있었는데 그 지도에는 단군과 고조선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단군조선의 여러 임금들의 이름을 단 고대지명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허룡필은 자신이 10년전에만 눈이 텅터도 귀중한 그 책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것이라고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몸부림쳤다.

그는 더 크게 잘 꾸려진 방로인의 무덤에 찾아가 제술을 붓고 무릎을 꿇으며 통절한 마음으로 속죄하였다.

조국이 광복되어 장장 50년이 되어 오지만 아직까지도 일체의 잔재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신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숙명처럼 강요되어 온 사대주의 고질병에 포박되어 눈이 어두웠던 자신을 두고...

《방로인의 막내손자며느리는 어떻게 되였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자못 그 일이 궁금하신듯 마저 물으시였다.

《순산을 했답니다. 바로 어제 방진삼이한테서 기쁜 전화가 왔습니다. 떡돌같이 실한 아들딸 쌍둥이를 낳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늦은 봉창을 한번에 다 했구만. 옥동자 옥동너로말이요!》

수령님께서서는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축복해주시였다.

《그런데 방진삼이 저에게 하는 부탁이 그 쌍둥이들의 이름을 지어달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의 증조할아버지의 념원을 담아 단군민족의 혈통을 이은 후손답게 통일된 강토에서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길이길이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쌍둥이 오누이의 이름

을 <단룡>, <단옥>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단룡, 단옥이라!... 정말 뜻이 깊은 이름입니다!》

수령님께서 허원사의 뛰어난 순발력을 치하하시며 생각 깊은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그러니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우리 조선민족은 력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을 물리치고 곳곳이 5천년의 명맥을 지켜 왔으며 오늘은 단룡이와 단옥이도 포함하여 모두 7천만이라는 대식솔로 자라나게 되었구만!》

그이는 통일된 삼천리강토우에 우뚝 서시여 5천년 력사를 슬기와 용맹으로 빛내인 그 하나 하나의 령혼들과 산 모습들을 한눈에 굽어보시는듯 싶었다.

(그이는 정녕 우리 민족의 운명이시다. 5천년, 5만년, 5억년후의 우리 조선민족의 가슴속에 영원히 계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허룡필에게는 강동으로 가는 이 길이 마치 5천년이라는 시간의 장벽을 허물고 거룩한 두 거인이 상봉하러 가는 길인듯이 생각되었다.

《이제는 내가 후손들에게 빛을 진것이 없을까...》 혼자소리로 하시는 말씀이시었다.

저 멀리 대박산이 보였다!...

...그로부터 1개월후인 10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은 《단군릉 발굴보고서》를 세상에 공포하였다.

(2)

《수령님, 사회과학원 허룡필원사선생이 도착했습니다.》 부관이 알려 드렸다.

《그렇습니까?》

추억에서 깨어 나신 수령님께서 그가 기다리고 있는 정원으로 걸어 가시었다.

단군릉에 대한 도안과 설계는 이미 끝난 뒤여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룡옆에 세울 탑과 조각상들이 아직 미흡하여 수정중에 있었던것이다.

이제는 원만히 되었으리라는 기대를 안으신 수령님의 걸음은 저도 모르게 빨라졌다.

정원의 가로등밑에 서 있는 허원사의 모습이 안겨 오자 수령님께서 습관적으로 손목시계를 들여다 보시었다.

벌써 12시 05분이였다.

그러니 이제는 4일 15일, 82번째의 생신 날인것이다.

《소쩍- 소쩍-》

소쩍새울음소리가 들려 온다.

이 밤이 그이께서 생전에 맞으신 마지막탄생일이라는것을 세상은 모르고 있었다.

1994년 10월 11일

이날 대박산에서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단군의 후예들이 참가한 가운데 단군릉개건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청천벽력같이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잃고 너무도 원통하여 땅을 치고 가슴을 쥐여 뜯으며 피눈물을 흘린 7월의 그날로부터 어언 아흔다섯번째날이였다.

그리도 단군릉준공의 이날을 바라시며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7월 6일에도 하루빨리 단군릉을 일떠세워 온 세상에 보란듯이 자랑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그 로고가 떠올라 허룡필원사의 두눈에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아, 얼마나 기뻐 하셨으랴 우리 수령님, 석달을 눈앞에 두시고 그리도 애석하게 우리결을 떠나가신 수령님!

지식과 지성으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우리의 민족사를 사랑하신 수령님이시여, 정녕 5천년의 력사를 안고 들뿔던 그 심장이 멎으셨단말 입니까?

수령님, 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꿈이었던 《조선의 대피라미드》를 나는 보았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수령님 계시는 금수산 꼭을 우러르는 그의 귀전에는 느닷없이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들려 왔다.

아버님에게서 단군이아기를 들으시던 소쩍새 울던 그 밤과 더불어 더욱 뜨거워 진 우리 수령님의 민족사랑의 한생이, 그 새소리와 함께 흘러간 수령님과 맺어 진 자신의 지난 50여년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소쩍... 소쩍...》

랑랑하고 또렷한 이 가을날의 그 울음소리가 꿈인지 환각인지 그는 알수 없었다.

아마 그의 마음의 소쩍새이리라.

무중 수령님께서 언제인가 허룡필자기에게 하였던 그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버지, 왜놈들에게 빼앗긴 우리 나라를 다시 찾으면 그때는 저 소쩍새도 슬피 울지 않겠지요?》

...

하다면 소쩍새는 우는가 웃는가?

아, 소쩍새여, 네가 단군의 혼이라면 너는 기뻐 웃으리라. 허나 이 가을날 내 마음속의 소쩍새여, 네가 수령님을 그리는 내 마음이라면 너는 울고 울리라. 소쩍새야, 네가 우니 우리 수령님 더더욱 그리워 진다.

그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은 인류력사의 려명기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찬란한 문화와 력사를 창조하여 온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이 세계4대문명의 발원지인 닐강, 량강, 인다스강, 황하와 더불어 인류의 고대문명이 꽃

된 발상지의 하나임을 확증하고 동방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첫 고대국가를 낳게 한 그 문화를 《대동강문화》로 명명한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이로써 우리 조선민족은 인류의 옛고향에서 적자로 태어나 수백만년을 정착해 온 이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며 또한 세계5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사는 남다른 특전과 존엄을

력사는 무엇으로도 지울수 없다.

수수천년 흘러 간 세월도 비문에 새겨진 글발들을 덮어 버리지 못하였거니.

편집부는 최근에 발굴된 단군에 대한 시들중에서 그 일부를 소개한다.

지닌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서 영광의 상상봉에 오르게 되었다.

그날 허원사는 바로 그것이 수령님께서 한평생 품어 오신 애국애족의 꿈이요, 온 심혈을 바쳐 이룩하여 놓으신 업적임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소쩍- 소쩍- 그 밤도 어디선가 소쩍새는 울었다.

편집부

단군묘

김시습(1435~1493 년)

단군은 민족의 원시조
태백산에 성스런 자취 남기었네
하늘의 자손이라 첫 임금되시여
신령이 도와서 동방대국 다스렸네

천년 지나 아사달에 드시여
만대의 천지개벽 이루어 놓았어라
오랜 세월 머물러 나라터전 닦아 놓아
서산에는 붉은 노을 비껴 흐르네

아침해 솟아 오르다

김평묵(1805~1874 년)

아침해 동쪽에서 솟아 오르니
동방의 새 임금 소리치며 탄생해라
그는 으뜸가는 동쪽나라 착한 임금
어진 덕으로 왕관을 쓰시었네

동방의 력사 처음으로 시작되고
동방의 나라 처음으로 세워 지니

크고 작은 강하천물 도도히 활기 넘쳐
넓고 넓은 서해로 감돌아 가네

동방조선 우리 땅에 통운이 터서
장해라 백성들 태평세월 만났구나
아 우리의 박달황제 조선의 첫 임금
단군의 높은 공적 길이 전해 지리

단군을 우러러 추모하다

김준(19 세기 중엽~20 세기 초엽)

성스런 하늘신선 동해땅에 태어나
그때부터 뛰여 난 공적을 쌓았어라
동해바다 둥근해 솟아 오르자
박달나무 아지마다 꽃구름 피여 나네

하늘과 땅 갈라지기 시작할 때엔
산도 바다도 갈라지지 않았어라
이토록 오랜 세월 흘러 왔어도
우리 임금 단군생각 잊을수 없어라

명언해설

《가사는 한편의 정교한 시로 되어야 한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에는 가사가 서정이 넘치는 세련된 시로 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가사는 노래로 불리워 질것을 전제로 씌여 진다. 하지만 결코 가사가 가요음악의 종속물이 아니며 그것은 시문학의 품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가사는 마땅히 한편의 정교한 시로 되어야 한다. 가사가 정교한 시로 되자면 가사의 음악성을 전제로 하여 세련된 시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가사는 그 형식에서 시행 하나나 글귀 하나도 고도로 집약되고 정제되어야 하며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는 간결성과 함축선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작곡가의 악상을 계발시킬수 있는 서정이 풍부하고 형식이 세련된 가사로 되어야 한다. 그래야 곡도 좋은 곡으로 될수 있다.

박사부부의 행복한 삶은

서진명

짧았던가
길었던가
과학원 함흥본원의 박사부부
그처럼 뵈고 싶던 장군님을
몸 가까이 만나뵈온 행복의 시간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가
장군님 다심하게 물으시니
세월의 물결에 실려 멀리로 사라졌던
청춘시절이 불시에 되돌아 온듯
부부의 가슴은 마냥 설레어

총포성이 울리던 전화의 그날
대학의 교정으로 불러 주신
수령님 뜻으로 심장을 불 태우며
학습을 전투로 벌려 가던 청년대학생
쌍태머리 처녀대학생의 모습으로
마음은 장군님앞에 서고

전공이 무엇인가
연구사업정형도 일일이 들어주시니
검은 머리 회색회색해 지도록
과학탐구의 길을 나란히 걷던 세월이
아름다운 추억의 별로 떠올라

염화비닐과 합성수지
비날론중간제품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끝끝내 안아 올린
탐구의 열매 그 하나하나가
태양의 빛발에 싸여
태양의 축복속에 찬란히 빛나오르는듯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인재들이라고
위대한 우리 장군님
박사부부를 대견히 바라보시며
온 나라가 다 보게 한생을 빛내주실 때
그만해야 눈가에 뜨거운것을 담았거니

어찌 시계의 눈금으로
재일수 있을것이나
행복의 절정,
행복의 무아경에 잠겨
박사부부가 장군님을 만나뵈던
그 시간은 짧아도 긴 시간

걸어 온 인생길과 가닿을 한끝
오늘에 빛내주고 래일을 밝혀 주며
그 시간은 가지 않으리라
장군님 품에 안겼던 그날, 그 시간에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해주며...

청원

(의거자) 김중운

언제부터였던가
나를 당에 받아 달라고
청원하고 뜬 생각이
봄물처럼 가슴에 차오르던것은

저 식민지 남녘땅에서
《개》와 《늑》으로 불리우며
인간이면서도 인간이 아니었던 그 시절엔
불모의 땅에 었드려
내 얼마나 소원했던가
단 한번이라도 사람대접 받고파
세상에 없는 《하느님》을 불러 보며
얼마나 몸부림쳤던가

무참히 짓눌려 사느니
죽어도 인간의 참세상에 안기고 싶어
분렬의 철조망
잔등에 식은 땀 흐르는 지뢰밭을 넘어
사선을 헤쳐 공화국의 품에 안기던 그날

정에 주리고
사랑에 주렸던 나는
그만 울었다
동무라 부르고 동지라 불러 주는
고마운 사람들의 그 인정에
어깨를 펴며 흐느껴 울었다

인간의 참세상을 찾아 와
가슴속 소원은 다 풀렸건만
마음은 왜 자꾸 무거워만 지고
밤이면 잠 못들며 뒤채기게 되는가
아직도 풀지 못한
그 무슨 소원 있어

당을 어머니라 부르고
나는 그대의 아들이라 부르며

당원의 영예를
공지와 행복의 최절정에 두고 사는 사람들
나는 조용히 생각한다
당원이란 어떤 《벼슬》이기에
저렇듯 열렬히 소망하는것인가

허나 그것은 벼슬이 아니었다
당원이란 불같이 사는 사람들
시대의 앞장에 기발처럼 사는 사람들
지어 의로운 죽음앞에선
웃으며 갈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조선로동당원이었다

짐승세상에서 인간세상으로 오고 보니
이제는 참인간이 돼야겠다는 생각
그 참인간은 조선로동당원
나도 당원이 될수 있을가
위대한 어머니의
아들이 될수 있을가

내 그래서 당원은 아니건만
당표 없는 당원중주머니에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으신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간직하고 사나니
나도 감히 당원으로 살고 싶어

나에게 새삶을 안겨 주고
운명도 미래도 끝까지 책임지는
위대한 어머니를 위해
힘과 정열을 다 바치고
필요하다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 뒀다며는
그때에 비로소 나는 청원하리라
나를 조선로동당에 받아 달라고

세계성구속담

가장 어두운 때가 날 밝기 직전이다.(영국)
바람은 불들수 없고 진리는 숨길수 없다.
(로씨야)
진리는 세계의 태양. (로씨야)
진리는 통행증이 없이도 국경을 넘나 든다.
(프랑스)

진리

시간은 지나가고 세월은 흘러도 진리는 영원하
다.(아랍)
빠돌어 진 거울에는 모든것이 빠돌게 비친다. (이
전 쏘련)
인정은 둥글지만 진리는 모난것.(중국)

선군시문학의 구보전진을 위하여

김철민

시대와 더불어 시문학도 전진한다. 이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 저절로 시문학의 전진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수로 되려는 자각을 투철하게 지닌 시인들의 사색과 탐구가 보다 깊어지고 커지는 과정에 시문학은 전진한다.

시인들의 깊은 사색과 탐구를 통하여 우리 시문학의 정서적체험세계가 보다 심오하고 풍부해지며 그 과정에 주체의 시문학은 질량적장성과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것이다.

우리 시대 선군시대의 시문학은 평보나 습보가 아니라 마땅히 구보로 전진해야 한다.

백두산의 총대바람을 타고 내달리는 선군시대의 전진에 발 맞추어 나가며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문학이 구보로 달리지 않으면 안되는것이다.

그런것만큼 선군시문학의 구보전진을 위하여 시인들은 비상한 각오와 투지, 열정을 지니고 그 어느때보다도 깊은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시인들의 그러한 사색과 탐구의 자취를 올해 상반기에도 《조선문학》에 실린 시편들을 통하여 찾아 보려고 한다.

새로운 정서적형상을...

우선 새롭고 독창적인 정서적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인들이 기울인 사색과 탐구의 깊이와 열도를 가늠해 보려고 한다.

시인이 새롭게 찾아 낸 생활의 진리와 철학, 시인이 새롭게 느끼는 정서적체험, 시인의 고유한 호흡과 박동- 이러한것들이 깃들어 있는 시형상은 서정의 퍼덕임이 보이는 시형상으로서 선군시문학의 구보전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시형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물론 주체의 시문학은 발전의 첫 걸음부터 독창성을 구현하는것을 서정성을 높이고 시문학을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여 왔지만 오늘 이 문제는 력사에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조국수호, 조국번영의 새 시대, 선군시대의 높은 지향과 미감으로부터 보다 절실하고 중요하게 제기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한편의 시를 써도 자기 얼굴과 자기

목소리가 뚜렷한 서정세계를 펼쳐놓아야 한다.》

《조선문학》(2002년 1호~6호)에 실린 시들 가운데서 우리는 시 《오, 한훤의 미시가루여》(곽명철 3호), 《백명의 나와 함께》(최은희 3호), 《영웅들은 어떻게 말하는가》(전승일 6호), 《레루못에 대한 시》(김명익 6호), 《7천만의 무도회》(김정철 4호), 《두 언제 중에 어느것이 클니까》(고남철 1호), 《탄과 꽃》(강성국 5호), 시조 《대흥단소묘》(박정애 6호)를 비롯한 작품들을 통하여 시인 고유의 느낌이 실린 시형상을 찾아 볼수 있다.

정녕 나눌것을 나누었던가
오늘도 불려 가슴 뜨거운
그날의 한훤의 미시가루여

한사람의 몫으로도 성차지 않을
그 한훤의 미시가루가
그날에 열, 스무사람에게 나누여지고
세월 넘어 오늘도 우리에게 나누여지고

-시 《오, 한훤의 미시가루여》 중에서-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한훤의 미시가루 이야기를 소재로 여러편의 시들이 지난 시기에 씌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시인 나름의 독창적인 느낌을 담고있기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한훤의 미시가루가 오늘도 《나뉘여》진다고는 생각지 못하였을것이다. 항일의 그날에 여러 사람이 나누기에는 너무나 적었던 한훤의 미시가루가 세월을 넘어 오늘도 천만사람에게 나뉘여 지고 있으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때없이 미시가루를 나누던 항일전의 그날의 우등불가로 다가서게 한다고 생각할 때 그 한훤의 미시가루는 얼마나 크고 무거울게 느껴 지는것인가,

그 크기와 무게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동지적사랑의 크기와 무게로 가슴치며 느껴 지도록 한 여기에 《오늘도 나뉘여 진다》는 시적발전의 참신성과 새로운 정서적묘미가 있는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으며 체험하는 생활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각도에서 투시해 보고 형상하면 그 의미가 새롭게 안겨 올수 있다.

시 《백명의 나와 함께》와 《두 언제중에 어느 것이 큼니까》는 새로운 각도에서 생활을 들여다 보려는 시인의 노력이 느껴 지는 작품들이다.

군복을 갈아 입고
내 모교의 정문에 섰노니
추억에 젖어 오는 이 마음속으로
수많은 《나》들이 뛰어드는구나

-시 《백명의 나와 함께》 중에서-

서정적주인공의 추억속에 마음껏 배우며 사랑을 받아안던 모습들로 안겨오는 수많은《나》들! 그 수많은 《나》들에 앞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성 다하는 충신의 모습으로 될 《나》가 합쳐진다. 그래서 백명의 《나》가 된것이다.

시인은 분명 하나뿐인 《나》를 백명의 《나》로 특색 있게 설정하고 그 백명의 《나》들이 모여진 형상속에서 사람과 보답에 대한 의의 있는 사상을 감명깊게 보여 주려고 하였다.

시 《두 언제중에 어느것이 큼니까》도 어른들이 세운 발전소언제와 그 언제아래에 아이들이 소꿉놀이로 쌓은 자그마한 《언제》를 비교하려는 새로운 착상을 세우고 아이들의 아이에 비친 벽찬 현실을 부각시켜 보여 주고있다.

새로운 느낌을 안겨 주는 시형상들에는 레외없이 시인의 깊은 철학적사색이 엮여져 있다.

시인의 시적발견이란 인간과 생활의 본질을 드러낼수 있는 문제, 하나를 통하여 열백을 헤아릴수있게 하는 문제에 대한 남다른 정서적파악이며 느낌이 아니겠는가.

선군시대 시인들은 사랑과 증오의 철학도 자기의 손끝으로 파헤쳐 새롭게 드러내 보일줄 안다.

...

노예의 멍에를 끌던 날엔
헉헉- 마소의 단김을 뽑었고
분여지의 말뚝을 광광 박던 날엔
처음으로 기운찬 타령도
불렀을 입입니다

지금은 그 입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타들어 가는 수류탄을 물고
불이 터진 중기압철을 굳게 물고
무슨 말을 웨치고 있습니까-

...

침략자들이 덤벼 든 땅에서는
영웅들이 하고 싶은 말이
노한 중기가 되고
불덩어리 수류탄이 된것입니다!

-시 《영웅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

...

더 말해 무엇하리 태평양 건너
너희들 양키페들이 아니었다면
조선사람들 백년에 백살은 더 살았으리
사람머리에 철길못을 치는 살인자가 없었다면

진정 레루못에 증오가 있다
옥야천리 푸른 강 지나 렬차는 달리는데
이 땅엔 저 철길못 하나에도
끝나지 않는 복수의 시
민족의 원한이 서려 있구나

-시 《레루못에 대한 시》 중에서-

원쑤에 대한 증오와 내 조국에 대한 사랑이 사 무치게 안겨 오는것은 시인의 발견이 독창적이기 때문이다.

영웅들이 못다한 말, 레루못이 말하는 시를 토로함으로써 두 시는 우리의 사랑과 증오가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것인가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여준다.

이러한 사랑과 증오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두고 엮히여 있다.

선군시대 통일의 노래- 언젠가는 비감과 원한에 젖어 들던 조국통일의 시가 오늘은 환희와 격동의 시로 새롭게 울려 나온다.

4월의 봄날
류경의 평양에
화려한 춤판이 펼쳐 졌구나
아리랑가락에 맞추어
10만이 어울려 함께 도는 춤판
...

눈 부신 새 세기우에
강성대국 내 조국이 일어 서 마주 오니
흥이로나 멋이로다
경기장안에서는 10만이 춤을 추고
경기장밖에서는 7천만이 춤을 춘다

-시 《7천만의 무도회》 중에서-

정제된 시형상을 쏘지 못한감은 있으나 작품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춤판을 7천만의 통일무도회로 확대시켜 생각하며 통일열기로 끓어 번지는 이 땅의 환희와 걱정을 새롭게 노래하려는 시인의 의도를 엿볼수 있다.

이밖에도 시 《탄과 꽃》은 탄의 의미를 새롭게 밝혀 낸것으로 하여, 시초 《대흥단 소묘》는 대흥단의 전변을 이룩해 가는 강한 인간들의 생활의 이모저모를 너성다운 필치와 섬세한 느낌으로 보여준것으로 하여 그리고 시 《새날의 붉은기》(리창식 1호)와 시 《평화의 붓》(주경 4호)은

각각 붉은기와 총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하여 시인 나름의 목소리를 들려 주는 작품들이라고 할수있다.

감정조직 이나 어휘선택에서 완벽성을 구현하여 시형상이 잘 짜이고 다듬어 져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후에 이야기하자.

지금보다 중요한것은 시인의 정서적체험을 새로이 하는것이다.

자기자신의 목소리를! 크나 작으나 제 목소리로 노래해야 한다.

시인이 새롭게 개척한 형상의 몫이 없는 작품은 사실 독자들의 기억속에 들어 앓을 자리가 없다.

시 《불 타는 마음》(차승수 2호), 《라남, 그 이름 불러 보면》(박두천 3호), 산문시 《방목길 백오십리》(랑덕모2호)가 그런 작품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작품들에는 시인이 《내것이다》라고 자랑하며 내놓을만한 느낌과 체험이 별로 없다.

우리 인민모두가 일상적으로 느끼며 깨닫고 있는 당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 그리고 령도자의 숭고한 품모와 현지도사적을 말해 주는 덕성사실자료들에 대한 소개정도에 머무른 시들...

시인이 철학적사색을 추구해 간 흔적이 보이지 않는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리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시 《라남, 그 이름 불러 보면》을 통해 말하려고 한다.

시는 그 첫 부문에서 토로한 그대로 《라남 그 이름 새겨 보면 <고난의 행군>의 가장 어려운 시기 자기 수령을 어떻게 옹위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 준 충신의 모습으로 이 심장 불 태》우는데 대하여 노래한다.

어떻게 불 타는가? 라남사람들의 투쟁정신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라남의 봉화를 지면 주신데 대한 시적인 해설의 련속...

그 불길이

오늘은 이 가슴에 타번진다

온 나라에 봉화되어 세차게 타번진다 .

21세기 첫해에 타올랐던 그 불길

수령님탄생 90돛을 맞는 올해의 날과 달을

붉게 물들이며 세차게 타번진다

이쯤되면 더 이상 읊어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오늘도 불 타오른다는 정서적주장만으로, 올해 공동사설에서 나온 4대제일주의에 대한 표현들에 의탁한 시형상만으로는 독자들을 감동시키기 어렵다.

우리는 라남의 봉화가 이렇게 저렇게 불 타오른다고 한 시들을 여러편 읽고 있다. 이 시에서는 지난 시기 라남의 봉화를 노래한 다른 시들의

체험세계를 조금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에 《수령님탄생 90돛을 맞는 올해》라는 표현과 4대제일주의에 대한 표현만 없으면 도저히 올해에 나온 시라고 말할수도 없을것이다.

라남의 봉화가 타오른다고하여 저절로 시인의 가슴도 불 타고 시의 정서도 불 타오르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될것이다.

무엇인가 의의 있는 소재만 잡아 쥐고 적당히 시술을 조절하여 시형상을 꾸며 놓기만 하면 시가된다고 생각하는것이 있다면 그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창작태도를 결정적으로 버려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새로운것을 걸어 쥐지 못하였을 때 시인은 붓을 들지 말아야 한다.

선군시대가, 선군시대의 독자들이 새롭고 참신한 시를 기다리고 있는것만큼 진정으로 작품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붓을 무겁게 들고 자기의 고유한 정서적체험세계를 형상하는데로 끊임없이 지향해나가야 한다. 다문 한두마디, 한두토막으로라도 독창적인 느낌과 체험을 보여 주자.

진실해야 한다

선군시문학의 구보전진은 진실성에 의해 확고히 담보되어야 한다. 선군시문학의 구보전진은 결코 시대와 생활을 떠난 그 어떤 미지의 공간으로가 아니라 시대와 생활의 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진실속으로 더 깊이 더 빨리 들어 가는것으로 이루어 진다고 볼수 있다.

추상적이고 허황한 시형상, 인민대중의 사상감정을 떠난 사말사적이고 개인적인 상념의 세계에 머무른 시형상은 구보전진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

우리 시인들은 응당 선군시대의 녀과 숨결, 기상과 기백이 그대로 느껴 지도록, 선군시대 인간들의 구체적이고 진실한 생활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시형상을 엮어야 한다.

이것을 지각한 시인들의 사색과 탐구의 흔적을 시 《태양의 생애는 영원합니다》(김송남 4호), 《주체1년~주체91년...》(김석주 4호), 《이 땅이 나를 안다》(채동규 3호), 《엄마의 속삭임》(리명옥 3호), 《나는 고무신 임자를 찾는다》(리명백 6호), 《조국애란 의미를 두고》(전일수 5호) 등의 작품들을 통하여 뚜렷이 찾아 볼수 있다.

날과 달이 흐르는 절기 따라

하늘도 변하고

세월이 흘러 흐르면

땅도 변하고 바다도 변하고

허나 오직 하나

세상에 번치 않는 빛발이 있어
우러러 태양으로 받드는
은혜로운 그 빛발
인민은 제 목숨같이 안고 사나니

아, 위대한 **김일성** 동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그 생은
어제를 밝히고
오늘과 래일을 다 밝혀 주는

영원한 사랑의 해발

-시 《태양의 생애는 영원합니다》 중에서-

주체1년 봄날에 오시여
주체91년 봄날에 계시다
수령님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신 덕에
인민이 광복을 맞았다
수령님 굽은 길, 험한 길 걸으신 덕에
인민이 좋은 길만 걸었다
수령님 휴식날 명절날도 일하신 덕에
인민이 기쁜 날만 지냈다
수령님 세월의 눈비 다 맞으신 덕에
인민이 따뜻한 집에서 살았다...
내가 편안하면 인민이 고생하게 되고
내가 고생하면 인민이 행복하게 된다고
《나》를 고생시키신
《나》를 바치신 만고풍상의 한평생

-시 《주체1년~주체91년...》 중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맞이한 태양조국의 하늘가에 터져 오른 영원한 태양칭송의 목소리- 이는 단순히 기념일의 계기에 맞추어 씌여진 시가 아니라 90년의 장구한 세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쌓이고 쌓여 온 수령님에 대한 흠모와 칭송의 감정을 대변하여 진정을 고백한 시형상이 아니겠는가.

이 시형상들에서는 영원한 태양의 생애를 두고 느끼는 우리 인민의 전 인민적인 체험의 진수를 파헤쳐 노래하려는 세찬 모태감과 거대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정서적으로 소화하고 드러낼 줄 아는 로숙한 시인들의 숨씨가 느껴 진다.

진실한 정서적형상은 시대와 생활에 대한 비상이 양양되고 심오한 정서적체험의 산물이다. 시대와 생활의 기슭에 서서 시대와 생활의 겉모습과 현상만을 관망하는것이 아니라 그 세찬 격류속에 뛰어들어 밑바닥에까지 들어 가 보는것이 바로 진실한 시형상을 낳게 하는 깊은 정서적체험이다.

타다 남은 저 고무신을 불덩이로 안고

그처럼 순결한 인생을 무참히 불 태운
살인귀 미제를 단죄하는 심장들에 있다

그렇다 신천의 고무신임자는
나다 너다
복수자- 우리 인민모두이다!

-시 《나는 고무신임자를 찾는다》 중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불 태워 죽인 미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신천박물관 진렬대의 타다 남은 고무신앞에서 그 고무신의 임자를 찾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

그 고무신의 임자는 지금 없다. 그러나 서정적주인공의 가슴에서 사뭇치는 철천지원썩 미제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감정은 그 고무신의 임자를 바로 자기자신, 우리 인민모두에게서 찾게 하였다. 타다 남은 고무신이 하는 말을 감득하고 그 말을 자기 목소리로 토해 내는 이런 체험이 바로 깊은 정서적체험이고 진실한 느낌이다.

시 《이 땅이 나를 안다》와 《엄마의 속삭임》, 《조국애란 의미를 두고》에서도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당과 수령을 받들어 온 농민과 아기를 안고 행복에 잠긴 녀인, 이역살이에서 돌아 와 조국의 귀중함을 사무치게 느끼는 한 인간의 체험들에 각각 의탁하는 그 체험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의의있는 정서적주장들을 시형상이 떠올리고 있다.

이 시들은 부분적으로 정제되지 못하고 라렬된 느낌이 들지만 전체적으로는 생활속에 몸을 꼭 잠근 시인의 진실한 체험이 비껴 있어 좋다.

이밖에도 시초 《내 고향도시》(전찬기 1호), 시 《새날의 붉은기》(리창식 1호), 《고향집의 배낭》(홍문수 2호)에서 생활을 관조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음향과 향기를 그대로 드러내 놓으려는 시인들의 좋은 시도를 찾아 볼수 있다.

시대와 생활의 진실을 떠나서 감동 깊은 시형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청 높은 목소리라도 진실성이 부족하면 공허하게 들리는 법이다.

진실성의 견지에서 시 《노래와 함께》(김선지 5호), 《내 삶의 별》(김철력 5호), 《땅과 총》(김형준 3호) 등의 작품들의 시형상은 한결음 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진실한 체험에는 군말이 없고 설명이 없다. 무엇인가 설명하려고 할 때 감정정서적형상은 사라지며 시형상에 진실성이 깃들 자리가 없어진다.

시 《내 삶의 별》과 《노래와 함께》는 의의있는 소재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설명과 라렬로 시를 엮어 나가고 있기때문에 시인의 뜨거운 모태감보다도 랭정한 론리적사색을 더 많이 느끼게 한다.

이처럼 논리적으로 조작된 시형상을 내놓게 되는 것은 구체적인 생활체험에 토대하여 심장으로 느낀것을 읊으려 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시를 손쉽게 《고안》해 내는 창작자세와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시 《땅과 총》을 보면 이것을 알수 있다.

시에서는 《땅과 총은 하나의 운명》이라는 정서적주장을 형상으로 펼치고 있다.

그 주장자체는 수긍할수 있지만 시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호도 내 땅우에 내 전호요 전호에 없는 총도 내 땅의 쇠돌로 부어냈》기 때문에 땅과 총이 하나의 운명으로 된다면 아리송하다.

시에서 말하는 《내 땅》이란 과연 어떤 땅인가?

오! 총에게 물어 보라

그대 지켜 귀중한것 또한 무엇인가?!

그러면 《땅!》 하고 총성으로 대답하리

-우리 겨레의 삶의 터전인

나의 땅 나의 강토다!...

이렇듯 매우 애매한 그 어떤 범민족적인 개념으로서 땅에 대한 시형상을 내놓은것은 시인이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체험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대로 터놓으려 하지 못하고 《땅!》하는 총성에서 뭔가 《착상》을 발견하고 시를 쓰려고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된다.

착상과 발견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시대와 인간, 생활의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현하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것이다.

진실한 시형상만이 선군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될만한 가치를 가진다.

우리의 모든 시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가 빛나게 펼쳐 지는 시대와 현실, 인간생활을 새롭고 참신하면서도 진실한 정서적형상으로 노래함으로써 선군시문학의 구보전진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추억에 남는 시

생각

리 찬

층계를 내려, 유도도를 거닐어
로타리를 지나 일터로 가는
아침마다 되풀이하는 이 평범한 길이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해 하는가

굳게 손 잡아 흔들고 산지사방
활개치며 흠어 지는 이웃들이며
끼리끼리 깔깔거리며 노래 부르며
흡사 명절날처럼 몰려 가는 어린것들,

그 어깨너머 환히 트인
드넓은 대통로로, 푸른 하늘로
온 도시와 마을들의 벽찬 소식 밀려 오고
그 어느 먼 나라, 친선의 새 사절이라도 날아들듯
하이얀 포장, 휘늘어 진 수양 따라
춤 추며 흐르는 대동강마냥
내 심장깊이 물결쳐 힘 있게 앞으로 이끄는
이 정열, 이 기쁨

없어 졌노라, 밤안개처럼 말가니,

크고 작은 생활의 걱정근심은
갈수록 두터운 사랑으로, 도움으로 눈시울 뜨겁게 하는
이 시대에 그 무슨 탄 피로인들 있을것이라

굴욕과 기한의 지나긴 그 밤,
재더미우의 스산한 그 새벽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그 술한 낡은것까지
내 어린것들께 옛이야기로 들려 주어야 하는

그럴 때마다 더욱 사무쳐
백번 천번 절 하고픈 당이어 수령이시여!
이 화창한 날에도 그대의 뜻 다 못 받드는
받들고 더 빨리, 더 잘 못 나가는 안타까움

날마다 되풀이하는 평범한 길
변변히 잠못 잔 이러한 아침에도
내 사업에 대하여, 작품에 대하여
생각에 생각 거듭케 하노라

-1960-

시인 량덕모는 우리 독자들속에 잘 알려 저 있는 시인이다. 방목공출신의 시인으로서 그는 최근년간에도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여 주는 작품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편집부에서 조직한 함경남도 현지특집창작전투때 뜻밖에 시인은 불치의 병으로 하여 왕성한 열정으로 달리던 붓대를 손에 그러컨채 그만 우리 곁을 떠났다. 시인은 작품을 끝맺지 못했으나 편집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잘 알고 있다.

아래에 그가 남긴 작품을 소개한다.

편집부

산문시

우리 사랑 푸르러 갑니다

량덕모

처녀시절 사랑에 열렸을 적엔 그닥 흠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랑신부 키가 바뀌 졌으면 좋겠다면 결혼식날도 그저 웃고만 말았습니다. 어언 세월 아이들을 낳고서도 풀판을 떠날줄 모르는 그 성미 고쳐워선지 저 멀리 염소떼 모는 남편의 키 작은 모습 점점 눈에 걸리며 마음아릴때

산 높고 골 깊은 심산오지 품들여 가꾼 방목지를 돌아 보시며 방목공 저의 집에 들리신 장군님, 산중에서 수고한다고 사진을 찍어 주실줄이야... 키는 작아도 이런 동무가 애국자라고사진에 크게 보이게 그이께서 저의 남편 손을 잡아 경사진땅

높은 자리에 세워 주시는 순간
금시 활활 이는 불뭉치가 날아 든듯 저의 심장
처녀시절처럼 불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과 사진을 찍으신 장군님, 남편의 곁에 늘 계시는듯 싶어 신명도 넘는 분장 끝끝한 방목공들속에서 키는 작아도 저의 남편이 제일 돋보입니다. 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에 서 인간의 아름다움과 훌륭함을 보시는 그이, 그 고결하신 뜻으로 푸르러 가는 풀판에서 우리 사랑도 시들줄 모르고 푸르러 갑니다!

가사

우리는 열일곱살

강성국

우리는 열일곱살 꿈 많은 나이
교정을 떠나면서 생각도 많네
행복의 열일곱해 돌아다 보니
고마운 당의 사랑 가슴 뜨겁네

우리는 열일곱살 꿈 많은 나이
동무들 손을 잡고 약속하였지
조국보위 초소는 서로 달라도
가는 길 위훈으로 수 놓아 가자

우리는 열일곱살 꿈 많은 나이
조국에 첫 사랑을 바치는 나이
영웅의 열여덟이 우리를 불러
조국을 빛내여 갈 맹세 뜨겁네

아 우리는 열일곱살
보답의 첫 나이를 값 있게 살자

새로운 형상세계의 탐구

최광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도식은 문화과 독자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다. 작가는 온갖 도식에서 벗어나 저마다 새로운것을 들고나와야 한다.》

상반년에 창작된 작품들을 보면 새로운 형상세계를 탐구한 소설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작품들도 있다. 새로운 형상세계를 탐구한 소설들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흥미와 깊은 감동을 주며 독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진다면 지난 시기 많이 보아 온 작품과 같은 소설들은 흥미가 덜하고 어느 작품의 복사판과 같은 느낌을 주며 책을 덮으면 얼마 안 있어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고 만다. 바로 이로부터 새로운 형상세계를 대담하게 착상하고 형상하기 위한 탐구가 중요하다.

새로운것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

올해 상반년도에는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단편소설들이 여러편 창작되였다. 이 작품들로는 단편소설 《나의 아리랑》(김청수, 4호), 《한 여름날의 대화》(김준학, 2호), 《인간의 노래》(박윤, 6호)이다. 그중에서도 독자들에게 《초면》의 인상을 강하게 남긴 단편소설 《한 여름날의 대화》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남조선의 언론인들을 만나주시고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길로 손 잡아 이끌어 주신 실재한 력사적사실을 눈으로 직접보는듯이 생동하게 펼쳐놓았다.

몇해전에 수령님의 위인적품모를 형상한 단편소설 《매혹》을 특색 있게 창작한 작가는 이번에도 실재한 력사적사실의 생동한 재현에만 머물지 않고 형상세계를 새롭게 탐구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뜨거운 민족애를 더욱 감명 깊게 부각하고 주제사상을 더욱 깊이 있게 밝힌것이다. 그 새로운 형상세계란 말의 본태의 이 땅에 사는 언론인의 진정한 사명에 대한 뜻 깊은 해석이며 그를 둘러 싸고 펼쳐 지는 특색 있는 형상이다. 작가는 등장인물들이 말을 수단으로 하여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언론인들이라는 특성으로부터 여기에 형상의 초점을 맞추고 기술했다.

작품에 등장하는 남조선의 언론인들은 저들의 활동수단인 말을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 내어 아프게 찌르며 그를 깎아 내리고 자기의 인기를

올리는 예리한 무기로 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남조선에서 《프로급으로 련마》한 날카롭고 야멸찬 말솜씨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선전에서 《발휘》하면서 온갖 야비한 말로 우리를 헐뜯는다. 이러한 그들의 《말재간》을 놓고 종교적 박애를 주장하는 카톨릭교계 방송공사 사장인 《나》는 《인간의 혀는 주먹이나 칼, 원자탄보다도 더 무섭게 인간들의 영혼을 무참히 파괴하고 불사르고 말살하는 문명시대의 최대의 악의 덩어리로 되고있다.》하고 개탄한다. 지어 그는 사람이 말할수 있게 해준 《하느님》까지 원망한다.

이러한 그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말의 본태와 민족분열의 비극을 안고 사는 이 땅의 언론인들의 사명에 대하여 일깨워 주신다. 그이께서는 말의 본태의 의미는 사랑과 화목, 단합이라고 하시면서 말이 싸우기 위에 생겨 난것이라면 인간을 서로 물고 뜯으며 사멸되화되어 가는 가련한 존재로 되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언론이 시대의 나팔수이고 량심의 거울이라는 극히 일반적인 견지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리용하는 말의 본태를 놓고 또 현 시기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비극을 놓고 봐도 응당 이 땅의 참된 언론인들은 대결이 아니라 민족의 단합을,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화해를 위해 투쟁함으로써 민족의 통일과 번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이 말씀들 받아 안은 남조선언론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뜨거운 인간애, 민족애 앞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지난 날 야비한 말로 우리 공화국을 헐뜯으면서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장애를 조성해 온 저들의 행동을 심각하게 반성한다. 종교적박애를 주장하던 《나》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하느님보다 더 큰 사랑을 지니신분, 자신들에게 사랑의 말을 가르쳐 주신 위대한 분으로 우러르면서 그이를 따를 때 통일이 될수 있다고 심장의 목소리로 웨친다. 그들은 앞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대로 말을 민족사랑의 무기로 틀어 쥐고 북과 남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투쟁할 새로운 결심을 다진다.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작가는 뜨거운 사랑이 흘러 넘치는 말의 본태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언론인들을 통일위업수행에로 부르는 언론인의 사명에 대한 뜻 깊은 해명을 통하여 보통사람으로서 감히 견줄수 없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

거운 인간애와 민족애, 온 민족을 통일의 한길로 이끌어 주시는 민족의 령수, 통일의 구성으로서의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깊이 있게 부각하였다.

또한 남조선의 언론인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민족애에 감동되고 진리와 사랑이 담겨진 그이의 말씀에 심장으로 공감하게 되는 과정을 펼쳐 보임으로써 그들이 통일의 길에 나서게 되는 모습을 실감있게 보여 주고 곧 그를 통하여 장군님을 따르는 길이 통일의 길이라는 주체사상이 더욱 힘 있게 밝혀 지도록 하였다. 또한 작가는 시점인물 《나》의 감정선을 기본감정선으로 틀어 쥐고 처음에는 말에 대한 모순된 심리로부터 오는 울적하고 어두운 감정을 조성하였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말에 대한 철학적해명을 주시는 부분부터는 매혹과 환희의 감정으로 뒤바꾸어 놓고 점차 승화시켰다. 이것은 작품의 감정선을 위인에게 끌리고 나아가서 열화같은 승배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매혹과 신뢰의 과정으로 흐르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부각하고 작품의 주체사상을 더욱 힘 있게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있다. 단편소설 《한 여름날의 대화》는 이렇게 새로운 형상세계를 펼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훌륭히 부각하고 있다.

상반년도에는 수령형상소설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단편소설, 실화문학이 많이 창작되었다.

단편소설 《설천봉풍경》(전인광, 2호)은 김광철영웅의 넋이 깃든 설천봉에서 뜨거운 동지애를 발휘하며 군사복무의 나날을 빛내어 나가는 인민군전사들의 모습을 형상한 소설이다. 작품은 김광철영웅의 송고한 넋을 이어 군인들 모두가 동지를 위해 모든것을 바쳐 가는 뜨겁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 특히 중환자후송을 위해 온 부대가 펼쳐 나 50리구간에 키 넘게 내린 눈을 쳐내고 길을 내는 모습을 통하여, 애 어린 통신병이 눈보라를 뚫고 통신선을 군의소에 기어이 이어 수술이 성과적으로 보장되게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에서 꽃피나는 아름다운 동지애의 미풍을 감명 깊게 보여주었다. 하여 독자들은 작품을 통해 새로운 감흥을 받아 안게 된다.

그것은 작가가 새로운 형상세계를 탐구한데 있다. 그것은 첫째로 환경묘사를 중요한 수단으로 하여 인물성격을 돈구고 극흐름을 긴장하게 축성한것이며 둘째로 환자후송이야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동지애가 꽃피나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전반적인 형상과 조화롭게 밀착시켜 인민군전사들속에서 꽃 피나는 동지애의 모습을 보다 폭 넓게 보여 준것이다.

작품에서는 설천봉의 자연환경에 대한 묘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용적이 작은 소설에 무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그리고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펼쳐놓았다. 그리고 그속에서 동지들을 위해 바치는 군관들과 병사들의 사랑을 형상하였다. 이것은 오히려 좋은 효과를 가져 왔다. 어

려운 조건속에서 그것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조건속에서 발휘되는 동지애인것으로 하여 전사들사이에 흐르는 동지적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인상 깊게 안겨 오는것이다.

소설에서는 악조건에 대한 형상을 잘하고 그속에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다보니 시종일관하게 흐름에 긴장이 조성되고 극적환경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야기가 탄력 있게 흐르고 있다.

작품에서는 마지막부분에 가서 펼쳐 지는 중환자후송과 애 어린 통신병의 희생정신의 발현을 내놓고서는 일관된 하나의 사건선을 찾아 볼수 없다. 작품은 동지애가 꽃 피나는 초소생활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로 지면을 채우고 있다. 후방물자수송이 긴급한 때에 서로 순서를 양보하는 군인들, 제손으로 가꾼 남새를 이웃부대의 동지들과 함께 나누는 군인들, 어린 전사들을 만형의 심정으로 돌보아 주는 사관들, 고지의 전사들이 격정되어 한달에 한번씩밖에 차례지지 않는 휴식일을 집에서가 아니라 초소에서 병사들과 함께 지내는 군관들, 그밖에 간단히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그전에 제동 풀린 후방차를 몸으로 막았다는 한 병사의 이야기, 10년전에도 뜻밖에 발생한 중환자를 위하여 룽해군이 동원되었던 이야기 등이 펼쳐 진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동지애라는 하나의 큰 선에 조화롭게 묶어 세우고 거의 마감에 와서 중환자후송을 위한 전투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여 설천봉지구 군인들속에서 생겨 난 동지사랑의 이야기들을 산만한 감이 없이 짜인 구성속에서 펼쳐놓았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안에서 꽃 피나고 있는 동지애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폭 넓게 보여 주었다.

작가가 탐구한 이러한 형상적특성으로 하여 이 작품은 새롭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새로운 감흥을 안겨 주고 있으며 인민이 포근한 자기의 보금자리에서 행복을 누리려 가고 있을 때 바람불고 눈이 오는 험한 산정의 초소에서 뜨거운 동지애로 시련을 이겨 나가며 조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모습이 더더욱 가슴 뜨겁게, 인상 깊게 안겨오게 하고 있다.

단편소설 《까툴골사람》(안동춘, 4호)은 비전향장기수에 대하여 쓴 소설이다. 이 작품은 비전향장기수가 지닌 불변의 신념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 하는것을 밝히는데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고 있다.

단편소설 《까툴골사람》은 고아였던 엄한규를 뜨거운 인정으로 보살펴 준 고마운 까툴골마을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보여 주고 있다. 작품에서는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고 텅텅하고 좀 드세면서도 꾸밈 새가 없는 산골마을사람들의 성격적특징을 부각하면서 그들의 인정에 받들려, 마을 세포당원들의 손에 이끌려 엄한규가 성장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펼치였다.

후에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다가 철창속엔 갇혀 엄한규는 까툴골사람들의 인정을 가슴속깊이 간

직하고 살며 눈을 감는 마지막순간에는 비록 고향은 아니지만 그 까툼꼴을 자기 고향이라고 부른다.

작가가 새로운 형상세계를 탐구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있어 이 작품은 자기나름의 생리를 가지고 주제사상을 밝혀 내는 개성이 뚜렷한 작품으로 되고 있다.

단편소설 《공로메달》(김리돈, 6호)도 특색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남이 받은 공로메달을 아들이 받은것으로 알고 그리도 기뻐 하는 어머니, 그앞에 부끄러워 차마 사실을 터놓지 못하고 속만태우는 아들, 어머니의 그 마음앞에 부끄럽게 나서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주인공, 위훈을 세우고 받은 공로메달을 가슴에 달고 어머니앞에 떳떳하게 나서는 아들, 작품이 말하려는 사상은 소박하지만 공로메달과 관련된 특색 있는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작품의 이야기는 자못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조국앞에 해놓은 일이 있는 사람만이 부모형제들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다고.

단편소설 《따뜻한 꿈》(최련, 1호)과 단편실화소설 《거리의 미소》(정영중, 6호)도 인물성격형상에서 새로운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뜻한 꿈》에서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꿈은 허황한 공상이 아니라 래일에 대한 믿음이고 그를 위해 바치는 사람이고 헌신이라는 열렬한 주장을 터치고 있다. 그리고 꿈을 피와 땀이 있고 맥박이있는 생명체로 가슴에 품어 안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청년연구사들의 투쟁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조국의 과학기술을 최첨단수준에 올려세울 높고 아름다운 꿈을 간직하고 살며 투쟁하는 우리 시대 청년과학자들의 모습을 보다 진실하게 보여 주는데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좀 아쉬운것이 있다면 새로운 주장을 내세운데 맞게 과학자형상에서도 새로운것을 들고 나왔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라는것이다.

단편실화소설 《거리와 미소》는 원가가 적게 들고 수명이 오랜 외장재를 연구개발하여 나라에 큰 리익을 주고 평양의 거리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는데 크게 기여한 한 숨은 애국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 김철수의 성격을 고구려벽화에 새겨져 있는 세 녀인의 모습과 결부시켜 특색 있게 형상하였다. 흘러 간 력사속에 묻혀 버리고 만 고구려단청의 비밀, 그 비밀을 밝혀 내어 내 조국의 거리를 더욱 아름답게 할 소중한 꿈을 안고 있는 주인공, 그래서 그는 30년세월 불가사의한 꿈에 시달린다. 벽화에 녀인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새긴 그 투명하고 은근한 비취색에 매혹되어 손을 뻗었으나 부서져 버리고 마는 꿈을 계속 꾸는것이다. 그러나 간난신고끝에 연구에서 성공했을 때 그는 시름이 풀린듯한 기분속에 꿈을 꾸면서 매력적인 미소를 뿌리는 고구려 세 녀인의 은근한 비취색치마폭을 처음으로 황홀하게 어루만진다. 이런 형상을 통해 수십

년동안 고심어린 탐구를 해온 주인공의 모습이 인상 깊게 부각되고있으며 실무적인 발명가로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지향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주인공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하여 이 소설은 한 애국자에 대한 소개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시대 아름다운 인간들에 대한 노래로 되고 있다.

지난기간 재일본조선인들의 생활을 소재로 하여 좋은 작품들을 많이 써낸 소설가 강귀미는 이번에 단편소설 《채송화》(5호)를 발표하였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역시 재일동포들의 일본에서의 생활과 귀국후의 생활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면서 우리 민족에게 끼친 일본반동들의 력사적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사회주의조국의 은혜로움과 귀중함을 밝히고 있다. 자칫하면 이전에 창작한 작품들과 비슷해 질수 있는 조건에서 작가는 일제의 민족말살책동속에서도 조선사람의 넋을 지킨 재일동포1세의 모습을 생활력이 강한 채송화에 비유하여 형상하였다. 하여 작품의 감화력을 보장하면서 류사성을 극복하였다.

상반년 단편소설들에서 찾아 볼수 있는 새로운 탐구와 형상은 실화문학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실화문학도 어디까지나 문학인것만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 형상방법이 작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탐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실화문학 《봄의 고향》(리수복, 4호)과 《생은 아름답다》(최영학, 5호)는 구성에 있어서나 인물성격묘사에 있어서나 언어표현 등에 있어서 작가적탐구와 노력이 강하게 느껴 지는 작품들이다. 이 실화문학들은 마치 훌륭한 소설과도 같은 모습을 갖추고, 또 그러한 감화력을 안고 사람들에게 읽히우고 있다.

우에서 언급한 작품들이 결함이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형상세계를 펼치려는 작가의 탐구와 노력이 느껴 지며 그것으로 하여 선군시대 우리 문학발전을 작게나마 한걸음 한걸음 추동하는 의의 있는 작품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아쉬움과 불만

올해 상반년에 창작된 작품들가운데는 새로운 형상세계에 대한 탐구가 미약하게 엿보이기는 하나 그것마저도 응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쉬움을 자아내는 작품, 그러한 탐구적시도마저도 보이지 않아 불만을 자아내는 작품들도 있다.

단편소설 《고운 별》(한원희, 3호)은 한 교양원 처녀가 토지정리전투장에서 만난 한 청년을 열렬히 사랑하면서 새로운 토지정리전투장으로 옮겨가는 그를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아쉬운것은 한 처녀의 순결하고도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은 잘 보여 주었으나 작가가 말하려는 시대적문제가 뚜렷하지 않은것이다. 사랑 그자체를 통하여 당을 받드는 길에서 꽃 피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그에 초점을 맞추고 형상을

집중시켜 그것이 스스로 안겨 오도록 해야 했을 것이었다. 그런데 사랑이야기를 펼쳐놓는데 머무르면서 형상의 초점작업을 제대로 하지않다 보니 독자들이 작품을 힘들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그 사랑의 이야기 자체도 현상라벨처럼 보이면서 빛을 잃고 있다.

단편소설 《군복 입은 사람들》(조인영, 3호)은 영예군인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기로 결심한 인민군 간호장과 그의 결심을 지지하는 아버지-인민군 지휘관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으로 펼치었다. 그리고 린접부대에 피해가 가지 않게 자체의 힘으로 물주머니를 뚫고 나가는 구분대의 행동모습을 병렬로 보여 주면서 동지를 위한 헌신은 우리 군대의 보통 의리이고 사랑이라고 주장하였다. 형상적의도는 이해되나 불만이 크다. 군복 입은 사람들을 그리면서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하려면 그에 맞는 형상이 탐구되어야 한다. 군대맛이 나는 인물의 성격과 생활, 군인들속에서 발휘되는 사랑과 헌신의 아름다운 세계, 그를 통해 작품의 사상적내용이 안겨 오도록 해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작품에서는 군복 입은 사람들에게서 찾아 볼수 있는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를 펼친것이 아니라 영예군인의 길동무가 되려는 딸의 결심을 아버지가 승인하는 문제, 린접구분대에 피해가 가지 않게 구분대의 힘으로 물주머니를 터개하는 문제 등 매우 평범하고 이제는 너무 일반적인것으로 된 문제를 설정해 놓

고 그 문제들이 그리 힘들지 않게 해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사상적의도를 《달성》하였다. 그러다보니 작품의 사상적의도만 번드름하게 로출되고 작품자체는 사람들에게 감흥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문제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도식적인 경향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리적이고 충월에 힘들게 내려진 결심, 문제해결방법은 이것밖에 없단 말인가? 작품은 이러한 해결방법으로 하여 군인들을 형상한 소설다운 맛이 없고 지루하고 답답하기까지 하다. 새로운것이 없이 낡은것으로서는 결코 독자들에게 큰 감흥을 줄수 없는것이다.

이밖에도 여러편의 작품들에서 부족점을 나타내고 있으나 지면상관계로 피하려고 한다.

이상에서 주체91년 상반기에 창작된 단편소설들과 실화문학들을 대략 고찰해 보았다. 평가에서 주관적이며 일면적인것도 있을수 있을것이다.

시대가 발전하는데 맞게 사상적대를 든든히 세우고 시대정신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도 새로운 형상세계에 대한 끊임 없는 탐구를 기울어야 하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새것에 대한 탐구가 미약한것은 우리 작가들의 시야가 넓지 못한것과 실력이 따라 서지 못난데서 찾아야 할것이다. 성과에서는 경험을 얻고 결합에서는 교훈을 찾으며 오늘의 강성대국건설투쟁을 힘 있게 고무하는 사상적대가 굳건하고 예술적감흥이 큰 소설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자. 이것이 하고 싶은 말이다.

상식

컴퓨터중앙처리장치의 발전동향

컴퓨터의 발전은 중앙처리장치(극소형처리장치)의 발전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주체70(1981)년에 16bit 극소형컴퓨터가 세상에 나온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 동작주파수는 1,000이상으로 높아 졌으며1980년대에 대형컴퓨터의 성능을 훨씬 통과하였다.

지금까지 컴퓨터의 성능발전은 동작주파수에 의하여 평가하여왔다. 주체89(2000)년 중엽에 1GHZ 의 처리소자들이 개발되었다. 현재의 발전속도로 나가면 처리소자의 동작주파수는 주체92(2003)년에 3GHZ 에 이를것으로 보고 있다.

컴퓨터의 성능제고에서 중요

한 인자로 되는 완충기억기의 기억용량과 체계모선주파수도 계속 커지고 있다. 2차완충기억기의 용량은 현재 5]2kbyte 에 이르렀으며 멀지 않아 2~4Mbyte 의용량을 가지게 될것이다. 주체92(2003)년경이면 8Mbyt 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체계모선의 주파수는 지금까지의 100MHz 로 부터200~266MHz 로 넘어가고 지어 400MHZ 에 이를것이라고한다.

21세기에 들어 서면서 처리소자는 새로운 반도체기술과 설계구상에 기초하여 보다 성능이 높아 지고 있다.

처리소자의 동작주파수를 높이는 빠른 길은 집적회로의 전

폭을 보다 가늘게 하고 회로와 소자사이의 배선거리를 짧게 하는것이다.

제조기술만으로 처리소자와 동작주파수를 높이는데서는 일련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동작주파수와 처리소자의 설계구상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 서면서 1GHZ 이상의 처리소자를 제작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설계구상을 연구도입 함으로써 처리소자의 동작주파수를 계속 높여 극소형컴퓨터의 성능을 개선하고 믿음성과 안정성을 높이는것이 중요한 개발방향의 하나로 되고 있다.

스승에 대한 회상

럼영

(전 호에서 계속)

교수 림학수

우리 나라에 외국어교육은 조국해방전쟁전까지만 해도 로어교육에만 치중되어 있었다. 해방직후 교육부문에 들어 왔었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고급중학교 초고급반에서 외국어과목으로 로어만 배워 주게 하고 지어는 로어대학까지 따로 내오면서 로어교육만 내려 먹였던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와 15개 추종국가연합세력의 침략을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였던 주체40(1951)년에 벌써 우리가 승리한 배일을 내다보시면서 전후 우리 나라 대외활동의 폭을 전 세계적범위로 넓히기 위하여 영어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영어는 이미 자본주의세계에서 공용어나 다름없이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 되고 있었기때문에 영어만 알면 이전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국경을 넘어 어디 가든지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평안북도 정주이 자리 잡고 있던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에는 영어강좌가 새롭게 꾸려 졌고 남조선에서 갓 들어 온 림학수가 초대강좌장으로 임명되었던것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 나라 영어교육은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에 의하여 이미 전승을 2년 앞둔 주체40(1951)년에 정주와 구성, 백송리에서 그 토대가 마련되었다.

림학수강좌장을 비롯한 오랜 지식인들에게서 영어를 배운 전쟁로병대학생들이 평양외국어유자녀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그들에게서 배운 내포대의 새 세대교원들이 외국어대학과 각 대학교단들에서 영어전문가들을 키워 냈다.

한편 이미 교편을 잡는지 오래 된 로어교원들에게 영어강습을 주어 영어교원으로 전환시키는 조치가 취해 졌고 점차 중학교와 대학들에서 영어를 배워 주는 교육체계가 확립되었다. 후에는 방송과 텔레비전으로 영어를 배워 주는 조치도 취해 졌다.

대동장기슭 청암동골안에 자리 잡은 평양외국어 유자녀학원의 그 단층교실에서 림학수로부터 우리수령님께 충성 다하는 《영어명수가 되라》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안았던 10명의 학원 영어과 제1기 졸업생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어엿하게 자라나 수많은 후비들을 키워냈고 또 그 후대들이 키워 낸 영어전문가들이 지금 영어교육과 대외사업부문에서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는것을 볼 때마다 나는 교수 림학수의 숨은 공로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내가 주체70(1981)년에 국제회의에 참가하려 어느 나라에 갔을 때였다.

그 나라 주재 우리 대사관의 대사를 비롯하여 일부 서기관들이 평양외국어대학 영어과 출신들이어서 나는 그들과 마주 앉아 대학시절을 회고한적이 있다. 의례히 림학수강좌장에 대한 말이 화제에 올랐다.

《그 선생이야 진짜 교육자지. 난 아직도 그 선생앞에서 땀을 빼던 일이 잊혀 지지 않네.》 하면서 한사람이 들려 준 일화가 있다.

그가 대학때 한번은 《영어강독》 학기말시험에서 3점을 받았다. 원래 성격이 급한 그는 성적중을 가지고 림학수강좌장을 찾아가 자기의 성적이 왜 3점밖에 안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림학수는 《그래? 그럼 올려 주지 뭐. 몇점 주면 좋겠어? 동무가 달래는대루 줘. 4점? 5점? 어서 말해.》 너무나 뜻밖에 유하게 대하면서 몇점을 달라는가고 묻는 강좌장에게 머리 큰 주체에 대답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던 그였다.

학생이 머리만 굴으면서 대답을 못하자 림학수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량심이 있어야 돼. 배워 주는 사람도 량심적으로 배워 주고 배우는 사람도 량심적으로 배워야 하는거야. 동무의 영어가 지금 3점수준인데 내가 4점이나 5점을 주면 나는 당앞에 거짓말을 하는거구 동무도 4점, 5점짜리 행세를 하면서 당앞에 거짓말을 할거란 말야. 나는 동무한테 3점을 주면서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한걸 반성하구 5점생으로 만들기 위해 애 쓰게 되는거구 동무는 공부를 더 잘할려구 피 타는 노력을 할거란 말이야. 오히려 선생한테 내 영어가 아직 3점수준도 못되니 점수를 낮춰주시오 하는 정도가 돼야 량심과 자존심이 있는 참다운 학생이지. 그럴잖어?》

그 일이 있은후부터 그는 교실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정 졸리면 잠시 눈을 붙였는데 새벽 5시 수도물이 나올 때 물소리에 깨여 나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세면장에 걸상 3개를 들여다놓고 수도꼭지들을 다 열어 놓은채 《걸상침대》에서 자곤 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로동을 하다가 입학한 학생이었지만 4학년때부터는 영어실력이 부족 올라 《직통생》들을 앞서서 교원들을 놀래웠었다.

림학수가 그렇게 량심적으로 키워 당앞에 내세운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대사, 참사 등 외교관으로서 위대한 장군님의 대외정책을 관철해 나가고 있다.

학생들에게 영어사전을 만들어 주기 위해 고심하던 림학수의 모습도 잊을수 없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는 영어사전이 없었다. 림학수는 학부당조직의 지도밑에 강좌 교원, 학생들의 지혜와 힘을 발동하여 주체49(1960)년에 일반사무용지에 등사한 《조영사전》을 자체로 만들어 한 학급에 몇개씩 배치해 놓고 교재로 리용하게 하였다.

그때 나는 영어올림말을 강필로 등사원지에 쓰는 작업에 동원되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영어글자를 토박토박 새기는것을 보면서 그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어때? 손끝이 아프지? 등사작업이란 보통 힘든게 아냐. 항일빨찌산들이 <3. 1월간>이랑 혁명적출판물들을 산에서 찍어 낸것도 다 이렇게 강판에다 한자한자 글을 새겨서 등사한거야. 동무 아버지랑 남조선혁명가들두 지하에서 이렇게 뼈라를 찍어서 내불었어.

그런걸 생각하면 교실에 편안히 앉아서 등사작업을 하는거야 그야말로 약파지.

지금은 우리가 등사를 해서 사전을 만들지만 앞으로는 얹구 좋은 종이에다 몇 있게 《영조사전》, 《조영사전》, 작은거, 큰거 다 만들어 주자는거야. 일본놈들의 《콘싸이스》 찹찌먹게 훨씬 월등한걸 만들어 내자는거야. 이게 자력갱생이야. 알겠어?》

그때 그의 눈이 번뜩이던 불 타는 신념의 빛을 나는 아직도 잊을수 없다.

그 자력갱생의 신념을 안고 림학수는 강좌 교원, 학생들과 함께 파철더미에서 인쇄기부분품들을 주어 오고 활자를 구해다가 주체50(1961)년에는 자체로 인쇄실을 꾸렸고 거기서 첫 《영조소사전》을 활자로 찍어서 출판하였다.

그후에는 《영조사전》집필조를 못하고 집필전투를 벌려 끝내 우리 식의 주체적인 《영조사전》을 세상에 내놓았다.

외국문도서관출판사에서는 사전에 림학수강좌장을 비롯한 집필자들의 이름을 내자고 하였으나 림학수는 반대하였다. 그래서 저자의 이름란에는 《평양외국어대학 2중천리마 영어강좌》라는 글이 찍혀있다.

참으로 오늘 학생들과 영어전문가들이 유용하

게 리용하고 있는 《영조사전》, 《영조대사전》, 《조영사전》들의 갈피마다에는 영어교수 림학수의 충성의 열정과 지혜가 깃들어 있다.

교수 림학수의 공적의 하나는 영미문학작가들의 사상적경향성을 주체적립장에서 분석하고 그들을 진보적작가들과 반동적작가들로 명백히 구분해 놓은것이다.

외국어대학에서 외국문학사를 새롭게 학과목으로 선정하고 강의할때 대한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을 때였다.

일부 교원들은 이미 쏘련이나 일본에서 만든 세계문학사를 번역하여 수정가필해서 배워 주면 될것으로 생각했었다. 한것은 영미문학사에 포함될만한 대표적인 작품들을 다 읽어 본 사람들이 없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림학수는 림장이 달랐다.

《일본것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쏘련사람들이 좋게 평가한 작가들이라 해서 다 좋게 볼수는 없다. 우리의 사상적안목에서 보면 나쁘게 평가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이 작가를 평가한 사상관점이 우리와는 다르기때문이다. 남이 만든 옷을 고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입힐 필요가 뭔가 차라리 재단부터 우리 식으로 해서 우리 옷을 만들어 입혀야 한다.》

이것이 림학수의 주장이었다.

그날부터 밤을 밝혀 가면서 그가 쓴 영미문학사원고에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영미문학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영미문학사강의를 통하여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론증하려고 피 타는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어려워 읽을수록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주체67(1978)년 8월 30일에 쓴 영국문학사 머리말에서 이렇게 썼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중앙은 우리 문학이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예술적으로 해답하는 그러한 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되여야만 문학이 진실로 생활과 투쟁의 교과서로 될수 있으며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인민대중의 사상정신적힘과 고상한 품모를 밝힐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응당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여야 한다. 봉건전제주의를 반대하고 금리주의자들의 잔학한 착취와 략탈을 배격하고 자유와 행복을 위한 인민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은 문학의 첫째가는 사명이다.

그러나 력사의 발전법칙을 무시하고 인류의 밝은 미래를 부정하면서 반동통치배들을 대변함으로써 자신도 포함한 인간을 멸시하고 증오한 작가들이 과거에 수다하였으며 오늘도 그들을 추종하는 작가와 문예학자들이 혐오스러운 악취로 사

회를 오염시키면서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

...

그러나 철면피한 부르조아문학작가들은 매 시기의 문학을 서술함에 있어서 반동적인 문예사조를 중심으로 삼았고 왕당파, 귀족주의자, 퇴폐주의자, 인종주의자, 식민주의자들을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서술하였으며 오늘날도 문학사를 서술하는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이를 받아 외우고 있다.

아는바와 같이 예술작품이란 보도기사나 정론, 과학논문과는 다르다.

내려먹이는 문장으로 결론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형상을 통하여 독자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결론을 찾아 낼수 있도록 하는것이 예술작품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문학에서 예술성이라 할때 그것은 선택된 언어와 형식, 표현수법과 묘사능력, 작품의 구성과 독자에게 일으키는 감흥 등을 의미한다. 결국 작품의 외적요소이다. 그리하여 이를 통칭하여 형식이라 할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작가의 솜씨나 기술, 다시 말하여 작가의 개성과 자질에 의하여 그 성과가 좌우된다.

그런데 깊은 사상성과 결합되지 않은 보잘것 없는 내용을 재치 있게 다루었다 하여 그것을 훌륭한 예술작품이라고 할수 있는가? 결코 그럴수 없다. 전진하는 력사와 인민의 지향을 외면한 작가들에게서는 참다운 예술성을 기대할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뽕족한 기술을 부렸다 해도 고작해야 그것은 비전형적인것, 병적인 예술작품밖에 나올것이 없다. 나무밀등은 썩었는데 가지끝에 약간 울긋불긋한 과실이 달렸다고 해서 우리는 그 과실을 싱싱하다고 말할수 없으며 그런 나무들 유용한 나무라고 할수 없는것이다.

비전형적인것, 병적인것을 가지고 예술성을 운운하는것은 가소로운 일이며 완전히 허위이다.

...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기의 진보적인 작가에 의해서만 사상성이 깊고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셰익스피어의 인물차조와 민턴의 장엄미, 스위프트의 풍자와 바이론의 분방한 정열, 셸리의 령롱미묘한 음악성, 디킨즈와 썬더커리의 지적인 유모아와 위력한 사실주의는 영국의 다른 어느 작가도 따르지 못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왕당파와 귀족주의자들, 주교권옹호자들과 퇴폐주의자들, 부르조아지의 대변자들과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에게는 아무런 예술성도 기대할수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의 역할을 중시하는 작가들, 착취자들과 억압자들을 증오하고 인민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쫓기할것을 호소한 작가들만이 우수한 예술가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문학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을 념두

에 두어야 할것이다.

이와 같이 림학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 주신 주체적인 문예사상리론에 기초하여 영미문학사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그는 또한 영미문학사를 집필하는데 있어서 단 순히 작가들과 그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분석평가하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현대제국주의의 침략성과 부패성, 멸망의 필연성을 론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문학사들은 사회발전의 시기별로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소개하거나 대표적작가의 이름을 그대로 장, 절 제목으로 달아 소개하였다.

그러나 림학수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성과 타락상을 폭로한 작품들》, 《자본주의의 멸망을 예견한 골스워디의 가족년대기》, 《자본주의 략탈성을 풍자폭로한 쇼우의 희곡들》, 《영국자본주의의 잔인성과 횡포성을 폭로한 작품들》, 《근로인민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 디킨즈의 사실주의작품들》,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주제로 한 토마스 하디의 잡품들》, 《폭력투쟁을 고취한 셸리의 시작품들》과 같이 장, 절 제목들에서 사상적분석과 평가를 두드러지게 부각시켰다.

영미문학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주체적립장에서 분류하고 장, 절 제목들을 사상교양적의의가 있게 달아서 집필한것은 림학수만이 할수있는 일이었다.

영미문학사도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끝내 우리 식으로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친 림학수의 그 공로는 자못 큰 것이었다.

그는 영미문학작품들을 교재로 선정하는데서도 계급적립장을 철저히 지켰다.

언제인가 상급반용 《영어강독》교과서를 편집할때였다.

나는 당시 쏘련의 영어교과서에 있던 장편소설 《자유의 길》의 한부분을 교과서에 넣자고 제기하였다. 그 소설은 미국로동계급이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지만 결국 차례진것은 더욱 우심해 진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이었다는것, 따라서 진정한 자유의 길은 자본가들과 싸우는 길이라는것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한 작품이었다.

나는 림학수가 이미 주체48(1959)년에 자신이 그 작품을 번역출판한지라 선뜻 동의해 나올줄로 믿었다. 그러나 그는 머리를 가로 저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하워드 파스트가 이걸 쓸 때만 해두 경향이 좋았어. 미국의 진보적작가요, 저명한 평화투사요 뭐요 하면서 국제상까지 받았지.

그런데 50년대 중엽부터는 변질됐어. 그만둬. 자본가들이 어용작가루 굴러 떨어 진 놈의걸 뿜

하러 넣어. 싹 걷어 치워.》

나는 다시 한번 참다운 외국문학번역작가로서, 교육자로서의 그의 높은 사상정신적품모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이미 전후시기부터 잡지 《조선문학》에 영국과 미국의 진보적작가들의 작품평을 많이 발표한 림학수는 문학사에 포함된 작품들의 내용뿐아니라 작가들의 이름의 어원까지 알고 있어서 그의 문학사강의는 매우 흥미있었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외활동을 하는 일군들의 수준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세계문학을 비롯한 일반지식수준이 낮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담화할 때 대방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대답도 못하고 말문이 막혀서 어물어물하게 될수 있다고 명철하게 가르쳐 주시었다.

주체74(1985)년 내가 인디아주재 조선중앙통신사 책임특파원으로서 뉴델리에 파견되어 사업할 때 인디아를 방문한 메히꼬의 한 신문사 사장을 그가 든 호텔에서 만난적이 있다.

아침에 내가 그역 호실 문을 두드리니 그는 한창 면도를 하다가 얼굴에 비누칠을 한채 나를 맞이하였다. 그는 나를 응접실로 안내하고는 면도를 마저 하고 나오겠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랑해를 구하는것이였다.

응접실 쏘파우에는 책이 한권 놓여 있었는데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의 작품집이였다.

이윽고 말쑥한 차림으로 나온 그는 내가 그 책을 읽고 있는것을 보자 《당신 그 책을 읽은적이 있습니까?》라고 묻는것이였다.

결국 우리의 면담은 마크 트웨인의 작품에 대한 화제로부터 시작되는 셈이였다.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 마크 트웨인의 작품들을 모를수 있겠는가. 림학수선생이 외국문학사강의를 할 때 미국의 사실주의작가이며 풍자작가이며 평론가라고, 미제의 침략성과 타락성에 대한 비타협적인 폭로자라고 얼마나 높이 평가한 작가였던가.

순간 림학수가 여담삼아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이름의 어원까지 설명해 주던 말이 떠올라 나는 이때라 하고 그에게 들이였다.

《당신 마크 트웨인이 자기 이름을 《마크 트웨인》으로 고친 리유를 아십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 그게 본명이 아닌가요?》라고 되묻는것이였다.

나는 그의 본명은 쎄뮤얼 랭그혼 클레멘스였는데 그는 열두살때 아버지가 사망하자 인쇄공으로 한 10년 일하다가 미씨피강의 수로안내자로 되였다는것, 당시 수로안내자들은 《수심이 두길이나 배가 통과할수 있다.》는 말을 《마크》(수심표시) 《트웨인》(두길)이라고 했다는것, 그래서 그는 로동속에서 친숙해 진 그 말을 자기의 본명대신 필명으로 썼다는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당신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매우 놀라와 했다. 나는 대학때 외국문학사강의에서 배웠다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나의 눈앞에는 림학수의 안정 긴 얼굴이 떠올랐고 강의하던 그의 목소리가 귀전에 울리는듯 싶었다.

그 메히꼬신문사 사장은 단순히 기자출신인 마크 트웨인이 기자다운 예리한 안목과 명료하면서도 날카로운 기자의 문체로써 해학적으로 글을 썼다는 측면에서만 그를 숭배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작품들에 반영된 미제의 침략성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자주적인 인간정신의 기사들인 현 시대 기자들, 특히 제국주의의 지배와 략탈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3세계나라 기자들은 펜을 반제반미투쟁의 무기로 삼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이바지해야 한다는것, 당신도 메히꼬의 마크 트웨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의 문체뿐만아니라 우선 그의 반제사상을 배우라고 말해주었다. 우연히 자연스럽게 적준한 대외선전을 한 셈이다.

내가 림학수에게서 것처럼 인상 깊은 외국문학사 강의를 받지 못했던들 이렇게 예상치 않은 정황에서 그런 대외선전까지 할수 있었겠는가.

교수 림학수, 그는 자기가 배워 준 수많은 제자들의 일상적의 사업과 생활속에서 여전히 외국문학사교수로서 순간순간을 함께 있는것이다.

통일념원을 수필에 담아

어느 해인가 우리 나라 예술단이 프랑스를 방문하여 공연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다.

빠리의 한 극장에서 공연이 끝나고 막이 내리자 웬 남녀 두사람이 남 몰래 무대뒤로 찾아왔다. 그들은 조선사람들이였다.

젊은 녀인은 우리 일군에게 평양의국어대학 림학수강좌장의 안부를 묻더니 《저의 생일은 1945년 9월 15일이예요.》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 녀인이 림학수강좌장과 어떤 관계인지? 무엇때문에 자기의 생일을 알려주었는지?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귀국한 예술단일군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달 받고 돌아 온 그날 림학수강좌장이 어찌나 흥분되었던지 강좌사무실 책상에 앉아 담배를 연거퍼 두대를 피우고도 성차지 않아 《렘선생, 담배없이?》하며 또 한대를 청하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히, 참, 글썽 서울에 두고 온 내 셋째 딸이 빠리에서 우리 예술단을 만났다잖어. 아마 《중앙정보부》놈들의 눈을 피해서 얼핏 만나구 간것 같아. 내 안부만 물어 보구선 제 생일을 대주구 사라졌다. 45년 9월 15일에 났다니깐 우리 셋째야.

채문이, 참 세월두 빠르지. 그 애가 벌써 어른이 됐어.》

이렇게 말하며 그는 안경을 올리 밀고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었다.

나는 울적해 진 그의 기분을 전환시키려고 《아무튼 딸이 건재해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딸이 누굴 닮았습니까? 선생님입니까, 사모님입니까?》 하고 물었다.

《허허, 글썄 날 많이 닮았다구들 했지.》

《지혜가 보통 아닌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름대신 생일을 알려 줄 생각을 했을까요?》

《이름을 대면 혹시 복잡해 질수 있으니까. 남조선특무놈들이 좀 날쳐.》

남에 두고 온 어린 딸들의 생사여부도 알길 없어 남 몰래 속 태우던 림학수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국땅에서 우리 예술단앞에 나타나 이름대신 생일로 셋째 딸이 살아 있음을 암시하고 사라졌다니 얼마나 신기하고도 반가운 일인가.

그러면 어이하여 림학수가 나아린 두 딸과 헤어지게 되었던가?

림학수는 우리 인민군대가 미제와 괴뢰도당의 불의의 무력침공을 좌절시키고 질풍같이 38선을 넘어 반공격으로 넘어 가 단숨에 서울을 해방한 주체89(1950)년 6월, 서른아홉살의 젊은 열기로 서울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의용군에 자원해 나갔다. 그러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다시 서울로 돌아 왔는데 그때는 이미 미국놈이 인천에 상륙한 뒤였다. 부랴부랴 식구들을 데리고 후퇴의 길에 올랐으나 급작스레 서울에 쓸어 든 적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적들은 림학수가 의용군에 자원하여 나간것을 비롯하여 인민군대에 의한 서울해방후 혁명사업에 이바지했다는것과 그의 부인이 녀맹열성자로서 의용군모집사업과 인민군대원호사업에 솔선 참가하였다는것으로 하여 서울에 들이닥치자마자 그들을 체포하였던것이다.

림학수와 그의 부인은 《성북경찰서》에 감금되고 집은 괴뢰군장교놈가족들이 차지하였으며 어린 네딸들은 문간방으로 쫓겨 났다.

당시 열다섯살이던 맏딸 채윤이는 세살짜리 채령이를 등에 업고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북경찰서》 철조망밖에서 행여나 아버지, 어머니소식을 알가 하여 지키고 있었고 둘째딸 채강이는 언니가 밤에 받아다 준 콩튀기와 짜배기를 자그마한 목함에 담아 가지고 《니노하시》 다리목에 나가 행인들이 사줄걸 바라며 콩을 사라고, 짜배기를 사라고 소리쳤다. 쌀들 몇홉씩 사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기때문이었다.

《성북경찰서》에서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된후 림학수는 사형을, 그의 부인은 15년형을 각각 언도받았다.

그후 인민군대의 재진격으로 서울이 다시 해방

되어 구사일생으로 구원된 림학수는 서울시인민위원회 교육부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정세가 위급해져서 주체40(1951)년 3월 1일에 젓먹이를 업은 안해와 둘째 딸만 데리고 평양을 향해 서울을 떠났다. 멀리 친척집에 보냈던 맏딸과 셋째 딸을 데리러 갈 여유가 없어 그냥 두고 떠나야만 했던 림학수의 심정인들 오죽했겠는가. 우린 왜 안 데리고가느냐고 울부짖는듯 한 어린것들의 그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혀 걷다가는 또 서서 뒤를 돌아다 보며 눈물을 삼키던 림학수와 그의 안해였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 하루도 잊은적 없던 그 딸이 살아 있다니 기뻐다. 허나 만나보지도 못하고 함께 살수도 없으니 그 슬픔을 이루 말해 무엇하랴. 오직 이 생리별의 비극을 강요한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으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하루하루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가며 혁명임무에 충실해 오던 림학수였다.

누구보다 간절한 통일의 념원을 담아 그가 쓴 한편의 수필이 있다.

이제는 벌써 60을 바라보는 그의 둘째 딸 림채강이가 수십년세월 고이 간수해 두었던, 누렇게 색이 바랜 《문학신문》에서 나는 그 수필 《너를 부른다》를 다시 읽게 되었다.

《-윤아!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네 나이가 몇살일까?

참으로 오래되었구나. 내 그후의 너를 모르느니.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가 묶여서 트럭에 실려 형무소로 이감되는 날이었다. 경찰서마당에 나서니 너는 그날도 저쪽 철조망뒤에서 네 동생을 업고 서 있다가 나를 보고 《넘어 가는거유?》-》 끝을 길게, 애 타게 뿔아 소리쳤다.

거리가 멀어서 네 얼굴이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으나 너는 분명 울고 있었다.

너의 등에서 동생은 얼굴을 꼭 수그리고 있고 더벅머리 너의 얼굴이 온통 빨개 보였다.

나는 웃음까지 지어 보이면서 손을 흔들었다. 갔다가 꼭 오마 하는 시늉으로 손길을 이리저리 휘저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후 나는 너의 어머니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

나와 때를 같이 하여 같은 경찰서에서 문초를 받다가 나보다 며칠후에 역시 형무소로 넘어 간 너의 어머니는 늘 경찰서마당건너 철조망앞에 와서 있는 너를 나보다 더 자주 보았다는것이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너는 거기와 있었다. 세살난 동생을 업고 아직 소학교에 다닐 나이의 네가 한번은 엄마가 다른 피검자들과 함께 마당에 끌려나와 앉았을 때 너는 얼른 달려 가 뺨 몇개를 사다가 경찰의 눈을 피해 철조망구멍으로 엄마에게 들이 밀어 주더라고. 어린 동생들을 거느

리고 밤이면 잔에 콩튀기를 담아 놓고 <콩을 사세요, 맛 좋은 콩을 사세요> 서울의 다리목에서 애처로이 부르짖었다는 네가...

이것은 벌써 오래전에 써놓고도 아직 보내지 못한 편지의 한 토막이다.

나의 묵은 수첩은 이런 편지들로 그득 찼고 이제는 여백이 없다.

-윤아! 나는 너를 자랑한다. 효녀 심청이가 부럽잖구나. 나는 믿는다.

네가 정직하게 살아 가고 있을것을, 우리 서로 만날 그날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 가고 있을것을...

기러기야, 허공중천 뜬 기러기야, 이 글발을 남녘땅으로 몰어 가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고대하던 편지를 기러기글발이라 하지 않았더냐? 내게는 꼭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내게는 꼭 생사소식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나의 나날은 분망하다.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적으나마 정성을 바치노라 분망하다. 나의 나날은 낙천적인 희망과 웃음으로 충만되어 있다. 일터에서도 집에서 어머니당에서 안겨 준 행복을 노래하며 세상에 부림없이 살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남녘에 두고 온 자식들에 대한 생각이 무겁게 실려 있다.

우리 조선사람치고 나와 류사한 경우에 처해 있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가?

...우리는 어찌하여 한데 모여 살지 못하는가?

내가 고향을 떠난후 계절의 순환은 벌써 열대여섯번 반복되었다.

...

보라, 철길은 오늘도 남으로 뻗어 저기 분계선 패말이 뿔힐 날을 기다린다. 뒤라서 분계선을 날아 넘는 새의 자유로움을 부럽다 하였느냐? 구름은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한가로이 떠가며 림진강은 분계선을 따라 굽이 돌아 흐르고 있다.

록음 길은 먼 산에서 깊은 사연 있어 우는 저 뽕꼭새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다 들으리라.

이렇게 지척이 왜 그리 먼가? 옛날 운수와 체신수단이 없을 때에도 사람을 띄우면 평양서 서울까지는 사흘이면 달려 갔다.

헤어져서는 못 살, 끝내는 합치고야 말 한겨레이며 한나라땅이다.

방해와 썰기가 있더라도 통일은 성취해야 한다.

그것이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다.

한조상의 피를 이은 단일민족이라는것을 행동으로써 보여 주자. 농번기에는 이쪽 농민이 분계선너머마을로 협조하러 가고 국제경기에는 그쪽 선수들이 와서 여기 팀에 합세한다면 실로 화기애애한 극적장면이리라.

...

도처에서, 모든 시간에, 모든 계기에 북남교류

와 서신거래를 부르짖고 조국통일의 봉화를 높이 추켜 들자! 그 불길이 타번쳐 부산까지 덮을 때 민족의 원수들이 더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 할것이다. 지금 내게는 그 불길이 환히 내다보인다. 그러기에 그날이 수이 올것을 믿고 나는 흥분하는 때가 많다. 이것은 지나친 낙천성인가? 누가 옆에서 의아해 하는이 있다면 나는 눈을 부릅뜨고 주먹으로 책상을 탕쳐 단언한다. 그날은 꼭 오고야 말것이라고! 그날을 앞당기는것은 우리자신들에게 달렸다고!

그리고 북남서신개통 제1호편으로 그곳 친지들에게 보낼 편지들을 부지런히 써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림학수가 아빠트창가에 놓여 있는 화분의 꽃송이를 보면서 남녘에 두고 온 두 딸에 대한 그리움과 조국통일념원을 절절하게 토로한 또 한편의 수필이 어느 해인가 《문학신문》 1면 하단에 실린것을 내가 감명 깊게 읽은적이 있다.

한생을 통일에 대한 불 타는 념원을 안고 살아온 림학수,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고 서울시민들, 온 남녘의 인민들과 더불어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목청껏 부를 그날을 얼마나 애 타게 기다렸던가.

그는 수필 《서울사람들과 함께 부른 노래》에서 이렇게 썼다.

《거리를 들었다 놓는 만세소리, 환호성,... <중앙청>꼭대기에는 람홍색공화국기가 펄럭이고 라디오에서는 벌써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때로부터 나는 노래를 찾았다. 아니 그것은 나의 심장속에 간직되었던 노래이기도 했으리라.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지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 주는 거룩한 자옥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얼마나 꿈속에서 그리던 노래이냐!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거느리시고 백두의 산줄기를, 만주의 광야를 주름 잡아 달리시고 압록강을 넘나드시며 일제의 백만대군을 풀단처럼 베어 눕히시던 바로 그 위대한 사적을 두고 말함이다.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던 바로 그날부터 희망을 품고 신심을 굳게 하며 조선사람된 긍지 드높이 그리운 장군님을 마음속깊이 열렬히 흠모해 오던 우리였기에 이 노래는 처음 배우면서도 귀에 익었고 위대한 품에 안긴듯 가슴이 후터왔다.

나는 대학에 나가 학생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불렀고 집에 와서는 가족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불렀다.

시들었던 고목에 꽃이 핀듯 우리 가정엔 웃음이 넘쳐 났고 식었던 용광로가 숨을 내쉬듯 우리 집은 노래소리로 가득 찼다.

원췌에겐 죽음을 주고 전률케 하며 인민에겐 영광을 주고 승리로 고무하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

이 노래 부르면 어두웠던 하늘에 새별이 솟고 발밑이 백화 우거진 화원으로 변하며 눈앞엔 황금물결 넘실거리는 옥야천리가 펼쳐 졌다.

이 노래 부르면 엷매였던 자주정신과 창조의식이 나래 펴고 마음은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 북쪽으로, 북쪽으로 그리운 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달려 갔다.

...

그때 나와 함께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던 서울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의 밤 늦도록 트랙에 모여 앉아 함께 그 노래를 불렀건만 그 아이들이 고스란히 지금 내곁에 있지 못하다.

20세기의 식인종 미제야수놈들이 한사코 우리의 꽃밭을 불사르고 부모와 자식, 누나와 동생들을 갈라 놓았다.

우리가 어찌 갈라 저 살수 있느냐? 력사도 하나, 국토도 하나, 언어도 하나, 민족도 하나인 우리는 결코 둘로 갈라 저 살수 없다.

그런데 나라가 둘로 갈라 저 벌써 몇해이나? 어느 사이엔가 머리에 쌓인 흰서리를 털어 버릴 길이 없다. 어느 산봉우리엘 가서 부모의 안식처를 찾을지, 어느 마을, 어느 골목으로 접어들어 뉘집 문을 두드려야 아이들을 만날지 나는 모른다.

아니다. 아이들은 그곳에 있다. 남녘땅 방방곡곡 어디나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울려 오는 그곳에 있다.

나와 함께 부르던 노래를 그들이 부르고 있으니 그 노래 따라 내가 그들을 찾아 내고, 목청다해 부르는 나의 노래를 알아 듣고 그들이 나에게로 달려 오리라. 그러면 그들과 나 얼싸안고 자랑스럽게 부르리라. 그전엔 그들이 아이목소리였지만 이제는 장년, 청년의 목소리로 나와 함께 더 크게, 더 우렁차게 부르리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통일된다.

민족최대의 숙망이기에 우리는 합쳐 질것이며 속히 만나게 될것이다.

우리들이 만나는 날 너희들의 눈에서 빛나는 이슬을 조금도 허물치 않으리라.

아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긴 너희들에게 어찌 행복의 눈물이 없으랴!

내 머리가 검지 않다고 애석해 할것은 없다. 이 좋은 제도하에서 나는 로쇠란 말을 모른다. 패기와 정열은 청년을 튼가하고 포부와 희망은 여전히 크다. 삶의 앞길에 광명의 해발을 안겨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기 위한 길에서 나에게는 할 일이 많다.

자, 나와 함께 부르자. 너희들도 어머니도 동생들도 그전날 이 노래를 함께 부르던 서울사람들, 아니 온 남녘사람들도 목소리를 합쳐 부르자, 충성의 노래를...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 주는 거룩한 자옥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얼마나 힘을 주고 행복을 주고 광명을 주는 노래이냐. 또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는 노래이냐. 우리 함께 모일 그날은 결코 결코 머지 않다. 이 노래 심장으로 부르며 억세게 싸워 가자. 여기서도 거기서도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조선예술》 주체67(1978)년 6호]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림학수는 주체71(1982)년 6월 21일에 일흔한 살을 일기로 아쉽게도 세상을 떠났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31년, 그는 실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값 높은 삶의 뚜렷한 자욱을 남기고 한생을 마쳤다.

그는 주체69(1980)년 8월 말부터 병세가 악화되었는데 강좌교원들과 가족들이 그에게 입원치료를 받을것을 권고했으나 《내가 어떻게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병원침대에서 맞이하겠소, 배은망덕해도 분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끝내 입원을 거절했다.

출근을 계속하면서 정력으로 《외국문학사》교

과서집필을 완성한 그는 4월 15일 아침에 식구들과 함께 만수대언덕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남조선에서 애국의 넋과 재능을 여지없이 짓밟히우며 인생의 온갖 고초를 다 겪은 자신을 자애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 재능을 마음껏 꽃 피워주시었고 주체혁명위업에 한몫 바쳐 일하는 혁명적지식인으로 키워 주고 내세워 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는 삼가 큰절을 올렸다.

평양의 물이 좋아 나이 선에 아들을 보았다고 애지중지하며 키운 막내, 4대외독자 채호와 세 딸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한층두층 만수대언덕을 내려 온 립학수였다.

며칠후부터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간 그는 어느날 온 집안식구들을 불러 앉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교단에 서서 후대 교육사업과 문필활동을 배울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덕분이다.

내가 우리 수령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더라면 벌써 남조선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지 오랬을 거다. 별로 한 일도 없는 나를 교수로 내세워 주시여 온 나라가 다 아는 사람으로 키워 주셨고 너희들 모두를 대학공부시켜 주신 우리 수령님의 그 은덕과 나의 사업과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 있을 세라 승용차까지 보내주시며 세심히 보살펴 주시고 손 잡아 이끌어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은덕을 눈에 흠이 들어 간들 내 어찌 잊겠느냐. 남에서 일부 못된 놈들이 내가 북에 가서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어처구니 없는 외곡선전을 했었지만 사실 나는 우리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속에서 참다운 삶의 행복은 마음껏 누렸다.

우리 수령님의 품을 찾아 북으로 온것은 나 스스로가 택한 길이고 그래서 참된 삶에 대한 나의 희망과 포부를 성취했다.

이제 통일이 되면 남에 있는 애들도 저희들을 남겨 두고 북행길에 오른 이 아버지의 결심이 백번 옳았다는것을 깨닫게 될거다.

부디 너희들은 아버지가 못다한 충성을 다해서 우리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

통일되어 채운이랑 채분이를 만나거들랑 그 애들에게도 아버지의 이 부탁을 전해다오.》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새겨 두려는듯 보고 또 보는 그의 눈에는 한생을 값 있게 산 긍지와

자부심이 력력히 어려 있었다. 그는 정답게 미소를 지었다.

그후부터 그는 혼수상태에 들어 갔다.

결국 이날에 한 말이 자기의 한생을 총화하며 자식들에게 남긴 립학수의 마지막유언으로 될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립학수의 장례식에는 당중앙위원회와 내각, 교육성, 문예총, 작가동맹, 사회과학원, 외무성 일군들과 대학교원들, 그의 제자들 500여명이 조객으로 찾아 왔다.

립학수의 시신이 발인되는 날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온 한 일군은 유가족들을 모여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립학수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와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오직 당만 믿고 충실히 살아 온 오랜 지식인입니다. 특히 후대교육사업에서, 공적이 큼니다. 립학수선생을 잃은것은 우리 당의 큰 손실입니다.

후대들도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에 충신했던 아버지처럼 당과 혁명에 충실할것을 바랍니다.》

립학수를 품에 안아 한생을 값 있게 살도록 보살펴 주고 이끌어 주고 내세워 준 어머니당은 떠나간 전사에게 이렇듯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안겨 주었다.

육체적생명에는 끝이 있어도 정치적생명에는 끝이 없다. 정녕 립학수는 살아 있다.

인디아의 뉴델리종합대학 학생들이 《2.16경축 야회》무대에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영어로 부르던 안드라 빠라데쉬바반의 그 저녁에 그리고 영국의 그리니치천문대 기사 마이클이 자기는 조기천의 서사시 《조선은 싸운다》를 읽고 동방의 영웅조선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그후부터 《평양방송취취자구락부》에서 매일 밤 주체조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위대한 자주정치에 매혹되었다고, 세계의 지리적기준선이 그리니치라면 세계정치의 기준선은 조선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하던 그 시각에 나는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 선전한 번역작가 립학수를 생각했다.

오늘도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김일성**민족의 넋을 곳곳이 지켜 가고 있는 우리동포녀학생들과 재일동포들속에서 애독되고 있는 서정시 《조선의 소녀》, 그 시가 총련에서 출판한 《조선시집》에 실렸다는 소식을 듣고 감개무량해하던 시인 립학수! 그는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영원히 살고 있다!

6. 15는 밝은 달

오영재

분별의 지나긴 세월
얼마만이나 기다려 얼마만이나
이 밤에 솟아 오른 6.15는
민족의 하늘에 뜬 밝은 달
3천리가 밝아 지고
마음도 밝아 진 희망의 달

반가운 달
고마운 달
사랑스런 달
밝아 진 하늘을 쳐다보며
민족이 기뻐서 울던 달
7천만은 통일의 열기로 설레이게 한 달

북녘의 하늘에도 떠 있고
남녘의 하늘에도 떠 있고
머나먼 해외의 하늘에도 떠 있는 6.15달
태양의 빛을 받아
이 밤을 밝혀 주는 하늘이 큰 거울

그 유정한 달빛아래

반세기 흩어 졌던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우리 또한 아름다운 금강에서
민족은 영원히 하나임을 노래하니
이 얼마나 좋은가

비바람이 몰아 쳐도 달은 떠 있으리
화약내가 풍겨 와도 달은 떠 있으리
밝고밝은 민족의 달 6.15달을
언제나 마음에 안고
사랑하면 애국자
외면하면 반역자

우리 민족끼리 마음 다해
소중히 키워 가자 6.15달을
구름이 가리우면 힘을 합쳐 걷어 내자
이 달이 만월로 둥글어
하늘에서 웃으면 통일이 되리
빛나는 새 아침이 밝아 오고
통일의 해님은 누리를 밝히리라
(6월 15일 5월봄명절 금강산에서)

인기도서

《멍청한 백인들》

최근 남조선에서 미국이 유명한 영화감독이며 작가인 마이클 무어가 쓴 책 《멍청한 백인들》이 번역출판되어 사회적 관심을 끌고있다.

이 책은 부쉬를 비롯한 현 미국지배층의 취약성을 폭로하고 풍자한것으로 하여 미국에서도 가장 잘 팔리는 인기도서로 되고있다고 한다.

필자는 책에서 부쉬가 집권 후정치, 경제, 외교적자질과 도덕성들 모든 분야에서 저지른 48가지의 정책오류들을 하나하나 까밝혔다. 그러면서 부쉬를 《순미국식쿠테타로 대통령직을 훔친 왕도적》, 《미국인들의 대통령이 아닌 500대기업의 앞잡이》, 《정치군들의 얼굴마담》, 《미국 시민들의 착취자》, 《포라이》《아무 말이나 망탕 지껄인

다는 뜻》 부쉬》, 《멍청한 부쉬》라고 혹평하였다.

특히 《지난해 6월 부쉬가 스웨리예수상을 만난 자리에서 《평화와 번영의 상징》인 고어를 반대하여 싸웠는데 집권할 줄을 몰랐다.》고 발언하여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었던 사실, 어렸을 때 제일 많이 읽었다고 소개한 책이 다름아닌 그가 대학졸업반때 출판된 책이라는것이 드러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일화 등을 소개하면서 수백만의 문맹자가 있는 미국에서 《부끄러워 할것》은 없지만 무식한 부쉬가 《평화와 번영을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망쳐놓고있다》는데 문제성이 있다고 개탄하였다.

지금 남조선신문들은 이 책을 소개하면서 《<멍청한 백인

들>로 대변되는 미국지배계층이 비도덕성과 폭력성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미국식>합리주의에 대한 환상을 여지없이 깬 책》, 《책을 읽는 95%의 독자들에게는 통쾌감을 주지만 5%의 사람들(특권 계층, 친미분자)에게는 단 두페이지를 넘기는데만도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한 특별한 책》이라고 평가하고있다. 그러면서 신문들은 미국사람들이 《공화당정부에 대한 직설적인 독설과 비웃음으로 가득찬 이 책에 열광하고 있는것은 바로 집권이후 경제, 외교, 복지는 물론 국가의 도덕성까지 엉망으로 만든 멍청한 부쉬에게 극도로 분노하였기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천한산의 붉은 단풍

황정일

마가을, 애국렬사묘들이 있는 여기 천한산기슭에도 단풍이 붉었다. 나는 지금 나의 할아버지의 묘비앞에 서있다. 나는 이 묘비에서 철 없던 나의 소년시절과 작별하였고 중학교를 졸업하자 소원대로 해병이 되었다. 벌써 그때로부터 5년세월이 흘렀다. 그것은 력사에 류례 없는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다. 긴장한 훈련속에 나는 성장하였다.

나는 선군시대에 군사복무를 시작한것을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예로 생각하고 있다. 그 궁지와 영예감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적들의 가증스러운 군함을 향해 우리의 경비정을 육탄이 되여 최속으로 몰았겠는가. 서해해상격전에서 우리는 조선인민군해병들의 무비와 용감성과 영웅적위훈을 온 세상에 떨쳤다. 이 격전에서 부상 당한 나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지금 고향에 들린것이다. 고향사람들은 나를 영웅처럼 떠받들었다. 아버지가 나의 가슴속에 심어 주려고 애 쓰던 생활의 그 모든 참된 뜻을 나는 군사복무의 나날에 더깊이 깨닫게 되었다.

X

나의 아버지 리인범은 키가 작달막하고 얼굴이 강마르게 생긴 사람이있는데 성격이 불 같고 일생 고지식하게 살면서 일밖에 몰랐다.

우리 세남매는 물론 온 동네가 아버지를 대하기 어려워 하고 지어 두려워 하기까지 했다. 뜻밖의 일로 순직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온군이 떠들썩하게 농사를 지으며 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었을것이다.

우리 형제들중에서 유독 나만은 아버지를 두려워 하지 않았다. 아마 막내이라는 《특전》대문인지는 몰라도 아버지는 나한테만은 어찌지 못했다.

열다섯살때 나는 아버지만큼 키가 컸고 몸도 좋았다. 아버지보다 더 크다고 고집을 쓰는 나를 보며 아버지는 눈을 흘기었다.

《키나 크면 뭘해, 철이 들어야지...》

중학교 5학년에 진학하자 나는 점점 굴레벗은 망아지처럼 걷잡기 어려워 지고 말았다. 그때는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던 때였다. 아버지와 가정에 대한 불만은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홍, 관리위원장네가 이런 범벅밥을 먹는다면

누가 끝이 들을것 같아요...》

그것은 양배추와 산나물에 강냉이가루를 슬쩍 뿌려 넣고 드문드문 종자로 쓰다 남은 콩알들을 섞어 만든것이였다. 풀죽에 대면 상당한것이였다.

《이 녀석, 배 부른 흥정은 그만해... 관리위원장이 뭐라구》 농사를 잘못했으면 관리위원장부터 굶어야 해...》

아버지는 정말 굶을 작정을 했는지 집에 들어와 식사하는 때가 점점 드물어 지기 시작하였다.

피로한 모습으로 밤이 깊어 아버지가 들어오면 어머니는 말없이 부엌으로 내려 가 밥상을 챙기군했다. 아버지는 내가 이불속에서 궁싹거리는것을 보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난 한술 먹고 왔으니 막내를 깨우구려...》

어렸을 때부터 난 아버지가 남긴 밥을 좋아 했는데 이상하게도 더 맛이 있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 우리 학급에도 결석하는 동무들이 나타났다. 학교에 안 오는 친한 동무들을 생각하면 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수업이 끝나면 굶주려 일어 나지 못하는 아래마을 팡윤이나 철삼이들을 찾아 가군 하였다.

《팡윤아, 그렇게 맥을 놓으면 래일은 걷기 싫어지고 모레는 일어 서기 힘들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죽는단 말이야 ... 죽음이란 간단한거야...》

나는 마치 기근의 체험자나 되는듯이 이런 말을 하며 억지로 바다에 끌고 나가군 했다.

동해바다는 우리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바다! 바다야말로 그때 우리의 허기진 배를 달래주는 얼마나 고마운 품이었던가! 해종일 섭조개나 게를 구워 먹고 다시마나 미역 같은 바다나물을 한망태기씩 들고 가면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해 지군 하였다. 그러나 여름 한철은 짧았다. 울과일이 익게 시작하였다.

어느 날 밤 나는 팡윤이와 철삼이를 휘동해가지고 사과밭에 들어 갔다. 밤잠이 없어 《부영이》라는 별명이 붙은 과수원경비아바이 몰래 사과를 따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겁이 많은 철삼이때문에 우리는 《부영이》한테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어데선가 과수밭머리에서 송아지가 놓여 나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들구 뛰는 바람에 경비원이 따라 왔던것이다. 이튿날 즉시 관리위원회에 통보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난생처음 아버지한테 손찌검을 당했다. 억울했다. 왜냐하면 언제인가 《부영이》가 복숭아를 따먹는 아래마을 아이들을 붙잡고 반실로 들어 간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파수반에 들렸던 아버지는 《놓아 주게나. 그 애들이 먹으면 얼마를 먹겠나. 다 우리 자식들이 아닌가...》라고 말해서 그애들이 무사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한테는 조금도 사정이 없었다.

아버지는 성이 머리끝까지 나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여대갓 집안에 <도적놈>을 길렀소. ... 내 얼굴이 뜨끈해서... 헛참, 저놈이 언제부터 손버릇이 저렇게 됐소?...》

나는 쫓겨 나 창문밖에서 엿듣고 있었다.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어디서 저런 놈을 낳았어?》

수십년 세월 아버지의 말에 늘 순종하는데 버릇했던 마음 어진 어머니가 눈물을 쿵쾅거리며 (좀 버릇 없는 표현이지만)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아들이 아니면 그 애가 낚 아들이예요...》

(아, 어머니는 역시 내편이구나....) 나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가 내 역성을 들어 주리라 기대하였다.

《알게 뭐요.》 아버지의 비틀어 진 대답,

《아이유... 그래도 리씨문중의 어느 피줄을 탔겠지요...》

《우리 집안에 저런 <도적놈>이 없었던 말이요》

《알게 뭐예요. 듣자니 시아버님도 한때는...》

어머니는 뒤말을 맺지 못했다. 아버지가 목청을 돋구었던것이다.

돈구었던것이다.

《내 미리 말해 두는데 아직 채 크지 않은 저 녀석앞에서 아버지의 말을 꺼내지 마오. 아버지 죽음으로써 자기의 잘못을 씻고 지금 저 애국렬사묘에 누워 있소. 이제 기회를 봐서 저 녀석도 애국렬사묘앞에서 <회계>를 시켜야겠소...》

아버지는 한가위가 오면 우리를 데리고 천한산 기슭에 있는 애국렬사묘에 가군 한다.

애국렬사묘 맨 앞줄에 우리 할아버지 리현배와 해방후 마을의 첫 세포위원장이었으며 인민유격대소대장이던 리성국의 묘비가 서 있다. 어떻게 되어 이렇다할 공로도 없는 우리 할아버지가 세포위원장과 나란히 앞줄에 누워 있게 되었는데는 나를 그때 알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주로 리정국세로위원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했지 할아버지에 대해선 그저 세포위원장과 함께 놈들에게 희생되었다는 정도로 이야기했을뿐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 광윤이네 집으로 가면서 아버지의 말을 꼼꼼히 되새겨 보았다. 그러니 형님, 누나는 그 무슨 《회계》를

다 치르고 집을 떠났단 말인가! 나는 그날 밤 자정이 지나 도적고양이처럼 슬며시 집안으로 기어들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때까지 자지 않고 있었다. 아마 나를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어제 신문을 보니 이전 소련의 붉은군대출신의 유명한 작가의 손자가 개혁, 개편의 앞장에 선 소식이 실렸더군요만. 그 작가가 쓴 책은 우리 집에에도 있을거요...》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는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다시 심각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언젠가 난 어떤 나라의 소설책에서 이런 말을 읽은적이 있었소. <할아버지가 해놓은 혁명을 손자가 망쳐 먹는다.>...허허.

그건 마치도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 집을 넘두에 두고 한 말 같구만. 할아버지는 애국렬사묘에 누워 있고 손자는 공부하기 싫어 건들거리며 사과밭이나 습격하고... 어허 참...》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너무 상심해 하자 어머니가 위로의 말을 했다.

《여보, 너무 마음 쓰지 마우. 자식이란 옛날부터 걸을 달지 속은 못 낳는다고 했수다.》

그러자 성미 급한 아버지는 버럭 목청을 돋구었다.

《아니요. 걸은 못 낳아도 속부터 낳아야 해! 나를 닮지 않은건 내 아들의 아니야. 우리 집안에선 <우성의 법칙>이란 말이요.》

아버지는 유전학의 기본법칙들을 마구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젊어서 농업대학을 다닐때 유전학에 남 다른 취미를 가졌다고 한다. 그때문인지 아버지에게 언제부터인가 유전의 법칙에 근거하여 사물현상을 판단해 보는 남 다른 버릇이 생겨 났었다. 아버지는 마을에 자라나는 젊은 청년들을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며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허, 그것참, 틀림 없는 제 애비야,

저 꼼꼼한 성미랑 일쫓씨를 보라구. 어쩌면 코까지 딱 제 애비의 주먹코를 닮았던 말이야...》

《너의 아버지 그렇게 게잘싸하게 일을 안했어. 막 굴러 먹은 녀석 같으니... 수수그루에 피신했다 돌아 난 격이야. 어쩌서 저런 <갑작변이> 일어났는지 귀신도 모를 일이지...》

이런 때면 뽕잔 욕을 한소나기 퍼붓고야 아버지는 진정하곤 하였다. 농장의 많은 새 세대작업반장, 분조장들이 아버지의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라났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이젠 마을에 별로 없다. 특히 최근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세상을 많이 떠나갔다. 좋은 후대를 남기고 간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다. 누구나 자기를 닮은 좋은 후대를 남기고 싶어한다. 인간은 자기를 닮은 후대의 모습을 통해 일종의 《영생》의 소원을 성취한다고도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 중학교 높은 학년에서도 유

전학의 기초지식을 배워 나는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할수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서 제나름으로 그 무엇인가 우리 집안의 피줄을 지배하는 《유전의 법칙》을 터득해 보려고 애를 썼다.

(아마 할아버지가 나와 비슷했던 모양이야. 할아버지의 일부 《유전형질》들이 아버지한테선 《숨은 형》이요 내 대에 와서 《나타난 형》이거든... 아버지진 이것을 미처 몰랐어...)

나는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병싯 웃었다.

《이제 한가위도 멀지 않았는데 그때 애국렬사묘앞에서 모든것을 다 말해 줍시다.》

나는 아버지의 이런 말을 들으며 굳잠에 들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한테서 끝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말았다. 며칠후 아버지가 뜻밖에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아, 그리운 나의 아버지! 지금도 살아 계시어 적군함의 갑판에 몰켜서 있던 원썬들을 향해 최속으로 돌진해 들어 가면서 기관총사격을 퍼붓는 나를 지켜 보는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너무도 철없이 눈 이 막내자식때문에 순직하는 순간에 눈도 변변히 감지 못했을것이다.

그날은 일요일이여서 학급에서는 해수욕을 조직했다. 널찍한 우리 집에 모였다가 바다로 가기로 하였다. 우리 집에 처음 오는 동무들이 많았다.

모두들 관리위원장네 집이라니까 호기심이 많았다. 우리 집이라야 별로 눈에 띄게 갖춰 놓고 사는것이 없었다. 아버지가 전국농업대회들에 참가하여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 세상이 제일 눈에 띄었다. 그밖에는 《대동강》텔레비죤수상기 한대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구식 《비둘기》표 재봉침이 있을뿐이었다. 이웃마을에사는 달수가 옷방에 걸려 있는 낡은 벽시계를 보더니 《야, 저건 정말 낡은 시계구나!》하며 자못 신기해 하였다. 그는 벽시계를 만져 보기도 했다.

《너의 아버지진 군적으로도 소문난 관리위원장인데 이런 골동품 같은것을 왜 아직 벽에 걸어 놓고있니?》

그의 말은 나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다. 그 벽시계는 정말 오래된것이였다. 어머니가 시집오기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시계가 고장이라도 나면 아버지는 품들여 고쳐 오군 했다.

아버지는 시계에 먼지가 끼면 자신이 직접 그것을 닦으며 몹시 흐뭇해 하였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그 시계추를 흔들어서 놓게 하고 나서 수수께끼를 낸 일이 있었다.

《우에선 산수공부를 하고 밑에선 그네를 타는

것이 뭐냐?》

나는 머리가 그리 나쁘지 않아서 대답 그것을 알아 맞혔다.

《저-기 벽시계...》

《허허... 네 손이 약손이다. 얼마나 잘 가냐.》 똑딱거리며 가고 있는 벽시계를 바라보며 기쁨의 미소를 짓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어떻게 그때 알수있었겠는가, 나는 그후 유치원 높은반에 올라 가고 소학교에 입학하자 그 시계에,대한 흥미를 잃어 버렸다. 그러나 벽시계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은 여전한것 같았다.

먼 후날에야 나는 시계에 대한 아버지의 류다 른 애착을 알게 되였다.

해수욕이 끝난 그날 오후, 나는 어머니의 돈지갑을 털어 내어 새로 나온 멋진 전자시계를 사다가 그 벽시계대신에 걸어 놓았다. 《골동품》이란 말에 자존심이 무척 상했던 나는 앞뒤를 가려볼새가 없었다. 일은 저녁에 터졌다. 늘 밤이 깊어 들어 오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먼저 집에 들어 왔다.

《애 영혼아, 네가 좀 저녁을 빨리 지어라. 한술 먹고 고개 넘어 염소우리에 가야겠다. 무더기비가 오겠다든 통보다.》

나는 군말없이 부엌으로 내려 갔다. 돼지사양공인 어머니가 때때로 늦어 오면 내가 할수 없이 저녁을 지었던것이다. 그런데 부엌에 내려서기 바쁘게 옷방에서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들렸다. 방금전까지도 곰살궂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가슴이 덜컥했으나 이번에는 당당히 맞설 각오를 하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젠 그 <골동품> 같은것을 내리우지요.》

사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집안을 좀 때벗이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도 농장간부네 집인데 이 무슨 꼴이란 말인가?

그러나 아버지의 이그러진 험악한 얼굴에 부딪치자 그만 기가 죽어버렸다.

《왜 말이 없어? 벽시계를 어쨌느냐말이다.》

《저 뒤골방에...》

《뭘 뒤골방? 예익 내 그저...》

아버지는 뒤골방에 들어 가더니 이윽고 구석에 처박았던 벽시계를 안고 나왔다.

《이놈아, 누구의 승인을 받고 시계를 바꿔 걸었어? 이건 너의 할아버지가 목숨과 바꾼거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말이다...》

아버지의 움푹 꺼진 두눈에선 눈물이 번뜩였다.

아버지는 망연자실하여 한동안 벽시계를 들여다보더니 비칠거리며 자리에서 일어 났다. 나는 그처럼 슬픔에 잠긴 아버지를 처음 보았다. 더는 나를 때리려고도 욕설을 퍼부으려고도 하지 않

았다.

아버지는 머리를 짓속인채 밖으로 나가다가 대문가에서 어머니와 마주쳤다.

《여보, 왜 그러시우?》

《범이 새끼 여럿을 낳으면 시라소니도 낳는다더니... 옛말 그론데 없어. 어서 들어 가보구려.》

아버지는 저녁도 안 잡숫고 대문밖으로 사라졌다. 그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날 저녁을 굶은 아버지는 그 길로 범고개를 넘어 염소우리로 갔다. 소동천기슭에 새로 지은 2층짜리 염소우리가 걱정되었던것이다.

불안한 밤이었다. 영화나 텔레비존런속극에서처럼 번개가 번쩍거리고 우뢰가 으르렁거렸다. 밤중에 바깥으로 쏟아 붓는듯 무더기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새벽녘에 무섭게 벌람한 소동천이 염소우리들을 밀어 내기 시작했다. 2층건물에는 새로 받아온 새 품종들이 있었다. 마지막 두마리를 채 안아내오지 못했는데 집의 한쪽 모퉁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만류했으나 다시 2층으로 달려 들어 갔다. 마지막 염소를 그러안은 채 아버지는 그만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집이 통채로 무너졌던것이다...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온군이 다 모여 온것 같았다. 군내 관리위원장, 리당비서들은 물론 군당 책임비서까지 나왔다.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혁명동지들이 많은줄은 그때 비로소 처음 알게 되었다. 많은 농장원들이 아버지의 죽음이 애석하여 눈물을 흘렸다. 군사복무를 하던 형님은 자기네 중대장과 함께 전보를 받고 장례식에 왔었다. 부대로 돌아 가기 전날 밤에 형님은 밤을 새우며 나에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아버지가 한가위날 나에게 해주려던 이야기였다.

그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때 우리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

밝아 빠진 대문틈새로 한줄기 해빛이 스며 들었다. 춥고 지루한 기나긴 밤이 물러가고 또 하루 새날이 시작된것 이다.

리정국은 차거운 세멘트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부상 당한 다리도 좀 나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듯 싶었다. 하긴 40대의 한창 나이가 아닌가!

어둠을 밀어 내는 그 한줄기 해빛은 그에게 삶의 강렬한 욕망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오랜만에 몇발자국 떼여 보았다. 걸을만 했다. 그는 천천히 절뚝거리며 《구류장》안을 한바퀴 돌았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당에 이해의 첫눈이 하얗게 내렸다. 잎새 떨어 진 살구나무가지우에서 참새들이 짹짹거리다 포르릉 마당에 내려 앉는다.

《래일 밤에는 탈출해야겠는데...》

눈이 와서 흔적이 날것이 걱정되었다. 그러나 소담하게 쌓인 그 눈은 새해의 첫 손님처럼 반가움을 불러 일으켰다. 《치안대》본부쪽에서 놈들이 부산스럽게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눈이 오면 개들이 좋아 한다더니...)

리정국은 쓴 웃음을 지었다. 총을 게잘싸하게 멘 두놈의 《치안대》가 이쪽으로 걸어 오고 있다. 창고문앞에 이른 두놈은 주춤거렸다.

《네가 좀 불러 내.》

키 큰놈이 뒤견에 물려서며 말했다.

《왜 겁이 나? 이제 황천으로 갈 놈이 뭐가 무섭나...》

암팡지게 생긴 땅딸보가 창고문을 열었다.

《리정국, 빨리 나오라.》

순간 리정국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는 죽음의 시각이 왔다는것을 깨달았다. 각오했던 일이여서 놀랄것은 없었으나 하루 밤이 모자라서 탈출못한것이 아쉬웠다.

그는 쓸쓸한 눈길로 구멍을 뚫다 만 북쪽 바람벽을 일별하고 밖으로 나갔다. 눈을 찌르는 해빛의 반사광에 한순간 그는 눈을 감으며 비칠거렸다.

《치안대》본부에서 박완섭이 이발을 쭈시며 나왔다.

《대장님, 어디로 가랍니까?》

《곧장 소동천기슭으로 끌고 가게. 이 <어름>은 빨리 걷지 못해서 먼저 <출옥>시킨거야. 나머지 놈들은 내가 이제 다 몰아 가겠네.》

박완섭은 리정국한테로 다가오며 빈정거린다.

《이거 안됐소. 걷기가 힘들텐데. 하긴 마지막으로 고향땅을 밟아 보는것도 나쁘진 않을거요.》

《고맙다. 추억에 잠길 시간을 주어서...》

소동천기슭으로 뻗은 길은 눈에 덮여 호젓했다.

리정국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뒤에서 오는 사람들과 함께 걸고 싶었던것이다.

...열흘전 리정국은 등시에 정찰을 나왔다. 아무래도 리현태의 일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를 만나려고 오주리로 왔다. 그는 천한산에 있는 절간에 숨어서 마을의 동정을 살폈다.

광복이 되자 주지는 남쪽으로 달아나고 절간에는 로중이 한명 남아 아직도 넘주를 세며 나미아 미라불을 외우고있었다. 그 로승이야말로 세월의 그 어떤 변화속에서도 석가모니의 계를을 어겨 본적 없는 무사태평한 중이었다.

그가 하는 일이란 목탁을 두드리며 마을들에 찾아 가 동양을 하는것인데 때가 때인것만큼 누구도 선뜻 시주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 시간에는 소동천앞의 한그루 물향철나무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곤 하는데 그때면 그의 주름 많은 얼굴에 온갖 만사름에서 해탈하여 《극락》의 경지에 도

달한 승엄한 감정과 《환희》의 표정이 비끼군 하였다. 혹시 그는 소동전기슌을 석가가 7년간이나 명상에 잠겼다가 《진리》를 깨달았다던 그 강반으로 생각하며 늙은 불황철나무를 그 강반 근처에서 있었다는 보리수로 상상하는것은 아니었던지... 아니면 혹시 임진왜란때를 더듬으며 서산대사처럼 나라를 위한 의로운 일을 꿈 꾸는것은 아니었던지? 아니 벌써 로중은 그 의로운 일에 몸을 잠그고 있었다. 리정국은 그를 통해 마을의 일거일동을 손금 보듯 하고 있었다. 리정국을 벌써 며칠째 먹여주고 숨겨 주고 있는것만도 대단한 것이었다.

리현배는 이 오주마을의 태반을 이루는 리씨문종의 한낱 평범한 농민이다.

12살때부터 20여년을 강지주의 머슴으로, 몸종으로 살아 온 그에게서 계급의식은 자그마한 불티처럼 노예적근성이라는 두터운 재무지속에서 가물가물 줄고 있었다. 그 세월이 덧쌓은 두터운 재무지를 파헤치고 불꽃을 찾아 내 활활 타오르는 심장의 뜨거운 불길도 만들려고 리정국은 그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토지개혁으로 강지주가 청산되자 그 집을 고스란히 물려 받은 리현배는 분여받은 땅에서 농사지을 대신 노상 제 기본에 들떠 다니군 하였다. 그는 낮 놓고 《ㄱ》자도 모르는 까막눈이었다.

토지개혁을 끝낸 그해 봄날에 있을 일이었다.

모들들 모내기를 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돌아가는데 리현배네는 논갈이도 안하고 있었다. 마을을 돌아 보던 리정국은 울긋 하얗게 치밀었다. 만삭이 된 현배의 안해가 팽이로 땅을 두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땅의 주인이 됐으니 농사를 잘지어야 된다고 그만큼 타이렸는데 현배는 허파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또 읊에 갇던 것이다. 리정국은 현배네 눈을 갈아 번지기 시작하였다. 불남의 긴 해가 천한산우에 내려 앉을 무렵에야 열근히 취한 현배가 되들이술병을 들고 흥타령을 부르며 마을에 나타났다. 자기네 눈을 갈고 있는 리정국을 보자 그는 안해에게 물었다.

《아니 세포위원장형님이 어찌된 일지요?》

《아이참, 어찌면 그리도 무사태평해요... 난 동네가 부끄러워 못 살겠어요.》

분녀는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지 몰라 눈물을 머금고 입술을 깨물었다.

《못 살겠으면 판 서방을 찾아 가면 되지. 나보다 얼싸한 사내들이 좀 많대구...》

《아이, 보기 싫네...》

《분녀, 이보라구. 세포위원장도 말했지만 난 저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이 수천평 문전옥답의 주인이란 말이요... 주인! 알겠어?》

주인이 뭐 벼 빠지게 밤낮 일하는걸 봤어? 어허, 이제야 취하는군...거 노래나 한마디 부르라구...》

《정신 있어요?》하며 분녀는 필쩍 뛰었다.

얼마후 리정국은 소를 물고 논머리로 나왔다.

《형님, 수고했습니다. 내 이거 주인의 인사가 늦었습니다.》

《헛참, 너 같은 건달군이 무슨 주인이냐?》

리정국은 쓰거운듯 입맛을 다시었다.

《공산당에서 땅을 도루 빼앗는다더니 혹시?》

《뭣이? 너 어데서 그따위 말을 들었니?》

리정국의 얼굴은 대번에 새파래졌다.

《글쎄... 더 러 그런 말들을...》

《뭘, 공산당에서 어쨌다구? 너는 도대체 어느 쪽이나, 엉? 왜 대답을 못해-》

채찍을 쥔 리정국의 손이 후들거렸다. 분녀는 돌아 서서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띄여 보자 리정국은 가슴이 아팠다. 이런 청맹파니한테 분녀를 맞세운 자신에게 더욱 화를 냈다.

《두말할게 없다. 래일까지 논갈이를 끝내거라. 네가 빨리 잘 살아 보라고 우리 장군님께서 기와집도 주시고 제일 기름진 문전옥답도 분여해주신 거다. 배은망덕도 분수가 있지...》

《형님, 내 잘못했습니다. 뭐 한마디 톤담한걸 가지구 그러우. 자, 우리 논을 가느라 땀깨나 흘렸는데 술이나 드시오.》

리현배는 술병을 내밀었다.

《너나 마저 마셔라.》

리정국은 술병을 밀어 던지더니 담배쌈지를 꺼냈다.

《예, 그럼 내 오늘까지 실컷 마실테요.》

리현배는 꿀꺽꿀꺽 병나발을 붙어대기 시작하였다.

《술이 술을 알고 사람이 사람을 알아 준대요.》

미처 목구멍에 못 넘긴 술이 그의 앞가슴으로 줄줄 흘러 내렸다.

《그래서 사람들보구 네가 강지주의 마음을 잘 안다고 떠벌었나?》

《어찌겠소. 사실이 그런걸.》

《에익, 등신 같은 놈...》

리정국은 격분하여 벌떡 일어 서며 현배의 먹살을 쥐고 흔들었다. 그의 얼굴은 붉으락푸르락했다.

《이놈아, 그래 장지주가 던져 주던 신발짝과 고기점이 그렇게도 네 마음을 감동시켰나? 우리 마을은 물론 이웃 마을 수백명 농민들이 그놈한테 어떻게 피를 빨리웠는지 네가 알기나 해...》

리정국도 머슴살이를 했는데 그때의 수모와 천대받던 억울한 감정이 되살아 나서 제가슴을 주먹으로 탕탕 치며 부르짖었다.

리현배는 머리를 푹 떨구었다.

이튿날 새벽부터 리현배는 옷등을 벗어 불이고 논을 갈기 시작했다. 아침 먹으려도 안들어 갔다. 분녀가 식사를 날라 내갔다.

이라 길길 소궁둥이에 채찍을 안기며 호기있게

소리치는 그의 청 높은 목소리가 소동벌의 아침 대기를 자못 유정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세상을 웃기는 일을 그때로부터 한달후 5.1절 아침에 벌여졌다. 해방후 맞는 첫 5.1절이여서 군에서는 5.1절기념시위와 군중집회를 크게 조직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오주리를 께지르고 간 큰 길로 여러가지 가장물을 든 이웃 마을시위대렬들이 꼬리를 물고 지나갔다. 오주리는 읍이 가까와서 신 새벽부터 서둘지 않아도 되었다.

리현배는 강지주의 둘째 첩이 거처하던 건넌방에 들어 갔다가 그가 내버리고 간 고리썩안에서 강지주가 노상 입군 하던 연미색 비단바지저고리와 공단조끼를 발견했다. 조끼주머니엔 그가 애용하던 상아물주리도 있었다. 너무 급히 한밤중에 쫓겨 가다 보니 미처 손 쓸새가 없었던 물건들이었다.

리현배는 세포위원장의 말을 생각하며 고리썩이며 옷가지들을 걷어 차 버리려다 썩곳 웃음을 지었다. 분녀를 한번 놀래워 주고 싶었던것이다. 그는 얼른 베돌찌를 벗어 버리고 비단바지저고리를 바깥 입었다. 한쪽 입귀에 비스듬히 상아물주리까지 물고 나니 제법 강지주냄새가 났다.

현배는 《어-험》 하고 잔기침을 짓으며 마루위에 올라 섰다. 개화장이 없는게 좀 섭섭하였다.

새들이 지저귀는 맑고 화창한 5월의 아침이었다.

활짝 열려진 소슬대문밖으로 무연하게 펼쳐진 소동벌이 내다 보였다.

《여봐라. 게 분녀가 없느냐? 빨리 세수물 떠오지 못할가.》

그러나 분녀는 어디로 갔는지 대답이 없었다.

《이에 외양쇠야(현배의 별명),... 허. 이놈들이 식전부터 다 어디 갔어? 분녀 이년이 또 외양쇠를 꼬여 낸 모양이군.》

원래 목청도 좋은지라 미단이 유리창들이 막드르렁거렸다. 그때 랑태머리를 한 처녀가 대문안에 들어 서다가 깜짝 놀라 주춤거렸다. 읍에서 막바지인 구상리에서 꼭두새벽에 떠난 그는 목이 말라 랑수 한그릇 마시려 들어 왔다가 난데없는 《지주》의 모습을 보고 어안이 빙빙해졌던 것이다.

《어마나!-》하고 짧은 외마디소리를 지른 처녀는 풍지가 뻗뻗해서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런데도 잔뜩 흥이 난 리현배는 뒤집을 지고 마당을 오락가락하며 기억이 나는대로 강지주가 하던 말들을 내뱉고 있었다.

별안간 대문밖에서 퇴성벽력 같은 《지주를 타도하라!》는 웨침소리가 들려 오더니 몽둥이들을 틀어 켜 장정들이 우르르 대문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아니, 지금이 어느 땐데 아직 지주놈이 있어.

도대체 어느 놈이냐?》

어깨가 썩 벌어진 청년이 제잡담 집안으로 도망쳐 들어 가려는 리현배의 뒤덜미를 잡아챘다.

현배는 널마루에 나동그라지며 《아니, 난 지주가 아니요.》하고 몸에 떨어지는 몽둥이를 휘여 잡으려고 한손을 허우적거렸다. 5.1절 아침에 난데없는 《지주》를 보자 구상리사람들은 극도로 흥분하였던것이다. 마루에서 마당으로 끌려 내려온 현배는 노한 지원군중의 못매속에 들고 말았다.

그때 현배가 입고 갈 나들이옷을 손질하러 갔던 분녀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숨 가쁘게 달려왔다. 매 맞는 남편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 이 사람은 지주가 아니예요. 저의 남편 리현배예요. 아유. 제발, 그만들 해요...》

그제사 구상리사람들은 고개들을 기웃거리며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그 어처구니 없는 장난의 덕으로 못매를 실컷 맞고 난 리현배는 그후 한동안이나 일어 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문병》을 갔던 리정국은 시치미를 떼며 그에게 물었다.

《그래 <지주>맛을 보니 어떻던가?》

《아이구, 형님... 내 학질을 뺏수다.》

리정국은 그의 잔등을 가볍게 때리며 꺾꺾 웃었다. 현배는 얼굴이 수수떡처럼 불깃해서 뒤더수기를 굵적거렸다. 그후 리현배는 직심스레 농사일을 잘했다. 그런데 이듬해에 현배네 사랑채에 읍에서 쫓겨온 박완섭이란 자가 들게 되었다.

그의 애비는 해방전에 신평바닥에서 선주노릇을 하며 악착스럽게 돈을 모았었는데 도교류학을 간 박완섭이 유곽에 드나들며 난봉을 피우는 바람에 화병으로 죽고 재산도 거덜이 나고 말았다. 해방후 박완섭은 적산물자를 가지고 놀다가 1년간의 교화형을 받았다. 출소후 그는 오주리로 오게 되었다. 집이 없었다.

동네에서는 그를 현배의 사랑채에 들게 하였다.

그런데 박완섭에게 현배가 또 녹아 나기 시작하였다. 박완섭은 드문히 술상을 차려 놓고 현배를 《형님》이라 추어 주며 집에 초청하곤 하였다. 술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현배는 그의 낚시에 어쩔수없이 걸려 들었다.

정어리장사판에도 끼여 들고 정미소에도 드나들면서 박완섭의 심부름을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 나기 한해전에는 읍에 있는 정미소 반대머리주인한테 갔다가 술에 만취되어 그집 뒤골방에 꼬꾸라진 일도 있었다. 그런데 어떤 놈들이 새벽에 창고의 쌀을 다 털어 갔다.

리현배는 도적혐의를 받고 내무서 걸음도 걸었다.

전쟁이 일어 나자 박완섭은 덤비지 않고 정세를 관망하면서 때를 기다렸다.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가 시작되었다.

박완섭은 패배를 불렀다. 그가 제일 미워 하고 앙심을 품은 사람은 이정국이였다. 몰래 그를 《감시》하고 《추격》하면서 리현배를 그의 손에서 떼어 내려고 했던것이다.

그렇다. 이정국은 애당초 박완섭이 아무리 요술을 피우고 둔갑을 해도 우리 사람으로 개조되리라고 믿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놈들이 마을에 들이닥치는 순간까지 리현배를 기다리다가 산으로 들어 갔었다. 그가 어떻게 교활한 박완섭이 현배에게 수만금을 약속하면서 미리 신포쪽에 빼돌렸다는것을 알수 있었겠는가...

전쟁전에 정ერი되지거리장사를 할 때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며 현배를 휘여 냈던것이다.

인민유격대소대장이 된 이정국은 적들의 후방을 교란시키는 여러차례의 전투들에서 대담성과 용감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유격대지휘부는 증시에 대한 정찰임무를 그에게 맡겼으며 미처 후퇴를 못하고 놈들에게 체포된 오주리의 몇몇 애국자들을 구출하고 리현배도 데려오려는 그의 계획도 지지하여 주었다.

천한산 깊은 골짜기기에 있는 절간은 유격대의 연락소로 리용되었다. 매일 마을에 동양을 내려가군하는 로승이야말로 의심을 사지 않는 《련락원》이라고 이정국은 생각하였다. 그는 리현배가 마을에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박완섭은 리정국이 현배를 내버려두지 않으리라는것을 알고 있었다.

은밀히 리현배네 집에 감시를 붙였다. 그는 천한산의 로승이 몇번 현배네 집에 왔다가는것을 보았다. 어느 날 로승의 뒤를 밟은 박완섭은 절간을 수색하였다. 석가모니의 법도도 계륵도 그에게는 아무런 흥미도 없었다. 절간의 오랜 불상이며 보살들이 마사지고 란장관이 되었다.

어둑컴컴한, 이미 세월의 망각속에 묻혀 버린 차거운 승방에서 방금 비벼 끈듯 한 담배꽂초와 사람의 체취를 냄새 말고 박완섭은 로승에게 달려들었다. 지옥의 불가마가 무섭지 않느냐고 대노하여 부르짖는 로승의 목살을 틀어 잡았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박완섭은 줄개들을 추격에 내몰았다.

식량과 의약품들을 진 세명의 대원들을 엄호하면서 이정국은 치열한 싸움을 벌렸다. 탄환을 다 쏘버린 이정국은 마지막 탄알을 자신을 위해 남겼어야 했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총참을 비껴들었다. 그러나 놈들은 수적으로 너무도 많았다...

《형-님!...》

누군가 목메여 부르는 소리에 이정국은 걸음을 멈췄다. 한 스무행보쯤 뒤에서 《치안대》놈들이 여러명의 애국자들을 몰아 오고 있었다.

누군가 그 행렬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다가

총탁에 얻어 맞고 있었다.

《현-배!》

리정국은 놀라서 부르짖었다. 뜻밖이었다. 리현배가 어떻게 저 사람들속에 있었던말인가?

리서기장, 녀맹위원장, 몇몇 당원들과 애국농민...들

그들은 미처 후퇴를 못하고 놈들에게 붙잡힌 사람들이였다.

《야, 이 도적놈의 새끼야. 순순히 걸지 않으면 아예 여기서 쏘갈라고 말테다.》

그들을 호송하던 《치안대》한놈이 다시 현배를 향해 총탁을 쳐들었다. 그때 뒤따라 오던 박완섭이 그를 제지시켰다.

《앞으로 가게 내버려두오. 죽기전에 세포위원장앞에서 <참회>를 하려는 모양이요.》

리현배는 절뚝거리며 리정국한테로 다급히 걸어왔다. 두손을 결박 당해서 걸음이 자유롭지 못했다.

《형님! 보고 싶었습니다.》

《현배, 이게 어찌된 일이나?》

리정국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된 현배의 얼굴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 났다. 서로 마주 보던 두사람은 복받쳐 오르는 심장의 격동을 이기지 못하며 서로 와락 그러안았다.

리정국은 손의 결박으로부터 오는 반충력으로 얼굴을 현대의 두뺨에 묻으며 비칠거리다 눈우에 쓰러졌다. 현배도 같이 넘어졌다. 그들은 얼굴을 맞비비며 눈속에서 덩굴었다.

한순간 그들은 만시름을 잊은 사람들처럼 눈속에 반듯이 누워 있었다. 활짝 개인 초겨울의 맑은 하늘에서 천한산에서 내려 온 수리개 한마리가 유유히 떠돈다.

몇놈의 《치안대》들이 달려 오더니 옥설을 퍼부으며 그들을 일궈 세웠다.

《여보, 세포위원장.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알고 그렇게 반가워 하나?》

박완섭이 리정국의 곁으로 오며 씨벌여 댄다.

《도적놈일세...제버릇 개똥준다구. 어제는 정미소건으로 내무서에 끌려다니더니 오늘은 우리 《치안대》 본부의 벽시계를 도적질했단말이요. 그래 그 손버릇을 고쳐 낼것 같소? 이제 <염라국>에 가셔도 그 버릇은 못고칠거요.》

리정국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얼마전 자기도 《치안대》사무실에선 그 벽시계를 보았었다. 그 시계는 틀림없이 민주선전실에 있던 벽시계였다. 리정국이 어찌 그 벽시계를 못 알아볼수 있단말인가.

토지개혁을 한 그해 가을, 리정국과 함께 읍에 나갔던 현배는 벽시계를 샀다.

《형님, 우리 마을에 이 시계를 걸어 놓읍시다.》

《음, 인젠 자네도 생각이 깊어 졌네 그러.》

리정국은 못내 만족해 하였다. 그날 리정국은 민주선전실에 걸어놓은 벽시계를 흐뭇한 시선으

로 바라보는 마을사람들에게 말했다.

《쉬임없이 가고 또 가는 시계처럼 부지런히 일해 갑시다. 우리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더 깊이 갈고 잘 갈구어서 풍년나락을 거두어 들여야 할 게 아니겠소. 우리가 나라의 주인인데…》

해가 뜨고 지는것을 가늠하며 살아 가던 마을 사람들은 시계종소리에 맞추어 별로 나갔다. 그들은 땅에 자기의 땀과 함께 진심을 물었다.

새 조국건설의 벽찬 시간을 알리던, 마을에 하나밖에 없던 벽시계였다. 거의 민주선전실에서 밤을 새우곤 했던 리정국에게 있어서 그 벽시계는 얼마나 정답고 귀중한 물건이었는가!

《현배! 그래야지! 그것은 잘한 일이다…》

리정국은 박완섭이 들으라는듯 소리내어 말했다.

현배의 두뺨으로 주르록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뜨거웠다. 세포위원장한테서 받은 뜻밖의 칭찬에 그는 어쩔줄 몰랐다. 리현배는 리정국의 어깨에 몸을 실으면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놓고 있었다. 숫눈우에 나란히 찍혀 지는 발자국들…

놈들의 눈을 피해 도란도란 울리는 현배의 목소리… 지나간 나날의 회오와 자책, 리정국은 그것이 자기를 깨달은 인간의 진심에 넘친 말이란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죽음의 시각은 멀지 않았지만 서로 의혹이 아니라 믿음을 안고 죽을수 있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박완섭에게 또다시 속히왔다는것을 깨달은 리현배는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다 보름만에 집으로 돌아 왔다. 마을어귀에서 그는 《치안대》놈들에게 붙잡혀 박완섭에게 끌려 갔다.

《중위님, 이 사람이 내가 일전에 말씀 올린 리현배입니다. 강지주의 오랜 머슴인데 우리 편이지요…》 하고 박완섭은 《시찰》나온 미군 중위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담보하는가?》

새파랗게 젊은 장교놈은 거만한 눈길로 리현배의 아래우를 세세히 훑어 보았다. 그 눈길이 닿을 때마다 현배는 몸을 웅숭그렸다. 마치 몸에 송충이라도 기여가는듯 싶었다.

《머슴군들은 다 농촌의 프로레타리아트요. 그들은 모두 인민정권하에서 빨갱이들이 뻬단말이요.》

《아니, 이 사람은 사정이 좀 다르지요》 얼마나 강지주가 그리웠으면 그가 두고 간 바지저고리를 입었다가 <지주>로 몰리워 사람들한테서 못매를 맞았겠습니까…》

현배는 얼굴이 화로불을 뒤집어 쓴듯 뜨끈해 지는것을 느꼈다.

《그게 정말인가?》

중위는 무척 흥미를 느끼는것 같았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 어리숙한 녀석을 《반공》선전에 써먹을수도 있을것이 아닌가,

《그래서 난 벌써 우리 오주리 <치안대>명부에 리현배의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믿어 보시오.》

리현배는 한대 얻어 맞은 사람처럼 비칠거리며 집으로 돌아 갔다. 그런데 분녀는 본채에서 쫓겨나 아들 인범을 데리고 사랑방에서 우들우들 떨고 있었다. 현배를 보자 옷자락에 매달려 눈물부터 쏟았다.

《왜 왔어요. 세포위원장아주버니는 당신때문에 산에서 내려 왔다가 며칠전에 체포했어요.》

《뭐요?》

현배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는 머리를 싸쥐었다. 뭐가 뭐지 도무지 감피를 잡을수 없었다.

(아아, 내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는 자신이 저주스러워 지기 시작하였다.

얼마후 리현배는 박완섭을 찾아 본채로 들어 갔다. 방금 점심상을 물린 박완섭은 식곤증에 몰려 아래목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데 있소? 왜 남의 집을 빼앗는거요?》

박완섭은 하품을 늘어지게 하더니 빈정거렸다.

《놀라지 말게. 불원간에 서울에서 강어른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왔네. 그래서 내가 립시로 듣거네. 외양쇠가 그동안 자기집에서 살았다는걸 알면 그 고명한 어른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나. 아무리 비단옷을 입어 봐야 자네 몸에선 소풍냄새가 나거든.…》

《난 외양쇠가 아니라 리현배요!》

현배는 울컥하여 박완섭을 쏘아 보았다.

《자네 강지주가 오면 다시 외양쇠로 불리우게 될걸세…》

《아니, 누구도 나의 이름을 빼앗지 못하오. 저대문우의 문패를 보오.》

《아, 그것이 아직 걸려 있었던가…》

박완섭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정말 자네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봐 옛말에 벌이 들로 쫓기니 개가 놀라고 한다는 말이 있네. 그건 바로 나의 불행한 처지를 두고 했던 말일세… 와세다대학을 다닌 내가, 선주의 아들이던 내가 어떻게 자네의 <친구>가 되고<동생>이 될수있나 말이야. 내 가슴속에선 피눈물이 저앞의 소동천처럼 흘러 내렸단 말이야. 그러니 찍소리 말구 래일부터 <치안대>로 나오게.》

박완섭은 머리말에 끌려 놓았던 권총집을 끄당겨 만지작거리며 현배를 은근히 위협하였다. 리현배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아아, 내가 속았됐구나…)

그는 머리를 부둥켜안으며 신음소리를 내었다.

세포위원장의 말을 왜 그토록 귀등으로 들었던지 몰랐다. 그는 《치안대》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몇놈의 《치안대》가 몰려 오더니 그의 우격뿔이 암소를 끌어 갔다. 그 다음날에는 분녀가 창고안에 감춰 놓은 새끼돼지와 세

마리의 씨암닭을 빼앗아 갔다.

리현배는 억이 막혔다. 이제 무엇이 자기에게 남겠는가. 집, 자신의 이름, 소와 돼지... 옛날처럼 알몸뚱이 외양쇠만 남을것이 뻔했다. 그는 이발을 뿌드득 갈았다.

(현배! 너는 정말 어리석었어...)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데선가 이런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 왔다. 박완섭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세포위원장의 목소리 같기도 하였다. 불안과 절망, 자책과 후회, 고뇌속에 잠 못드는 기나긴 세월의 밤들... 그러나 نوم들은 고민속에 그를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강제로 《치안대》본부에 끌려 갔다. 박완섭은 금방 단고기를 배터지게 먹고 이발을 쭈시고 있었다.

《넌 이제부터 나의 심부름꾼이다. 우선 이 방의 난로에 아침마다 불을 때고 내 세수들을 덥혀야 해... 그 다음 청소와 주민들이 바친 개나 돼지를 잡아 식사를 보장해야 한다...》

그는 현배를 조롱하고 괴롭히는데서 일종의 쾌락을 맛 보고 있었다.

《그리고 저 벽시계를 보구 두시간에 한번씩 종을 쳐라. <구류장>의 보초교대도 하구 우리도 나갔다가 시간을 알아야 하니까.》

현배는 벽 시계를 쳐다보았다. 《민주선전실》바람벽에 걸려 있던 벽시계였다. 그것은 30여호 되는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시계, 그 시간에 맞추어 아침마다 저 앞마당의 버드나무에 매단 종을 울리곤하였다. 새 생활으로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던 그 랑랑한 종소리를 지금 현배는 듣고 있다.

저녁이면 그 종소리를 들으며 성인학교에 가곤 하던 리현배였다.

2년전 가을, 공화국이 창건된 명절날 아침이었다. 밤에 《민주선전실》경비를 서며 마당을 쓸고 있는 현배에게 이정국은 흥분하여 이렇게 말했다

《현배! 8시가 되면 종을 힘껏 울려 주게. 마을 사람들이 모이도록 말이요.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을 공화국의 내각수상으로 추대하는 소식이 라지오로 나오네.》

그날 아침 리현배는 얼마나 격동하여 종을 울렸던가! 현배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런데 이제 누구를 위해 저 종을 울린단 말인가?

(이놈아, 난 죽으면 죽었지 그런 종은 안칠테다.)

현배는 속으로 코방귀를 퍼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얼마후 박완섭은 줄개들을 데리고 어데론가 떠나가버렸다. 리현배는 벽시계앞에 다가섰다.

똑딱... 똑딱. 시간은 거침없이 흘러 가고 있었다.

그 시간은 앞일을 기약할수 없는 죽음의 시간이었다. 저도 모르게 벽시계의 문을 연 그는 시계추를 떼냈다. 그리고 태엽틀개도 찾아 쥐었다.

벽시계의 소중함이 가슴 저리게 안겨왔다.

(현배! 그 시계는 세포위원장과 사온 우리의 벽시계다!... 우리것을 지켜야지...)

누군가 그에게 벽시계를 감추라고 귀뜸하고 있었다. 한번 마음 먹으면 그는 인차 행동으로 넘어가는 결단력이 있었다. نوم들은 오전에는 돌아오지 않을것이다. 그러니 이제 곧, 당장에...

그의 심장은 두방망이질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조용했다. 리현배는 벽시계를 내리웠다. 방안 한켠 구석에 نوم들이 돼지새끼를 넣어 왔던 마대자루가 눈에 띄었다. 그는 벽시계를 자루속에 감추고 밖으로 나갔다. 소동천 외나무다리에서 그는 뜻밖에 어데 갔다 오는 《치안대》인 《사팔뜨기》를 만났다.

《너 그게 뭐냐?》

더는 피할 곳이 없었다. 발밑에선 강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오냐, 인것 말이냐? 여서 좀 들여다 보라.》

《사팔뜨기》가 허리를 구부리는 순간 리현배는 그를 힘껏 나무다리 아래로 걸어 찼다. 사팔뜨기는 강물은 인차 《사팔뜨기》를 삼켜버렸다.

한시간후 벽시계를 숨겨 두고 산에서 내려 오던 리현배는 نوم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어느덧 소동천기슭이 가까와 오고 있었다.

《형님! 첫눈이 많이 내린걸 보니 명년에도 갈데 없는 풍년이우다!》

현배가 내뿜는 뜨거운 입김을 감각하며 이정국은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풍년이 들거다... 이 땅에서 실컷 밭갈이나 하면서 백년을 살자고 했는데.》

그렇다. 이정국은 살고 싶었다. 땅을 주신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풍년가을을 안아 오며 오래도록 살고 싶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며 옆에서 걷고 있는 리현배를 바라보았다.

이제 겨우 서른다섯살! 자신보다 7년 아래였다. 피멍이 든 얼굴, 그러나 부리부리한 두눈은 웃고 있었다. 번득한 이마에 내리드러운 검은 머리

같은 비록 광택을 잃고 뿌옇졌으나 삶을 갈망하며 바람에 가볍게 나뭇기고 있다. 그것은 자기를 찾은 사람의 역센 모습이였다. 그 모습엔 삶의 강렬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생명의 역센 호흡

이 죽음의 그림자를 타승하고 있었다. 사람이 죽음앞에서 떳떳할수 있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정국은 결박된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 쥐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리현배의 모습에서 죽음을 이겨 낼 더 큰 힘을 얻으리라고 그가 생각이나 했던가?

얼마후 이정국을 비롯한 아홉명의 애국자들은 강기슭 둔덕우에 나란히 섰다. 그들의 뒤편 열지 않은 소동천이 사팔뜨치며 흐르고 있었다. 그

여울물소리는 오늘 따라 더 사람들의 가슴속을 파고 들었다.

박완섭이 강제로 끌어 내온 마을사람들이 강기슭 여기저기에 웅기증기 모여 서 있었다. 분녀는 네살난 어린 인범의 손목을 꼭 그러쥔채 놈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었다.

《헌배, 저 사람은 당원도, 유격대원도 아닌데.》

《<치안대>의 벽시계를 훔쳤다는만...》

《벽시계가 뭐요. <사팔뜨기>를 죽였다는만. 아직 시계는 못 찾은 모양입니다.》

마을사람들은 의혹을 품고 수군거렸다.

따사로운 햇빛, 흰 눈의 반사광, 소연한 강물소리... 숨 막히는 정적을 깨뜨리며 누군가의 흐느낌소리가 마을사람들속에서 터졌다. 놈들이 일제 사격자세를 취했던것이다.

이윽고 총성이 몰방으로 터졌다.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며 고향땅과 조국과 작별하는 애국자들의 피타는 웨침소리들이 천한 산에 메아리쳐 갔다. 쓰러진 애국자들의 가족들, 친척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을 부르며 몸부림쳤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리헌배는 홀로 언덕우에 서있었다.

(왜 나는 쏘지 않는가? 왜, 무엇때문에?)

순간 리헌배는 저 애국자들과 함께 몇몇이 죽을수 없는 자신을 깨닫자 심장을 꿰뚫는 전율을 느꼈다. 삶과 죽음이 엇바뀌는 엄혹한 순간이었다.

박완섭이 히물거리며 다가왔다.

《살고 싶을테지?》

《물론이다.》

《우리 <사팔뜨기>가 어데 있어?》

《모른다.》

《그럼 벽시계를 내놓고 우리 일을 해-》

《그건 못한다.》

《그렇단말이지... 까짓 벽시계가 뭐라구.》

박완섭의 얼굴이 무섭게 이그러졌다. 그것은 또다시 피를 보고 싶어 미쳐 나기 시작한 이리의 야생적인 발작이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할 말이 없는가?》

《날 우리 형님결에서 죽게 해달라.》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어떻게 그의 곁에서 죽을수 있단 말이나... 사실 난 너를 죽일 작정은 아니였다.》

박완섭은 무서운 눈길로 리헌배를 노려보았다.

《난 너의 마음속에서 일어 난 변화를 보았다. 나는 그것이 증오스러웠다. 미칠듯이 무서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너의 가슴에 총알을 박는거다.》

박완섭은 이발을 드러내며 발작적으로 웃다가 권총을 마구 쏘아대기 시작하였다. 다섯발의 총탄이 순간에 리헌배의 가슴을 뚫었다.

아버지를 목놓아 부르는 어린 아들과 안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리헌배는 쓰러진 리정국을 향해 몇발자국 비칠거리며 다가갔다. 박완섭이 마지막 탄알을 발사했다.

리헌배는 리정국의 곁에 가닿지 못하고 쓰러졌다. 흰눈을 적시는 선혈! ... 그것은 계속 리정국 한테로 흐르고 있었다.

《호사수구(여우도 죽을 때는 제굴쪽으로 머리를 둔다)로군...》

채 식지 않은 권총의 총구를 혹 붙여 옆구리에 찌르며 박완섭이 뇌까렸다. 그것은 어린 인범의 망막에 찍히고 뇌리에 인박한 영원히 잊지 못할 원쑤의 모습이였다.

놈들이 쫓겨 간 다음 날 리인민위원회사무실로 천한산의 로승이 찾아 왔다. 그도 《수난》을 겪느라 더 늙어 버리고 초췌해졌다. 그가 내놓은 무명보지기속에서 벽시계가 나왔다. 리헌배가 맡긴 벽시계였다....

(전쟁이 승리한후 천한산의 중에게 국기훈장3급이 수여되였다. 그도 이땅의 물과 공기와 쌀을 먹으며 살아 온 중이었던것이다.)

전후 농업협동화의 나날, 그 벽시계는 하루도 쉽없이 《민주선전실》의 바람벽에서 심장의 박동소리처럼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리었다. 그 시계에 맞춰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인범은 인민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갔으며 농업대학으로 갔다. (전후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된 그해 가을 큰 시계를 새로 사다 걸었다. 그때에야 리인범은 그 벽시계를 집에 가져다 걸었다.)비록 벽시계는 낡았으나 그의 마음속에선 아버지가 피로써 찾은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 즐기차게 흐르고 있었던것이다.

순간도 자기의 계급적처지를 잊지 말라고, 헛눈을 팔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벽시계는 영원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

이것이 우리의 3대에 걸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나의 초상이다. 박완섭이 같은 계급적원쑤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계급의 총대를 더 억세게 틀어 잡을것이다.

놈들은 우리 새 세대들의 정신을 흐려 놓으려고 별의별짓들을 다하고 있다. 떠나기는 쉬워도 다시 돌아 오기 힘든것이 자기 계급의 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할아버지처럼 피의 대가를 치뤄야 하는것이다.

아버지가 입 버릇처럼 외우던 《우성의 법칙》처럼 나 역시 앞날에 선군시대에 형성된 나의 계급의식, 나의 신념이 그대로 후대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이제 다시 서해바다의 나의 정다운 군향으로 돌아 가련다.

단풍은 가을이 되면 저절로 붉어 지는것이 아니다. 강서리며 늦서리를 맞아야 단풍은 더욱더 붉게 난다.

뿌슈킨,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19세기 전반기 로씨야의 진보적작가.

1799년 6월 6일 몰락한 귀족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오랜 가문의 귀족이었고 어머니는 뽀뜨르1세의 총애를 받은 에티오피아래생의 흑인장군 긴니바르의 손녀였다. 부모들은 사교생활에 파묻혀 있었기때문에 뿌슈킨은 외할머니와 유모의 손에서 자라났다.

유모는 본래 농노출신이었는데 그가 어린 뿌슈킨에게 들려 준 로씨야민요와 전설들은 뿌슈킨의 정서생활과 시적환상의 세계를 넓혀 주었고 조국과 로씨야인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키워 주었다.

또한 뿌슈킨의 가문은 문학가의 집안으로서 당대에 이름이 있었다. 아버지 세르게이 리보비츠도 시를 썼고 삼촌 와실레 리보비츠도 이름난 시인이었다. 뿌슈킨의 집으로는 주쑹스끼, 까람진 등 당시의 이름 있는 작가들이 자주 찾아 오곤 하였다.

이러한 문학적분위기는 어린 뿌슈킨에게 문학의 세계를 안겨 주었고 문학적재능을 키워 주었다.

1811년 뽀제르부르그에 갓 창설된 고등귀족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으며 이 시기 서유럽계몽주의사상에 공감하는 진보적인 교원들과 12월 당원들인 청년귀족장교들의 사상적영향을 받아 자유애호적인 시인으로 자라났다. 1815년 고등귀족학원시험장에서 나뽄레옹을 처부시기 위한 로씨야인민의 애국주의를 격조높이 노래한 시를 낭송하여 시험관들과 사람들을 놀래웠으며 《시단의 혜성》으로 알려 지게 되었다.

1817년 6월에 고등귀족학원을 졸업하고 외무성참의원으로 일하면서 시창작에 열중하였다.

뿌슈킨은 초기에 영국시인 바이론의 시에 매혹되어 바이론풍의 낭만주의적시들을 창작하였다. 이시기 대표작들은 송가 《자유》(1817년), 《차다예브에게》(1818년) 등이다.

뿌슈킨은 이 시들에서 짜리전제제도를 반대하고 자유로운 새 사회를 세울데 대한 열렬한 지향을 노래하였다. 이런 반정부적인 시를 쓴것으로 하여 1820년 4월 남부로씨야 예카제리노슬라브에 추방되어 류형살이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뿌슈킨은 류형지에서도 시창작을 멈추

지 않았으며 서사시 《루슬란과 류드밀라》(1820년), 《깁카즈의 포로》(1820~1821년), 《형제강도》 등 정의와 진리의 승리, 목숨보다 귀중한 자유를 레찬하는 시들을 계속 써내어 로씨야시단에 파문을 일으켰다.

1824년 7월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1825년 12월 폭동전야에 다시 아버지의령지 미하일롭스꼬예촌에 연금되었다.

12월폭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그것은 뿌슈킨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뿌슈킨은 《씨비리예로》(1827년) 등 시들에서 12월당원들이 지닌 지향은 헛되지 않을것이며 전제제도는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올것이라는 신심을 노래하였다.

뿌슈킨은 1826년에야 수도 뽀제르부르그로 돌아올수 있었다.

이 시기는 뿌슈킨의 창작적재능이 가장 왕성하게 무르익던 시기였다.

뿌슈킨의 대표작들인 운문소설 《에브게니 오네긴》, 서사시 《청동기사》, 장편소설 《대위의 딸》등이 이 시기에 창작되었으며 그외에도 단편소설집 《벨킨씨의 이야기》, 중편소설 《두브롭스끼》, 《스페드 너왕》 등 많은 작품들을 썼다.

뿌슈킨은 이 작품들에서 부패무능하고 썩어빠진 귀족계급의 생활과 전제제도하의 로씨야봉건사회를 날카롭게 폭로비판하였으며 근로하는 로씨야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뿌슈킨의 이러한 정치사상적동향에 불안을 느낀 짜리지배층은 음모를 꾸며 프랑스대사의 양아들 근위사관 단떼스와의 결투를 부추겼다. 결국 뿌슈킨은 1837년 2월 결투에서 치명상을 입었으며 이틀후인 2월 10일 38살을 일기로 사망하였다.

뿌슈킨은 19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귀족출신의 진보적인 로씨야작가의 한사람으로서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것으로 하여 로씨야근대문학의 시조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구두어와 인민창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지의 작품에 적극 구현함으로써 문학의 인민성을 높이고 로씨야어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겨울의 시내물

윤경찬

1

학성은 전상자병원의 침대우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창문으로 비쳐 든 아침해살이 하얗게 희칠한 입원실 천정을 대각선으로 갈라 놓고 있었다.

이제 해빛이 비치는 부분이 한켠 구석으로 좁아지면 아침식사시간이 될것이고 그것이 완전히 없어 지면 담당간호원 옥심이가 투약하러 올것이다.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는 같은 흰색으로 보이던 천정에 해살의 장난으로 생겨 나는 뚜렷한 명암의 대조는 오래동안 침대에 누워 있는 부상병들에게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학성은 정면으로 비쳐 두는 해살이 시끄러워 고개를 돌리며 눈을 꼭 감았다.

눈만 감으면 습격조에 무전수로 속하여 직후에 들어 갔던 그 운명적인 밤과 그후의 일들이 생생하게 살아 일른거린다.

철조망을 겹겹이 두른 적의 포진지, 충천하는 화광, 놈들의 검질긴 추격, 무전기의 파파, 오른팔과 용부에 입은 총상, 진펄속에서의 사흘밤... 전우들의 부축을 받으며 가까스로 부대에 돌아왔을 때 학성은 상처에서 피를 너무 흘려 사경에 처해 있었다. 지체없이 사단군의소로 후송된 그는 상처부위의 심한 피저로 하여 부득이 팔을 절단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흉부수술은 거기서도 할수가없어 또다시 전상자병원으로 후송되어 폐절제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날부터 그는 주위세계와 담을 쌓고 영 판사람이 되어버린듯 싶었다.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려 해도 수술부위의 동통이 심해 져고 일어나서도 한팔이 없는 불편으로 해서 옆사람들의 방조를 받기가 일쑤였다. 학성은 자기 불편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의 방조를 받는것이 송구스러워 될수록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 의사들은 오래 누워 있으면 욕창이 온다고 했지만 그는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다.

외진 산골에서 한생을 야장일로 늙어 오는 아버지들을 보며 어릴적부터 기계공학에 뜻을 품었던 그는 한팔을 잃어 버린 지금 청춘의 꿈과 희망을 포함하여 일생의 모든것이 함께 절단 당했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남들은 승리한 조국땅에서 마음껏 활개치며 삶

을 즐기겠지만 자기는 평생 남의 도움이나 받으며 무익하게 살아야 하는것이다.

언제 한번 시퍼런 불길을 내뿜어 보지 못하고 적은 새단처럼 연기만 실실 내면서 타버릴 한생...

어느 날 깊은 후방에 자리 잡은 전상자병원에도 놈들의 비행대가 날아 들었다.

《방공호로 빨리!》

걸을수 없는 환자들은 담가에 실려 가고 그럴지않은 환자들은 서로 부축하여 방공호로 달려갔다.

기다란 목조건물은 폭풍에 한 귀퉁이가 무너져 버리고 입원실은 불길에 휩싸였다.

학성은 침대에서 일어 섰다.

그 순간 서까래가 무너지고 문짝이 불 타면서 출입문을 가로 막았다.

창문으로 다가갔으나 학성은 혼자서 몇번 애쓰던 끝에 넘어 서지 못하고 미끄러진채 주저앉았다.

담당간호원 옥심이가 입원실에 뛰어 든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중환자들을 대피시키고 나서 방공호에 학성이 없다는것을 발견하고 뛰어 온것이다.

옥심을 제압담 학성을 들쳐 업으려고 잔등을 돌려 댔다.

학성은 그를 밀쳐 버리며 화를 냈다.

《동무나 빨리 피하오. 내 걱정 말구.》

옥심은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굳어 졌다.

《왜 그래요?》

《내 일엔 상관하지 말란 말이요.》

그제야 옥심은 그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비겁쟁이, 일어 섯!》

언제봐도 친절하고 다정스럽기만 하던 처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엄해 지며 맵짠 구렁소리가 튀어나왔다.

학성은 일어 서라는 소리보다 비겁쟁이라는 말에 화가 나서 움쭉 몸을 일으켰다. 내가 혹시 나약한지는 몰라도 비겁쟁이는 아니야!

그러나 처녀는 학성의 기분은 아랑곳 않고 재차소리쳤다.

《창문으로! 빨리! 동무가 안 떠나면 나두 여기 남겠어요.》

학성은 처녀의 단호한 태도를 원망스레 바라보며 그것이 결코 빈 말이 아니라는것을, 그러니

처녀의 말대로 행동할수밖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제 목숨을 제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것을 어쩔수없이 인정했다.

그러나 창문으로 다가서던 학성은 주춤거리지 않을수 없었다.

입원실 창턱이 너무 높았던것이다.

창문을 넘자면 몸을 주어 올려야했는데 자기에게는 팔이 하나밖에 없지 않는가. 학성은 입술을 피나게 깨물며 처녀를 향해 돌아 섰다.

옥실이라도 예상치 못했던 정황앞에 당황해 진것 같았다.

허나 그것도 한순간, 처녀는 재빨리 창문밑에 달려 가 쪼그리고 앉으며 맵싸게 소리쳤다.

《자 빨리!》

학성은 아연한 표정으로 한자리에 굳어 졌다.

아무리 어쩔수 없는 정황이라 해도 사나이가 어떻게 처녀의 연약한 어깨를 밟고 넘어 간단 말인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끝장을 보려 했는데...

(옥심동무, 일어 서오! 제발 나를 더 괴롭히지 말고 어서 떠나오!)

그러나 학성은 그 말을 입박에 낼수 없었다.

위생복자락에 불이 펄펄 당기는데도 창문밑에 화석처럼 굳어 진채 자기를 바라보는 처녀의 타는듯 한 눈길과 마주쳤던것이다.

그 눈길에는 어서 빨리 자기를 타고 넘으라는 간절한 애원과 흥정의 여지가 없는 무조건적인 명령이 그리고 제 말대로 하지 않으면 둘이 함께 죽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너무도 진하게 비껴있었던것이다.

그는 몸매 작은 처녀를 올고 싶은 심정으로 바라보다가 눈을 꼭 감으며 처녀의 어깨를 디디고 창문을 넘었다.

그는 불구자의 굴욕적인 처지를 강제적으로 감수하게 한 (그는 달리 생각할수 없었다.) 처녀에 대한 원망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부터 학성은 침대마저 불 타버린 입원실바닥에 모포를 깔고앉아 한층 더 무거운 기분에 잠겨 있었다.

담당간호원은 틀림없이 자기의 어리석은 기도를 병원정치부에 보고했을것이다.

아무리 부상병이라도 어쨌든 군복을 벗지 않은 군인이니 무난히 넘어 가지는 않을것이다.

전선에서 영웅은 되지 못할망정 치욕의 감투를 쓰고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수치란 말인가. 생각할수록 옥심이 야속했다.

그는 완전히 자포자기에 빠져 그 순이 오기만을 묵묵히 기다렸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누구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었다.

(어째서 찾지 않을까? 수술환자라고 관대하게 용서해 주었는가. 아니면...)

그는 담당간호원을 만나 사실여부를 알지 못하고 서는 견딜수 없었다.

간호원실에 찾아 가니 량수천가에 빨래하러 나갔다고 알려 주는것이였다.

학성은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병원주변의 산기슭에는 이른봄이라 진달래가 망울을 부풀기 시작했고 울창한 소나무숲속에서는 새들이 저마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숲속만이 아니다.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도 새들은 쌍을 지어 날아 예는데 학성에게는 지금 이 땅에서 가렬한 전쟁이 벌어 지고 있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어디를 보나 안정이 흐르는 평화롭고 정다운 산천, 다만 개울가 너럭바위우에 널어 놓은 봉대들만이 주변의 경치와 대조를 이루며 준엄한 현실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학성은 너럭바위결에서 봉대를 빨고 있는 옥심의 뒤모습을 띠여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호젓한 내가에서 처녀와 마주 서자니 옛그제 일이 눈앞에 떠오르면서 얼굴이 화끈해 졌다.

(저 처녀가 나를 어떻게 볼가?)

그는 지금껏 어떤 처녀와도 가까이 사귀어 보지 못했었다.

고정한 성미때문인지 전쟁전에도 군체신소 기계실에서 일하면서 처녀들과 사귀어 볼 기회는 많았지만 한번도 그런 기회를 리용해 보지는 못했었다.

이 후방병원에 온지도 두달이 넘었지만 그는 담당간호원이 곱게 생겼다는것도 느껴 보지 못했었다.

부상병들은 옥심이 전쟁전에 어느 예술단에서 배우생활을 한게 틀림 없다고 수군거리곤 했는데 그도 그럴것이 처녀는 날씬한 몸매에 아름다운 용모와 고운 목청까지 겸비하고 있었던것이 다.

사실 어느 병원 간호원을 하다가 입대했다는 옥심은 간호원직분을 천직으로 타고 난듯 환자들에게 정성이 지극해서 온 병원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가 입원실에 들어 서면 방안에는 대번에 명량한 기운이 차넘쳤고 부상병들은 저마다 처녀에게 룡말도 건네고 노래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성은 처녀에게 한번도 다른 말을 해보지 않았다.

그는 마치 불구가 된 자기는 처녀들에게 룡담을 던질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듯 싶었다.

그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가늘게 한숨을 내쉬고 우정 돌부리를 걸어 차며 처녀에게 다가갔다.

차디찬 산골물에 손이 빨갛게 얼어 가지고도

무엇이 즐거운지 노래를 흥얼거리던 처녀는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 보았다.

학생은 처녀앞에서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목소리가 떨리는것을 숨길수 없었다.

《정치부에 갔댔소?》

《거긴 왜요?》

학생은 갑자기 당황해 졌다.

그런즉 욕심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 문제를 두고 며칠씩이나 가슴을 조여 왔단 말인가.

《난... 난 동무가...》

의아한 표정으로 굳어 졌던 처녀는 학생이가 왜 자기를 찾아 왔는가를 깨달았던지 고개를 돌리며 피식 웃었다. 《다시는 비겁쟁이가 되지 마세요.》

학생은 그 말에 불끈해 졌다.

《동무한테 내가 비겁쟁이로밖에 안 보이오?》

《그런 생각을 하는게 비겁하지 않단 말이예요?》 처녀는 봉대를 행구며 야무지게 대꾸했다.

《사람을 속단하지 마오. 나두 전쟁이 끝나면 공부도 하고 싶었구 조국을 위해 큰 일을 해보려고 했댔소. 그런데 지금 같은 처지에서야... 예익.》

학생의 진지한 어조와 격한 표정에서 짙은 고뇌와 청춘의 솔직한 모대김을 읽었는지 처녀는 빨래를 놓고 돌아 앉았다.

《왜 그렇게 절망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중사동진 전선군인답지 않아요.》

그리고는 안타까운 심장을 표현할 길이 없었던지 빨래방치를 집어 들었다.

탕 탕 탕... 방치질소리는 골안을 가득 메웠다.

《중사동진 아직 군인이예요. 조국은 중사동지에게 보람 있게 살것을 바라고 있어요.》

《...사실 조국은 우릴 영예군인이라고 벌써부터 떠밀어 주고 있거든. 그런데 난 그 은혜에 보답할 능력을 잃었으니 도대체 안타까운 일이 아니요.》

탕 탕 탕... 대답대신 야무진 방치질소리가 또 다시 골안에 울려 퍼졌다.

한참이나 성난 기색으로 빨래방치를 휘두르던 처녀는 맑은 물에 빨래감을 행구어 냈다.

피고름이 묻고 온통 넓어 졌던 봉대는 비누칠과 방치질 그리고 맑은 물의 덕분에 새것처럼 깨끗해졌다.

처녀는 그것들을 너럭바위우에 널어 놓으며 입을 열었다.

《이렇게 빨아 널으니 얼마나 깨끗해 졌어요.》

《그래두 새것만이야 하겠소?》

《그렇다구 버리겠나요? 생활두 같은 리치라구 봐요. 중사동지처럼 맥을 놓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참... 제가 무슨 정치일군이 라구... 호호... 용서하세요.》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빨래감을 집어 들었다.

자기의 언행이 주제넘는다고 느낀 모양이었다. 《괜찮소. 그러니 나 같은것두 할 일이 있을가?》

《있지 않구요. 이제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한몫해야지요. 그리구 장가도 가구요.》

처녀가 제가 한 말이 우스운지 고개를 틀며 명랑하게 웃었다.

그래도 학생의 피로움은 가서 지지 않았다.

《날 위안하지 마오. 어디 툭 털어 놓고 말해봅시다.》

동무 같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오겠소?》 뜻밖의 질문에 처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긴장한 침묵의 한순간이 흘러 갔다.

학생은 괜한 소리를 했다는 후회가 없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제가 한 말을 취소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 보오. 동무에게도 내 말이 어이없는 소리로 들릴거란 말이요.》

남의 말 하기가 쉽지.》

낮색이 하얗게 질려 앉은 자세로 굳어 졌던 처녀는 천천히 일어 섰다.

《그래요. 난 동무한테 시집 안 가요. 그건 동무가 비겁하기때문이에요. 우리 녀자들은 비겁한 남자를 제일 싫어 한답니다.》

그리고는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듯 빨래감들을 와락와락 걸어 가지고 썩하니 달려 갔다.

학생은 멀어 저 가는 처녀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움직일줄 몰랐다.

처녀에게 호되게 한방망이 얻어 맞고서야 그간 말속에 담겨 저 있는 가혹한 진실을 리성으로 깨달았던것이다.

(그래, 난 비겁쟁이야, 남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이 전쟁에서 나만 불행을 당했는가.)

2

그날부터 욕심은 어딘가 모르게 달라 졌다.

예전의 명랑하고 다정스럽던 처녀는 입원실에 들어 와서도 누가 말을 건네서야 애 써 웃는 표정을 지으며 간단히 대꾸하고는 서둘러 나가버리곤 했다.

신경이 예민한 부상병들은 간호원이 상급에게 욕을 먹은것 같다느니 사랑의 고민을 한다거니 혹은 고향에서 불행한 소식을 알려 왔을수 있다 거니하면서 처녀에게서 웃음을 앗아 간 근원을 밝혀내지 못해 속들을 태웠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날 아침 욕심은 중병을 앓고 난듯 별로 험쵸해 진 얼굴에 예전처럼 맑은 표정을 짓고 호실에 들어 왔다.

처녀는 방울이 통통해 진 진달래가지를 한아름 들고 있었다.

《동무들! 봄이 왔는데 이렇게 방안에만 앉아있겠어요? 어서 나가 봄마중을 해보세요.》

처녀는 링게르병에다 진달래가지를 꽂아 창턱에 올려 놓으며 창문을 활짝 열었다.

이른 봄의 쌀쌀하고 청신한 아침공기가 확 쓸어들며 입원실의 탁한 공기를 일신시켰다.

부상병들은 선선한 공기나 진달래보다도 예전대로 명랑해 진 처녀의 모습에서 봄의 향기를 느끼며 마음들이 상쾌해 졌다.

사단정찰에 있었다는 친구가 모두의 심정을 대변해서 한마디 했다.

《우리 간호원동무가 오늘에야 밝아 졌구만.》

《아마나, 제가 뭐 어땀어요?》

《아니 우리 눈이야 못 속이지.

간호원동무가 웃지 않으니 온 병원이 다 어두워지는것 같단 말이요.》

《전 앓았어요. ... 감기를... 이제부런... 웃을래요. 그럼 좋지요? 호호...》

처녀는 우울증이 떠돌던 입원실에 맑은 웃음소리를 가득 채워 넣으며 학성의 곁으로 다가왔다.

《중사동진 무전수였는지요?》

《그건 왜 묻소?》

《그러니 라지오문세두 좀 알겠군요?》

《모르긴 하겠지만 무전기나 라지오나 이웃사촌쯤 될거요.》

《그럼 됐어요.》

처녀는 더 다른 말 없이 호실을 나갔다.

도대체 뭐가 됐다는건가. 학성이가 영문을 몰라 머리를 긁적거리는데 잠시후에 처녀는 사방쭈그러든 라지오를 안고 들어 왔다.

《이번 폭격에 마시 졌어요. 병원에 하나밖에 없는건데 한번 고쳐 보세요.》

학성은 눈이 둥그래 졌다.

《내가? 누굴 놀리는거요?》

《놀리다니요? 환자들속에 중사동지만큼 이런걸 아는 사람이 있는줄 아세요?》

《좌우간 난 못하오.》

학성은 제손으로 직접 다루어 본 경험도 없는 데다 정밀한 전기제품을 회로도 한장없이 그것도 한손으로 수리한다는게 말도 되지 않을 소리여서 단마디로 일축해 버렸다.

그래도 처녀는 물러 서지 않았다.

《손두 안 대보구 행복하겠어요?》

그러지 말구 한번 해보세요. 실습하는셈치구. 전선보도를 들고 싶지 않아요?》

학성은 더 이상 도리질을 못했다.

라지오는 파편을 맞아 몇군데 쭈그러졌지만 내장은 성성해 보여서 품을 들이면 꽤 살릴것 같기도 했다.

(실습용이라. 그래 내 운명을 실험하는셈치구한

번 해봐? 미옥한 놈 곰 잡는다는데.)

그날부터 학성은 라지오수리에 달라 붙었다.

물론 담당의사와 간호원의 통제밑에 하나의 치료운동으로 차례지는 시간내에서였다.

욕심이가 얻어다 준 납땜도구로 크고 작은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붙이는 일은 손의 감각을 예민하게 해주는 좋은 훈련이기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참고서 한권없이 복잡한 회로를 이어 간다는 일은 정말이지 미궁속에서 빠져 나오는것보다 더 힘 일이었다.

읍에 나가면 도서관이 있긴 하겠지만 그 먼델 어떻게 갔다 온단 말인가. 병원규정도 규정이지만 성하지도 않은 몸으로 책을 구하려 수십리 먼 길을 다녀 온다는것이 그에게는 멀고 어렵게만 생각되었다.

하루하루 날은 가고 욕심이가 호실에 들어 올 때마다 뜯어 놓은 라지오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곤 할 때면 학성은 처녀앞에 미안스러워 속이 타들었다.

(에익, 내 저놈을 꼭 살려 놓고 말테다.)

반발심이 솟구쳐 오른 그는 어느날 도서관에 다녀 오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어떤 구실을 댈것인가.

사실대로 말했댔자 외출허가는 고사하고 웃어 버리고 말것이다.

담당간호원만 눈 감아 주면 되겠는데...

신통한 궁리가 떠오르지 않아 머리를 싸쥐었던 학성을 투약하고 나가는 간호원을 복도에서 무작정 불러 세웠다.

《간호원동무! 내 오늘 읍에 좀 갔다 와야겠는데...》

《수술환자가 어딜 간다는거예요? 병원규정을 모르세요?》

《그러길래 사정하지 않소.》

《안됩니다.》

《야 막 한번만 눈을 감아 주오.》

《도대체 무슨 일때문에 그래요?》

《그... 저... 애인과...》

《애인이요?》

욕심은 흠칫 놀라면 눈을 크게 떴다.

그게 사실인가 하면서도 감히 그런 거짓말도 하겠는가 하는 반신반의의 표정이 처녀의 얼굴에서 지워 질줄 몰랐다.

후방병원이어서 사민들의 래왕이 영 없지는 않지만 언제 벌써...

《그게 정말이에요?》

처녀는 떨리는 어조로 따지듯 물었다.

학성이 자신도 그런 거짓말이 어떻게 튀어 나왔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이제 와선 물러 설수도 없었다.

《정말이요. 동무도 좀 생각해 보오.
여기에 그냥 있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날보고 뭐라고 하겠소?》
욕심은 반대할수 없었다.
규정을 빗대고 못 간다고 할수도 있었지만 처
녀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애인과 만나지고 약속했는지 않는가.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욕심은 고개를 들고 단
호하게 말했다.
《조금 있다 향수천가로 나오세요.
군복은 제가 가져다 주겠어요.》
그리고는 제 먼저 뺑 돌아 섰다.
얼마후 학성은 향수천가에서 환자복우에 군복
을 꺼입었다.
언제 손질해 두었었는지 군복은 다림발이 서
있었고 목달개도 눈처럼 하얀 새것이었다.
《향수천다리를 지나 오른쪽으로 접어 들면 읍
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저녁회진시간까지는 돌
아와야 합니다.》
여느때는 규정밖에 모르던 처녀가 애인과의 약
속이라는 말 한마디에 처벌을 각오하고 공모자가
되어 주니 학성은 마음이 별스러워 졌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사실대로 말할수도 없지
않는가. 그는 하얀 삼각수건아래로 드리워 진 쌍
태머리가 어깨우에서 춤을 추는 처녀의 뒤모습을
망연히 바라보며 처녀가 대단한 미인이라는것을
새삼스레 느꼈다.
웃을 때에는 끝없이 천진해 보이다가도 어떤
때 교단에 선 선생님처럼 엄격해 보이는 처녀의
다감한 얼굴표정을 언제나 단정한 위생복차림과
어울리며 그 어떤 은근한 위엄을 내풍기고 있었
다.
그는 공연히 번거로와 지는 생각을 털어 버리
려는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걸음을 옮겼다.
그는 한낮이 다 되어서야 읍거리에 들어 섰다.
도서관은 문을 닫았지만 그래도 경비원이 있었
다.
전쟁이 한창인 때 외진 산골도서관을 찾아 온
군대가 이상스러웠던지 늙수크레한 경비원은 무
던히도 꼬치꼬치 따져 물었다.
한참만에야 학성의 심정을 리해한 경비원은 제
손으로 서가를 활짝 열어 제끼며 말했다.
《자넨 참 쉽지 않은 사람일세.
전쟁이 끝나면 할 일이 오죽 많겠나.
령수증을 써놓고 마음대로 골라 가라구.》
그는 해가 퍼그나 기울어서야 도서관을 나섰
다.
욕심스레 한무대기 골라 놓은 책들을 경비원아
바이가 노끈으로 든든히 묶어 주었다.
배낭을 못 가져 온게 한스러웠다.
돌덩이처럼 무거운걸 한손으로만 들고 걷다나
니 5리도 채 못 가서 어깨가 푹 떨어 지는것 같

고 노끈이 손바닥을 파고 들었다.
그래도 처녀와 약속한 시간까지 돌아 가자면
걸음을 다그쳐야 했다.
자기때문에 간호원이 억울하게 비판 받으면 어
찌겠는가 하는 생각에 온몸에선 땀이 비 오듯 하
고 수술자리가 띠끔거리 숨쉬기조차 가뻔다.
육체적인 고통을 걸음걸음 체험하며 그는 자신
에게 물었다.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인생
의 먼 길을 끝까지 가낼수 있을까. 힘들거야. 하
지만 힘들다고 주저앉는다면...)
학성은 올 때처럼 지름길로 접어 들었다.
이제 령마루만 넘어 서면 병원이 내려다 보일
것이다.
그는 다리가 너무 후들거리 아릅드리 소나무밑
등에 한쪽어깨를 기대여 선채 가쁘게 숨을 몰아
쉬었다.
얼굴에선 땀이 비 오듯 하고 목에선 겨불내가
났지만 이제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 서지 못할것
같았다.
저 흰 구름을 타고 령마루를 훨훨 날아 넘을수
없을가. 아-
《중사동지!》
하늘에서 난데없이 울려 온 맑고 쟁쟁한 그 소
리는 산봉우리마다 부딪쳐 메아리를 일으키고는
다시 푸른 하늘로 퍼져 울랐다. 학성은 자기를
찾는 그 소리를 꿈속에서처럼 들었다.
한껏 고개를 젖히고 보니 욕심이가 령마루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게 아닌가.
말없이 다가선 처녀는 짐부터 벗겨 들었다.
그런데 책뭉음을 들었던 손은 강직이 와서 잘
퍼지지 않았다.
강다짐으로 손가락들을 하나하나 펴고 보니 손
바닥 한가운데는 노끈이 파고 들어 간 자리가 시
뻔질게 나 있었다.
《어마나!》
가느다란 비명소리가 처녀의 입에서 새여 나왔
다.
《아파요?》
《괜찮소.》
그래도 처녀는 학성의 손을 놓지 못하고 마치
손바닥을 둘로 갈라 놓은듯 싶은 끔찍스런 자욱
을 생각 깊은 눈매로 바라보다가 통담인지 진담
인지 모를 소리로 입을 열었다.
《무슨 책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 애인을 만나왔어요?》
마지막말에서는 비양조가 진하게 풍겨 나왔다.
학성은 자기의 거짓말이 들장났다는것을 짐작하
며 어쭙게 웃었다.
《미안하오. 난 사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소?》
《중사동지와 한호실에 있는 경찰병동무한테서
다 들었어요.》

《그러니 경찰병한테서 경찰했다? 허참.》
 《중사동지 수술자리를 걱정하면서 함께 마중가자는걸 겨우 설복했어요. 어쨌든 동문... 동문 피짜예요.》
 그리고는 학성의 변명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책뭉음을 넉넉 돌고 앉장 서 산을 내렸다.
 《그걸 내려 놓소. 서라는데...》
 학성은 처녀의 뒤를 서둘러 따라 가며 소리쳤으나 욕심은 들은척도 안했다.
 (좋은 처녀야!)

3

학성은 병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얼마 있으면 제대되어야 하는 그에게 상처에 후가 없는 조건에서 공부를 한도로 특별히 허락해 주었다.
 그는 하루종일 책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코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라디오수리에 달라붙곤 하였다.
 확실히 그는 예전 같지 않았다.
 욕심도 시간이 있으면 짹짹이 라디오수리를 도와 주기도 하고 왼손으로 글씨련습을 하는것을 어깨너머로 지켜보며 폭소를 터뜨리기도 하였다.
 《호호호 아유, 우스워라. 그게 어디 글이예요. 감탕판에 계발자리지. 호호...》
 그리고는 학성의 연필 킌 손을 자기의 고운 손으로 가볍게 감싸쥐고 한자한자 글을 써나갔다.
 그럴 때면 학성은 자기의 손은 처녀에게 맡겨 두고 위생복에서 풍겨 오는 소독수냄새를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조심스레 돌이키곤 했다.
 요즘에 와서 그의 머리속에서는 욕심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복도에서 울리는 술한 발소리가운데서도 욕심의 발소리를 가려들었고 그가 자기곁에 다가오면 공연히 마음이 즐거워 지곤 했다.
 그래서 안된다고 자신을 질책하곤 했지만 그에게도 사랑의 불을 꺼버리는 재간은 없었던것이다.
 감정의 변화는 그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 왔다.
 그 변화는 어느때없이 땀시를 부리는데서부터 나타났다.
 옷차림, 침구정돈... 한번은 서툴게 면도를 하다가 아래턱을 베었다.
 마침 호실에 들어 왔던 욕심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상처를 치치해 줄 때 그는 자기의 눈바투 처녀의 존재를 의식하며 아픔마저 잊어 버렸다.
 그러나 너풀거리는 팔소매에 시선이 미치자 그는 환상에 사로잡혔던 자신이 가소롭게 생각되었다.

그는 버릇처럼 한숨을 내시고 라디오앞에 마주 앉았다.
 라지오는 그럭저럭 제 모양을 갖추었는데 진공관 하나가 깨여 진것때문에 완성을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이 외진 산골에서 어떻게 그 부속품을 얻는단 말인가.
 손가락만 한 부속 하나가 없어 제구실을 못하는 라지로나 불구의 몸이 되어 전선에도 나가지 못하는 자기자신이나 처지가 다불바 없다는 서글픈 생각에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 주제에 대학에 가겠다고? 아서라! 행복에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날도 그는 자정이 넘도록 앞날에 대한 모대김으로 잠 못들고 있었다.
 가만히 문 여는 소리에 돌아다 보니 욕심이가 들어 서는것이였다.
 주사시간도 아닌데 이 밤중에...
 그런데 가까이 다가온 처녀를 보는 순간 학성은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한쪽 불은 무엇에 활키였는지 피가 내배고 이마우에 드리운 머리카락은 땀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 나 앉으며 물었다.
 《어이된 일이요?》
 학성이앞에 다가온 처녀는 대답대신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우에는 지금껏 애를 태우다 못해 자기의 앞날에까지 그늘을 던져 주던 그 진공관이 놓여 있었었다.
 그 부속품자호를 대달라기에 아무런 기대도 없이 대주었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학성은 기쁨보다 불안감이 앞서 의혹에 찬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어딜 갔댔소? 얼굴은 왜 그렇게 되구?》
 《조용하세요!》
 처녀는 다른 환자들이 깨여 날세라 손가락을 입에 가져 가며 주위를 둘러 보았다. 하지만 학성은 조용할수 없었다.
 《대답하오!》
 학성의 어조가 오히려 더 커가자 처녀는 어쩔수없었던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전쟁전에 이런걸 고치는 수리소가 있었다길래 읍 갔댔어요.
 주인은 군대에 나가고 아주머니가 골라 주더군요.
 지름길로 오겠는데 무슨 짐승인지 자주 따라 오지 않겠어요. 그놈도 내가 너자라고 알잡아 봤는지.》
 학성은 억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질승에게 쫓기면서도 부속품을 움켜 쥐고 밤길을 달려 온 처녀를 보느라니 고맙다는 말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처녀앞에서 머리를 들수 없었다.

사내라는게 한번 달라붙었으면 끝장을 봐야 하는건데 자기 애당초 그 부속품을 구해 볼 생각조차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수치가 어디에 있는가. 어쩌서 자기는 이 처녀앞에 항상 나약한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

자기 환멸에 잠겨 고개를 떨구고 있던 학성은 처녀의 재촉을 받고서야 라디오앞에 마주 앉았다.

묵묵히 조립을 끝낸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라디오에 전원을 넣었다.

주파수를 조절하니 라디오에서는 이름 있는 시인의 시가 랑송되고 있었다.

...

순간 두사람의 시선은 허공에서 맞부딪치며 환희의 불꽃을 튀겼다.

성공이다!

학성은 드디어 이겼던것이다.

처녀의 눈가에는 맑은 맑은 물기가 차랑차랑 고여 올랐다.

만일 깊은 밤중만 아니라면 온 병동이 떠나가도록 웨치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제하는듯 처녀는 입술을 파들파들 떨다가 격정에 흐느끼며 밖으로 뛰쳐 나갔다.

처녀가 왜 그렇게 기뻐 하는지 학성은 자신도 이상스러울 정도였다.

그는 처녀를 따라 나갈듯 한발작 내짚었다가 보이지 않는 힘에 억제되어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라디오를 고쳐놓았다는 첫 순간의 환희가 지나가자 자기는 아직 옥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달아 오른 그의 심장에 찬물을 끼얹었던것이다.

이제는 제 힘으로 걸어 나갈 자신도 있었지만 한생을 살아 가는데 필요한것이 어찌 그뿐이겠는가.

이것이 과연 그의 지나친 욕심이겠는가.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셈이다.

욕심이는 자기에게 삶의 불길은 지퍼 주었지만 결코 사랑까지는 주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었다.

그러니 처녀에게서 그 이상의것을 기대한다는것은 너무 량심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처녀를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표현할수 없는 모순된 감정을 안고 살던 나날은 그에게 있어서 참기 어려운 피로운 나날이었다.

전승의 축포가 오른 뒤 학성은 대학으로 떠났다.

고향이나 대학이나 하는 갈림길에서 동요가 없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 그토록 마음 써준 옥심앞에서 차마 고향에 내려가 농사나 짓겠다는 말을 할수 없었다.

욕심이가 학성을 멀리까지 바래주었다.

《고향에 들렀다 가시겠지요?》

《그만두겠소. 어머니마저 폭격에 돌아 가시구 집까지 불 탔소. 후에 찾아 가겠소.》

그들은 어느새 향수천다리를 지나 읍으로 가는 지름길에 접어들었다.

《편지하시겠지요?》

《글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학성은 처녀에게 무안을 준 자기의 어정쩡한 태도에 스스로 화가 동행다.

사실을 제가 먼저 편지하겠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은 입안에서 뱀 돌고 왕청같은 소리가 튀어 나갔던것이다.

그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잃고 있는것은 오늘까지도 처녀에게 자기의 심중을 털어 놓지 못했기때문이었다.

지금껏 그는 자기의 언행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감정이 표현될가봐 스스로 통제해 왔었다.

그러나 영원히 헤어지게 될 이 마당에서까지 자기를 감추어야 한다니 그는 지금 제 정신이 아니었다.

생각 같아서는 동무를 사랑한다고 목청껏 웨치고 싶었지만 만약 그 웨침이 처녀의 심장속에서 메아리를 일으키지 못하고 이 무심한 숲속에 갇아들고 만다면... 그러면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시는 영영 일어 서지 못할것 같았다.

학성은 그것이 무서웠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어 그는 가쁘게 숨을 몰아 쉬며 공연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지름길에서 왼쪽으로는 산코숭이가 몽텅 잘리워 서너미터 높이의 벼랑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는 산국화가 무리져 피어 있었다.

그 꽃을 먼저 발견한것은 욕심이었다.

《야 꽃! 보세요. 벼랑우에 꽃이 피었어요! 장하지요?》

백화가 스러진 이 가을날 깊은 산중의 벼랑우에 소담하게 피어 있는 그 꽃송이들이 아름다우면서도 억센 기상을 시위하는듯 싶어 처녀는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학성은 문득 처녀에게 제 손으로 그 꽃을 꺾어 주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욕심이가 소원하는것 이라면야...

그는 말없이 벼랑으로 발길을 돌렸다.
 《어딜 가세요?》
 처녀는 영문을 몰라 검고 큰 눈을 깜빡이었다.
 《옥심동무! 내 저 꽃을 꺾어 주겠소.》
 한다운소리가 너무 이이없이 처녀는 아연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한팔로 가파로운 벼랑을 어떻게 오른단 말인가.
 《정신 있어요? 그 몸으로...》
 《그러니 믿지 못하겠다는거요?》
 학성의 목소리는 서글프고 어딘가 섬찍한 느낌을 주었다.
 《동문 나에게 삶의 용기를 찾아 준 은인인데 헤어지는 이 자리에서 꽃 한송이 제 손으로 꺾어 주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앞으로 무슨일 할수 있겠소.》
 《고맙긴 한데 저길 어떻게...》
 처녀는 공포에 질린 눈길도 벼랑을 올려다 보며 말끝을 흐리었다.
 학성은 물러 서지 않았다.
 처녀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싶은 마음인데 저까지 벼랑쫓이야...
 《허락해 주오. 이건 내 마지막부탁이요.》
 그는 진정으로 애원했다.
 학성의 태도에서 더이상 거절할수 없음을 느꼈던지 옥심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고개를 다스 곳기 숙이며 말했다.
 《그럼... 꺾어 주세요.》
 학성의 얼굴에는 대번에 기쁨이 피어 올랐다.
 그는 위험한 일을 앞애 두고도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벼랑으로 다가갔다.
 호흡을 가다듬고 나서 아름다운 꽃송이를 향해 한치한치 뚝아 올라 갔다.
 마치 그 벼랑꼭대기에 한생의 행복이 매달려 있길라도 한듯 싶었다.
 절반도 채 못올라 갔는데 온몸은 벌써 땀주머니가 되어 버렸다.
 (내가 처녀앞에서 지나친 객기를 부리는건 아닌가?)
 학성은 검질기게 싹을 내미는 나약한 생각을 지워 버리며 도 한번 몸을 솟구쳤다.
 그리다가 그만 빈말을 잘못 짚었다.
 《아!》 하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터져 나가는 순간 미끄러지던 말은 무엇인가 든든한것에 걸렸다.
 잔등으로 식은땀이 쭉 흘렀다.
 얼핏 아래를 내려다 보니 옥심이가 두손으로 미끄러지던 발을 받쳐 주고 있는게 아닌가.
 《어서 올라 가세요.》
 처녀는 학성을 고무하듯 웃음을 담고 말했다.
 (옥심이, 고맙소.)
 학성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다시 벼랑을 뚫아

올랐다.
 드디어 벼랑끝에 다달은 그는 두발을 단단히 디디고 서서 하얀 산국화꽃송이를 꺾어 들었다.
 그때의 환희를 무슨 말로 표현하랴,
 《옥심동무, 반소!》
 아름다운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돋았는데 그것을 씻을념도 않고 처녀는 두팔을 활짝 벌렸다.
 하늘의 축복인양 처녀를 향해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는 꽃송이, 꽃송이... 가슴 가득 꽃다발을 받아안은 처녀의 얼굴은 만첩으로 피어 난 꽃송이보다 더 활짝 피어 웃는데 벼랑우에서 처녀를 바라보는 학성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헤어졌다.
 소원대로 학성은 김책공업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옥심이에게 편지를 쓸것인가 말것인가 오래동안 망설이였다.
 그러다가 편지를 쓰지 않고는 건딜수 없어 될수록 평범한 말마디들을 골라 간단히 몇자 적었다.
 그는 편지에서 이제는 왼손으로도 강의내용을 얼마든지 적을수 있다는것과 공부를 잘해서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것 그리고 어디 가나 전상자병원의 나날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써보냈다.
 그는 은근한 희망을 품고 회답이 오기를 기다렸다.
 회답이 오긴 올가?
 옥심이가 담당했던 환자들이 좀 많은가. 그들 모두에게 일일이 답장을 쓸수는 없을것이다.
 편지는 한달이 넘어서 옥심이와 같이 있던 간호원이 보낸 편지와 함께 되돌아 왔다.
 그 편지에는 옥심이가 며칠전에 제대되어 고향으로 갔다는것과 그의 고향은 청진인데 바다가마을이라는것밖에는 정확한 주소를 알수 없다고 써여 있었다.
 그러니 이제는 옥심이와 편지 한장 주고 받을수없게 된것이다.
 그는 망연한 자세로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위생복차림의 옥심이가 그 별무리속에서 웃고 있었다.
 옥심은 도저히 자기 세계에 받아 들일수 없는 먼 우주의 찬란한 행성이었던것이다.
 행성마다 자기고유의 운동자리길이 있는 법인데 두개의 행성이 한 궤도에 나란히 있을수 없다는거야 자명한 리치가 아닌가.
 (옥심동무! 어디서든 부디 행복하오.)
 학성은 모든것을 잊고 공부에 달라붙었다.
 방학때에도 특별히 갈 곳이 없었던 그는 기숙사에 밀박혀 책과 씨름했다.
 탐구의 세계로 휴식 없는 강행군을 한다는것이

사실 그에게는 전장에서 백병전을 벌리는것보다 더 힘겨운 싸움이 었다.

공부는 점점 힘들어 졌다.

나약해 질 때마다 이를 악물곤 했지만 배운것을 제때에 소화하기 힘든것은 둘째치고 간단한 실험조차 저 혼자 할수 없어 동무들의 방조를 받곤 하는것이 그를 괴롭히곤 했다.

(내가 공부를 끝까지 해낼수 있을까?)

산에 간다고 누구나 범을 잡는건 아닌데.

나 같은 놈이 공부를 했댔자 무슨 큰 일을 해내겠는가?)

나약한 생각은 머리를 굴러 내리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며 그를 번민에 몰대기게 하고 날이 갈수록 소심하게 만들었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 지던 어느 겨울날 학성은 자기가 더 이상 지탱해 낼수 없음을 고통스럽게 인정했다.

다문 며칠만이라도 어디에선 조용한 곳에 가서 종종 곁쌍인 심신의 피로를 풀고 싶었다.

그날 밤 학성은 호실친구들도 모르게 고향으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물론 고향에 가야 부모도 집도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친척들이 있고 소꿉시절동무들이 있지 않는가.

어둠속을 달리는 열차의 차창으로 밤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욕심이! 용서하오. 난 더 못 견디겠소.)

정녕 그는 욕심을 잊을수 없단 말인가.

열차는 다음날 아침에야 학성의 고향땅에 들어섰다. 고개마루에 올라 서니 산기슭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동네가 한눈에 안겨 왔다. 학성이네 집자리에도 누구네 집인지 새집을 지어 놓았다. 새집은 신통히도 그의 추억속에 간직되어 있는 옛집과 똑같은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학성은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치마저고리를 입은 녀인이 울바자를 세우느라 마당가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학성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어머니!》하는 부름소리가 마음속으로 새나왔다. 그는 자기도 알수 없는 힘에 이끌려 슬금슬금 그쪽으로 다가갔다. 누구네 집일까?

마당가의 녀인이 학성을 먼저 알아 보고 황황히 달려 나오며 사립문을 활짝 열어 제겼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 학성은 한순간 자기 눈을 의심했다.

욕심이! 욕심이가 어떻게?... 너무나 뜻밖의 상봉이여서 두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웃으며 마주 보기만 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그는 태양이 빛나는 저 푸른 하늘을 향해 지금껏 가슴속에 쌓아 두었던 사람의 걱정을 목청껏 터치고 싶었다. 돌이켜 보면 이른 봄날 전상자병원의 빨래터에서 비겁한 사람에게는 집을 안간다고 말했던 그 운명적인 날에 처녀는

학성을 위해 자기의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던것이다.

나약해 진 사람을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스러져 가는 인생에 재생의 불길을 지펴 주기 위해...

《어째서 그때... 미리 말하지 않았소? 그럼...》

《거기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요. 저야... 어쨌든 너자가 아니나요?》

《그래두... 후에라도 소식을 알려 줘야지... 난 속이 까맣게 탔댔소.》

《안됐어요. 그새 집이랑 짓느라 바빴댔어요. 집거둬이나 해놓고 대학에 찾아 간다는게 그만 늦었어요.》

처녀는 마치 그제 제 잘못인듯 고개를 숙였다.

동리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와 모든걸 설명해주었다. 체대되어 마을을 찾아 온 군복차림의 욕심이가 마을사람들의 방조를 받으며 본래의 집자리에 폭탄구멍이를 메우고 새집을 지어 놓고 자기를 기다려 왔다는것과 리진료소를 혼자 맡아 안고 그 바쁜 속에서도 짬짬이 공부를 해서 머지 않아 의사가 된다는 말을 전해 들으며 학성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것도 느끼지 못하고 욕심을 힘껏 끌어안았다. 인간이 지닌 사랑의 거대한 힘에 감복하면서... 그는 지금 욕심이가 어째서 자기를 사랑했는가를,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를 온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튿날 그는 다시 대학으로 떠났다. 나약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어째서 집에 왔댔는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욕심이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배낭을 챙겨 주었다.

떠나는 사람과 배려주는 사람은 동구밖 큰 길로 나란히 걸었다. 추운 겨울이라 길옆의 개울은 두텁게 얼어 붙었는데 그밑에선 시내물이 졸졸 소리내며 흐르고 있었다.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 걸음을 멈추고 깨여 진 얼음장밑에서 김을 문문 피워 올리며 쉬임없이 흐르는 시내물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주위는 온통 흰눈에 덮였는데 어느 골짜기에 시원을 두었는지 용케도 얼지 않고 사시장철 흐르는 시내물이 사뭇 기이하게 여겨졌던것이다. 그들은 이 작은 시내물이 줄기차게 흘러 흘러 거대한 강물에 합쳐 저 얼음장을 광광 들부시며 넓고 넓은 바다로 노도쳐 가는 장엄한 봄날을 눈앞에 그려 보고 있었다.

《이런 시가 생각나세요?》

욕심이가 문득 입을 열었다.

...

맑은 물줄기여

나도 너처럼 씩씩하리라

또 싸움의 길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떨어 저서 천야만야 창창 떨어 저서

산산이 부서져야 된다면

내 서슴없이 뛰어 들리라

욕심이가 어쩌서 그 시를 읊어 주는지 학성이 왜 모르랴. 그는 폭격에 불 타던 후방병원에서 새삶의 세계로 자기를 떠받들어 올린 연약하면서도 억센 처녀의 어깨우에 손을 얹었다가 성큼 성큼 걸음을 옮겼다. 눈덮인 산협길은 울퉁불퉁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러나 사랑을 안고 가는 그에게는 삶의 의지가 백배했으니 걸음을 늦추지 않고 힘차게 걸어 가는 그의 귀가에는 처녀가 읊어 주던 시구절이 쟁쟁히 울리고 있었다. 힘들 때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

세월은 흘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이며 기계공학박사인 리학성은 박사원을 졸업한 제자들과 함께 전승기념일을 맞고 있었다. 래일이면 제자들은 첫 연구과제들을 맡아 안고 먼 곳으로 떠나게 된다. 70도령의 로박사는 스승으로서, 준엄한 시련을 헤쳐 온 전 세대로서 하고싶은 말이 많았지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던것이다.

《...

돌이켜보면 내 한생은 난관이 앞을 막아 설 때마다 생활에 대한 사랑과 의지로 그것을 이겨 온 한생이었습니다. 그 사상의 힘이 나를 죽음에서 이기게 해주었고 조국에 필요한 사람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동무들도 앞으로 탐구의 먼 길을 걸어 가느라면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생활을 뜨겁게 사랑할줄 아는 사람은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이젠 내 한생을 관통해 온 좌우명일뿐 아니라 우리 조국은 현대사가 력사에 남긴 진리입니다.

사랑으로 뭉쳐 진 세상은 더 강해 지고 그리고...

더 아름다와 지는 법이지요.》

푸른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로교수의 주름 깊은 눈가에는 여전히 생의 환희가 넘쳐 나고 있었다.

나는 1951년도 당원이다

신형길

승업한 마음으로
조용히 당원증을 펼치면
한가슴에 안겨 오누나
1951년 그날의 불비가

눈앞에 삼삼해라
전호숙의 탄약상자우에
입당청원서 펼쳐놓고
한자한자 써가던
그날의 내 모습이
그리고 젊은 병사 나의 입당을 찬성하여
손을 들던 미더운 전우들의 눈빛도

천백배 복수의 피를 끓이며
탄알이 떨어 지면
불사신처럼 우뚝 몸을 솟구쳐
육박전으로 나아가던 당원들의 모습

가장 위험한 곳에
언제나 당원들이 서 있었고
목숨을 내대야 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맨 앞장에 기발처럼 서 있던 모습도
다름아닌 당원들이었다

살아도 그 당원들처럼 살고

죽어도 그 당원들처럼 삶을 빛내자고
나는 입당청원서를 썼다
불 타는 고지에서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당원이 되었다

평범한 날에 받아 안은 영예라만
이다지도 내 심장 불타지 않으리
불구름 타래치던 결전장에서
받아 안은 영광이어서
더없이 긍지로운 나의 삶이여

기쁠 땐 기뻐서 당원증을 펼쳐 보고
어려울 땐 그날을 잊지 못해
당원증을 펼쳐 보며 시련을 이겼거니
언제나 준엄한 날의 당원으로 살고 싶어
하루에도 그 몇번
불 타는 고지우에 이 마음을 세웠던가

시련의 찬바람이
이 땅에 열백번 다시 불어 온대도
웃으며 맞받아 헤쳐 갈
나는 1951년도 당원이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시기에
당기앞에 엄숙히 맹세의 주먹 추켜 들었던
나는 1951년도 당원이다

이 땅에 흐르는 세월을 두고

잡지 《조선문학》 주체91(2002)년 6호에 실린 시초 《우리의 세월은 어떻게 흐르는가》(전승일 작)는 제목 그대로 우리의 세월이 어떻게 흐르는가에 대한 대답을 준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초에 포함된 5개의 시편들은 다 짧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하나하나의 시어들이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들의 심장을 크게 울려 주었습니다. 특히 시 《그대들은 내려선적 없어도》와 《꽃송이》가 다른 시들에 비해서 더 잘되었다고 봅니다.

시 《그대들은 내려선적 없어도》는 전쟁의 포화가 가서 진지도 어언 반세기가 되었건만 전승기념탑 영웅들은 아직도 1950년대의 그 정신으로 자기위치를 차지하고 우리들에게 많은것을 가르치고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잘 밝혔습니다. 시는 이 세월의 끝까지 대돌우에 자리를 정하고 내려선적없는 영웅들이 우리가 사는 그 어디나 함께 서서 처녀와 속삭일 때도 순결한 말마디들을 골라 이 심장에 넘치도록 채워 주었고 아침마다 차림새를 살필 때면 마음까지 비쳐 주는 거울이 되어 주었다고 하면서 독자들을 보다 깊은 정서적체험 세계에도 이끌어 갑니다.

...

쇠물을 끓이는 강철로앞에선
강철과 슬라크를 가르는
엄격한 투시경이 되어 주었고
진리를 밝히는 교정의 창가에선
이 심장을 채찍질하는
참된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병사들의 총창이
무엇을 지켜 번개쳐야 하는지
병사들의 군화끈이

무엇때문에 풀어 지지 말아야 하는지
이 나라 전호가마다 다 찾아 다니며
그대들은 피로 새긴 진리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

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대들은 자기들의 피로 새긴 진리로 로동계급과 지식인 그리고 총 잡은 병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참된 혁명의 스승이라고 자랑스럽게 노래하였습니다.

시 《꽃송이》에서는 영웅들의 군상앞에서 미래의 행복을 약속하는 신랑신부의 가슴에 단 붉은 꽃송이와 불이 터진 총구멍을 끌어 안은 영웅들의 가슴에 형상의 초점을 집중시켜 서정을 전개함으로써 영웅들의 피와 땀이 스민 이 땅의 행복은 영원하리라하는것을 생활적으로 생동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시초는 읊으면 읊을수록 새기면 새길수록 독자들에게 많은것을 생각케 하여 주는 작품입니다.

시초에 속한 시들은 서정시로서의 독자적인 완결성을 가지면서도 기본주제해명에 적극 이바지 하였습니다. 시들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시초의 전반적인 서성구조조직에 알맞게 하였고 서정발전도 상승적인단계, 기승전결의 원칙을 철저히 보장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뜻 깊은 시어들과 대조, 상징 등 여러가지 표현수법들을 능란하게 활용함으로써 생동하면서도 진실한 시적화폭을 펼쳐 보였습니다.

앞으로 편집부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에도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 인민들을 적극 고무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더 많이 편집출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류대복

가사

우리는 병사동창생

김수철

떠나온 고향은 서로 달라도
한낱한시 총 잡고 초소에 섰지
조국의 대문을 지키며
영웅의 푸른 꿈을 함께 키우네
아 군기앞에 선서한 병사동창생

고향의 편지도 같이 읽으며
뜨거운 당부를 함께 안았지
군화끈 조이고 산발을 타며

충대의 진리를 함께 새겼네
아 일당백 혁명대학 병사동창생

조국의 부름앞엔 대답도 같이
총폭탄될 때에는 목숨도 같이
통일의 그날까지 걸음 맞추며
위훈의 자욱을 함께 찍으리
아 장군님 결사옹위 병사동창생

《조기대가리》

산은 푸르고 물은 맑으며 새소리도 정겨운 두메에 그리 크지 않는 한 마을이 아늑하게 놓여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 온 동네가 호젓한것을 탓하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 지어 랑식을 충당하고 산을 잘 가꾸어 땀나무걱정을 몰랐으며 밤이면 아이들에게 옛날 애국명장이 이야기도 들려 주면서 살아 갔다. 인심도 후하며 이웃간에 화목하였으며 어려운 살림살이속에서 콩한알이 생겨도 서로 한쪽씩 나누어 먹는것을 응당한 도리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마을 인심이 아주 야박하다고 소문이 났으며 지나가는 길손들 조차도 이곳에 들러서 묵어 가기를 꺼리었다.

마을사람들의 인심이 고약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동네에서는 유일하게 밥술이나 든다는 령감쟁이 하나가 어찌 린색한지 놀부 찹떡먹을 지경이여서 고약한 소문이 나게 만들었던것이다. 《흥부전》에 나오는 욕심쟁이 놀부는 제 부모조상의 제상에 차려 놓는 음식도 돈이 드는것이 아까와서 현물대신으로 종이에다 《감》, 《엿》, 《고기》 등으로 글자를 써서 상우에 올려 놓고도 아무리 안쓴다고 해도 종이값은 봉창할 곳이 없구나 하고 한탄하였다지만 그래도 제 식구 옷치장, 입시중에는 그렇게까지 야박하지 않았는데 이 마을의 각쟁이 령감은 밥 한숟가락 남 주는것을 제 살점 뜯어 주는것처럼 실어 하였을뿐아니라 제 입에 넣는것조차 아까와 하는 아주 고린작자였다.

지나가는 길손들로서는 이 마을에 들러 봤댔자 일년내내 송기죽, 산나물범벅으로 끼니를 예우는 가난한 농사군에 집에는 들릴 체면이 못되었고 동네에서 유일하게 밥술이나 뜨는 령감쟁이네 집에 들어야겠는데 거기는 가보았댔자 문안에 발도 못들여 보고 쫓겨 날것이 뻔하여서 자연 이곳을 피해 다른 고장으로 가게 되었고 타곳에 가서는 이 마을 인심이 야박해서 안 들렀다는 소리를 하기마련이었다.

이런 몇몇치 못한 소문이 돌고 돌아서 귀에 들려 왔을 때 마을사람들은 모두 격분했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인데다가 랑반세상에 돈줄이 맥을 추는 시절이여서 령감쟁이네 하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 지내는수밖에 댄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각쟁이럼감쟁이네 집에 부지깽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반찬을 무엇을 해먹는지 알지 못하였고 또 알려고 하지조차 않았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해인가 그의 집에서 머느리를 맞아 들였다. 령감쟁이내외는 딸도 없는 외아들을 낳아 음달에서 자란 콩나물처럼 길렀는데 그 아들이 보시시한 솜털을 미쳐 가시기도전에 일손하나라도 더 얻어 볼 심산에 실박한 처녀를 머느리로 맞아 들였던것이다.

처녀는 일찌기 부모를 다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이웃동네로 전전하면서 품을 들어 그날그날을 연명하여 왔으므로 제 사람이 그리웠고 제 집이 그리워서 시아버지가 소문난 각쟁이인줄 알면서도 설마한들 시부모도 부모인데 외머느리인 자기에게까지 심하게 굴겠는가 하는 어렵פות한 기대를 품고 이 집에 들어 왔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었다.

불은 물도 끓이고 얼음도 녹이는데 자기 마음이 효성의 불이 되면 얼음장같은 시아버지도 각쟁이본성을 풀어 놓겠지하는 천진한 속다짐을 가지고 시집살이 문턱을 넘어 섰던것이다.

신부가 될 처녀는 자신에게 집도 없어서 늘 가까이 다니던 무던한 농사군의 댁에서 신랑을 맞아 잔치를 하고는 제발로 걸어서 제집으로 들어갔다. 새색시는 아무리 무의무탁한 처지라도 한생에 한번뿐인 시집을 가면서 아예 빈손으로 들어갈수가 없어서 애 써 벌어 저고리고름끝에 싸서 묶어 두었던 열전으로 시부모에게 첫 진지상을 차려 드릴 때 쓸 말린 물고기도 몇마리 사고 산에 가서 뜯었던 도라치며 참나물 말린것도 싸고 동네너인들이 보태주는 좁쌀 몇되도 늘고 갔었다.

그런데 막상 시집에 들어 가니 새 색시에게 차려 준 잔치상이라는것이 밥 한그릇에 맹물 한사발을 땡그렇게 얹은것이였다. 청해 온 손님도 없었다. 그러고도 낮 간지러운줄 모르는 각쟁이령감은 혼례상앞에 마주 선 아들, 머느리를 번갈아 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러하였다.

《옛날사람들이 찬물 한사발 떠놓고 잔치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제 꼭 가난해서만 그런것이 아니야.》 그는 왼쪽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꼽아 가면서 계속하였다. 《첫째는 잔치라는게 강에 배 지나친것처럼 지내고 나면 남는게 없는것인데 공연히 아까운 돈으로 쌀 사고 반찬 사고 해서 상이나 크게 차려서 뭘 하겠나. 찬물 한사발이만 넉넉하지. 암, 그렇고말고. 그리고 또 둘째로는 잔치상부터 요란한걸 받으면 새색시가 살림살이를 헤프게 하기 시작하게 되거든 오죽하면 <가마가 많은

면 모든것이 헤프다>는 옛말까지 생겼겠나. 쫓쫓.》

새색시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서울각쟁이 말만은 청산류수》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맹물 한사발에 밥 한그릇인 잔치상을 앞에 놓고도 섭섭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도 시집이라는것을 가보는구나 하는 꿈 같은 행복에 잠겨 있었고 이제부터는 자기도 외로운 신세를 면했으니 시부모공대를 잘하고 남편시중을 잘 들어보리라 하는 마음만 다지고 서있었던 것이었다.

행복하고 즐거울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가는것 같았다. 어느새에 하루밤이 지나고 이른날 아침이 되었다.

남들은 《3일조친》이라고 시집 가서 잔치상을 받은 새색시가 이틀동안 시집사람들이 차려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사흘날 아침에야 부엌에 나가서 제손으로 밥을 지어 시부모앞에 받쳐 드린 다음 친정집 부모를 뵈오려 간다지만 이 신부는 그러고 앉아서 자리에 주는 밥을 받아 먹고 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이틀날 아침에 일찍 일어 난 새색시는 마당비를 찾아 끌고 우물에 나가 남들이 아직 긴지 않은 맑은 물을 길어다가 가져 온 좁쌀로 밥을 지었으며 물고기 말린것도 구웠다.

이제는 사랑방에서 자는 시아버지가 일어 나면 들어 가서 이불을 개고 방을 깨끗이 거둔 다음 아침상을 눈섭높이로 들고 들어가서 앞에 놓으면 되었다. 그런 다음 시아버지가 아침밥을 다 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다가 승냥을 떠다 드리고 상을 물리면 이번에는 안방에 가서 시어머니와 남편공대를 하고 나중에 자기 차례로 손가락을 들면 그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사랑방쪽을 살피고 싶노라니 시아버지가 일어 나서 어쩔 어쩔 하고 두어번 기침소리를 내면서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마당에 내려 선 시아버지가 《쫓쫓》 하고 가볍게 허를 차고 선 대문밖으로 나가는것이 아닌가.

새색시는 공연히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시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것이 아닌가 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두손으로 할랑거리는 가슴을 꼭 싸쥐고 시아버지의 뒤모습을 시켜 보았다.

분명 시아버지는 저쪽 동구쪽으로 감돌아 흐르는 개울로 가고 있었다.

(옳지, 세수를 하러 가시는구나. 이 짬에 얼른 들어 가서 시아버지의 이부자리들 개고 방안을 말끔히 거두어 놓으리라. 그래서 세수를 하고 돌아 온 시아버지가 짜증을 거두게 해드리리라. 아무렴 새로 슬퍼 온 며느리가 그리는데야 눈섭사

이에 진 주름살을 퍼지 못할 시아버지가 어데 있을라구....)

새색시는 마루에 놓인 방비를 찾아 들고 사랑방에 조심히 들어 섰다. 다음순간 그는 아연해졌다. 방을 쓴 쓰레기는 구석에 무저 있었고 찬반에는 이 구석 저 구석 거미줄이 걸려 있었다. 그 쓰레기, 그 거미줄이 꼭 자기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것 같이 여겨 저서 얼른 끌어 내고 거두어 냈다.

방안이 깨끗해 졌다. 이만하면 뻘을가 하고 살피보는데 한쪽벽 높다랗게 조기대가리 하나가 걸려있는것이 눈에 띄었다.

《아이, 망측해. 이런걸 다 사랑방에 걸어 두다니.》

새색시는 별로 새겨 볼 생각도 없이 쪼들고 찢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조기대가리를 벗겨서 마당 한쪽구석으로 내던졌다. 먼지가 풀썩 이는 조기대가리를 마당을 어슬렁거리던 검정강아지가 달려 와서 날쌔게 물고 뒤울안으로 달아났다.

시아버지가 돌아 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리자 새색시는 얼른 부엌으로 나가서 밥상을 차려 가지고 조심히 사랑방으로 들어 갔다.

시아버지도 새 며느리가 대접하는 첫 밥상을 받는것이 흡족했던지 기분이 좋아서 수저를 들리고 밥상우로 오른손을 내밀다가 문득 굳어 진 표정을 지었다. 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할듯말듯 입귀를 약간 실룩거리더니 아무 소리 없이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 갔다.

그런데 일안으로 밥술가락이 들어 갔다 나온 다음 순간 그는 벽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멈추고서 《엥》 하는 소리를 냈다. 시아버지는 네 벽을 두리번두리번 살피고 나더니 실망한 표정으로 밥을 꿀꺽 삼키고 나서 며느리에게 눈길을 돌렸다.

《네가 저 벽에 걸린 조기대가리를 치웠느냐?》

《예!》

《그래 어디다 치웠는지 어서 가져 오너라.》

《예?》

《어서 가져 오라는데두.》

《저... 마당에 버렸더니 강아지가 물고...》

《뭇라구.》

시아버지는 들었던 손가락에 붙어 있는 밥알 두어개를 얼른 다시 입안으로 빨아 넣고는 엄한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훈시를 하기 시작하였다.

《너 그게 무슨 조기대가리인지 알거나 하고 버렸느냐? 그게 바로 내가 몇삼년을 먹고 지내온 밥반찬이다. 밥반찬. 밥 한술가락 떠넣고 그 조기대가리를 한번 쳐다 보면 밥이 저절로 꿀꺽 넘어간단 말이다. 사람들이 <고기반찬은 밥 도적놈>이라더니 그 말이 맞아. 그래서 그 고기대가리 한개로 내 한뼉 반찬을 해서 하루 세끼 밥을 먹

어 온게다.》

새색시는 다시 한번 아연했다. 세상에 각쟁이 각쟁이 해도 다 찌들어진 조기대加里 한개를 매달아 놓고 밥 한술 떠놓고 그것을 한번 보고 또 한술가락 떠놓고 그걸 보면서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시아버지란 말인가. 새색시에게 이런 아찔한 생각이 든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그 다음순간에는 아무튼 시아버지를 노엽힌 죄책감에 가슴이 옥죄여 들었다. 그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죄의 말을 하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어제부터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 시집을 온다고 찬거리들을 여러가지 해가지고왔는데 그러거나 상우에 잔뜩 차려 놓고 잔치를 하는 그런 손이 큰 아낙네가 돼서는 살림을 잘할수 없다. 그리고 오늘 아침도 그렇지. 내가 누워있는 이 사랑방에까지 물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 오니 그제 어디 집안살림 망할 노릇이 아니고 뭐냐, 그래도 네가 아직 우리 집 살림 아끼는 풍을 몰라서 그러는게지 하고만 여겼는데 이제 보니 아예 틀렸구나. 내 평생 먹는 반찬까지 내버리는것을 보니 말이다.》

새색시는 억울했으나 꼭 참아야 하였다. 시집살이를 잘하자면 새색시가 된 첫날부터 병어리 3년, 소경 3년, 귀머거리 3년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 온 생각이 났던것이다.

《제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노여움을 풀어 주십시오.》

각쟁이령감은 한동안 썩썩거리다가 어쨌든 아침밥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놓았던 숟가락을 다시 들면서 이렇게 분부하였다.

《이 상우에 있는 반찬들은 다 내가고 찬물 한사발을 떠오너라.》

새색시는 시아버지가 시키는대로 얼른 하였다.

《이젠. 네가 옆에 앉아서 반찬시중을 들어라.》

《예?》

《어려울게 없다. 내가 밥을 한술가락 입안에 넣거든 네가 <조기대加里> 하고 한마디 하면 된다.》

《예!》

각쟁이령감이 밥 한술가락을 떠서 입안으로 가져 갔다. 머느리는 버릇되지 않아서 약간 머뭇거리다가 《조기대加里》라고 하였다.

《밥이 입안에 들어 간지 언젠데 이제사 반찬을 들여 보내느냐. 제때에 들어라.》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밥술가락을 받아 물려고 입을 크게 벌리는 순간에 《조기대加里》 하였다.

《아이쿠, 밥도 안떠넣었는데 반찬부터 먹는데

가 어디 있느냐.》

《조심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밥술가락을 입안으로 들어 가는것을 숨을 죽이면서 지켜 보던 머느리가 이번에는 제때에, 그러나 나직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조기대加里》라고 하였다.

《아야, 밥술가락은 앞산 고봉만 한데 반찬은 그렇게 조금 뜯어 넣어 주면 싱거워서 되겠느냐.》

새 머느리는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어떻게 해야 시아버지의 비위를 맞출수 있을지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시집살이가 고달파서 명주고름이 눈물에 썩는다더니 남의 집 새아기들은 시집살이에 깨가 쏟아 진다는데 나는 어째서 시집 온 다음날부터 이런 신세가 됐는고 하는 한스러운 마음을 누를길 없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놀려야 하였다. 새색시는 이번예야말로 시아버지의 마음에 꼭 들도록 말반찬시중을 잘 들리라 강심을 먹고 기다렸다. 시아버지가 밥술가락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 가는것을 보면서 새색시는 외나무다리를 건느는 심정이 되어 숨을 죽이고서 자연히 밥술가락을 따라 자기의 턱을 울려갔다. 시아버지가 입에서 밥술가락을 뽑자마자 《조기대加里》라고 한다는것이 너무 긴장하던 나머지 그만 두번 곱씹어서 《조기대加里, 조기대加里!》하였다.

그런데 이젠 또 어찌된 호령인가.

《아이, 짜다 짜. 짠 반찬을 그렇게 많이 먹이면 어떻게 밥을 먹을수 있단 말이나.》

이어서 된 꾸중이 쏟아져 나왔다.

《아낙네 손이 그렇게 커서야 무슨 살림을 하겠니. 아무래도 나는 우리 집 문턱으로 들어 설 사람이 못된다. 물러 가거라.》

머느리는 무안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여 쫓진듯이 사랑방에서 나와서는 안방으로 들어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대문쪽으로 걸어 갔다.

《차라리 놀부네 집 머느리가 됐으면 됐지 이런 각쟁이령감네 머느리는 못되겠구나. 아니 아니, 흥부네 집 머느리가 될수는 없을가.》

그의 뒤로 검정강아지가 꼬리를 저으면서 따라 오고 있었다. 건넌산 푸른 숲속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밭들에서는 순박한 이 고장 농사꾼들이 일손을 다그치고 있었다...

그전에는 욕심 많고 린색한 자를 《놀부》라는 대명사로 불렀다면 이때부터는 《조기대加里》라고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권력무

《돌림임금이라면...》

권필은 16세기 말~17세기 초 재능 있는 시인의 한사람이었다.

그리 넉넉치 못한 량반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불의와 허위를 미워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면서 시문학창작에 한생을 바쳤다.

어느 날 권필은 죽으로 겨우 아침을 먹는듯 하고 책상에 앉아 사색을 하고 있었다. 이때 문득 대문소리가 나더니 류희분이 찾아 왔다. 그로 말하면 광해군의 왕비 류씨의 오라비라 권세가 하늘을 치달는지라 누구도 감히 어찌지 못하는 권세가였다.

가난이 겹쳐 든 권필의 집안을 휘둘러 보던 류희분은 비꼬는 투로 물었다.

《여보게, 자네는 왜 벼슬길을 마다하나? 그 재주면 능히 정승 한자리는 문제 없겠는데?》

《뭐? 벼슬? 정승?》

(흥, 네놈이 나를 놀리는구나. 어디 보자!)

처음부터 반말질에 제 잘났다고 우쭐대는 그놈들 아니꼽게 여긴 권필이었다.

일찌기 강원도관찰사까지 지낸적 있던 그의 아버지 권벽은 점차 사화당쟁에 휩쓸리는것을 꺼려 벼슬을 그만 두고 고향으로 돌아 와 조용히 시 짓기를 하며 살아 왔다. 그의 형들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다. 이런 가정적 환경에서 자란 권필은 어려서부터 시문학에 취미를 가지였고 특히 임진조국전쟁을 전후하여 더욱 격렬해지는 사화당쟁을 직접 목격하면서 과거시험과 벼슬이란것은 인격과 문학을 위한것이 아니라 세도와 재물을 위한 권력생활의 추잡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벼슬이라면 환멸을 느끼고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러니 류희분의 물음에 권필이 공손할리 없었다.

《여보시오 대감, 대감도 뼈다귀를 좋아 하오?》

《뭐? 뼈다귀?》

《그래 남들이 먹다 버린 뼈다귀를 좋아 하는가 말이요?》

《이, 이놈, 아무리 그러하기로서니 감히 그따위 혐구를 한단 말이나?》

류희분은 서슬이 퍼랬다.

《아니 왜 그러시오? 저 궁궐안을 보소그려. 서로 물고 뜯고 하는 대감들의 싸움이 그래 남들이 먹다 버린 뼈다귀를 먹겠다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개들 같지 않소?》

《뭐? 뭐라구? 개?》

《그러니 벼슬이라는것이 무엇이고 파거라는건 또 웬 소리요. 당신들이 그토록 부러워 하는 <벼슬>이란게 곧 남들이 먹다 버린 <뼈다귀>요, 서로 물고 뜯고 하는것은 곧 미친개들의 싸움이란 말이요!》

《이놈! 썩 거두지 못할가!》

류희분은 얼굴이 수수떡이 되어 붉으락푸르락 하였다.

그리거나 말거나 이때라고 생각한 권필은 한마디 더하였다.

《이보시오 대감, 벼슬을 할바에야 크게 해야지 고작 정승따위겠소. 내 만약 돌림이라면 임금자리에 나서 보겠소.》

《뭐 뵈이라구? 네놈이 감히 임금을...》

류희분은 펄펄 뛰며 야단법석하였으나 저희들이 하는것이 모두 그짓이라 어찌지 못했다. 한참 동안 씩씩 황소숨을 몰아 쉬던 그는 일어 서서 문밖으로 도망치듯 달아나고 말았다.

그로부터 며칠후 당시 사회에서 권력과 재물을 위해 서로 물고 뜯으며 사화당쟁을 벌리던 량반 사대부들의 추행을 풍자조소하며 야유한 권필의 유명한 시 《싸우는 개》가 세상에 나왔다.

그 누가 개에게 뼈다귀를 주었는고

못개들이 모여 들어 으르렁 싸움판이 벌여졌네

작은 놈은 죽었구나 큰것도 상했거니

이 틈을 노리어 도적이 집안을 엿보누나

주인은 기가 막혀 한밤중에 우는데

비바람에 담장마저 무너졌으니 근심에 근심이 겹치더라

강경순

진환생의 나들이

고호성
정운 역

1

한때 이름대신 《갈매기집(가난한타에 늘 빛지고 사는 집)주인》으로 통하던 진환생이 현성으로 나들이를 간다.

며칠째 날씨가 꽤 차다 했는데 오늘은 해빛이 따뜻하고 신들바람도 건듯 분다.

점심을 듬뿍 먹어 배는 든든하다.

얼마전에 새로 지은 양복을 쪽 빼입고 마을상점에서 새로 산 여행용가방까지 척 들고 나서니 현성에 사는 신사멋쟁이 부럽지 않다. 마음이 한껏 즐거우니 가방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알리지 않고 발걸음은 저절로 건뽕거뽕 옮겨 진다.

격두룩한 키에 다리가 늘씬한지라 30리 현성길 좁은 진성으로 가뎠수 있다.

여느 때 장사집을 잔뜩 지고도 별로 힘 들이지 않고 갔는데 신사처럼 가방 하나 들고 나선 오늘에야 더 말해 무엇하랴.

빠스를 탈 필요도 없다. 해가 아직 하늘높이 걸려 있어 천천히 가도 넉근하여 산과 들에 확연한 봄경치를 기분 좋게 바라보며 스적스적 걸음을 옮긴다.

현성에는 가서 뭘하는가?

장사를 한다. 여유량곡수매도 하고 밀보리파종도 끝냈으니 별로 바쁜 때도 아닌지라 이렇게 오락을 조금만 놀리면 용돈도 좀 마련할수 있다. 그렇다고 투기매매를 하는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꾸고 거두어 들인 농산물을 가공해 파는것이어서 법에 걸릴 녀려도 없다.

무슨 장사를 하는가?

유성(기름에 튀긴 밀가루음식)을 판다. 자기 집 밀가루와 기름으로 자기가 손수 만든것이다. 오늘 만들어서 오늘 파니 향기롭고 바삭바삭하여 상점것보다 맛이 좋고 생신하다. 게다가 비닐봉지에 차곡차곡 넣어 싸있어 깨끗하고 보기도 좋다. 한봉지에 다섯개씩 넣으니 유성 여섯근이 열봉지나 되어 가방 하나에 가득찼다. 이것을 다 팔고나면 본전하고도 3원이 더 떨어 진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뭘하는가?

요즈음 유행되는 신식모자를 사서 쓴다.

세살때부터 지금까지 마흔다섯해를 살아 오면 서단 한번도 머리에 모자를 올려 놓아 본적이 없

는 그다.

해방전에는 가난해서 살수 없었다.

해방후에는 한창나이로 모자 쓸 필요가 없어 사지 않았다.

어지간히 나이를 먹었을 때에는 머리에 바람맞는것이 싫었지만 생활이 껴이지 않아 끝내 마련하지 못했다.

그후 누군가가 그에게 천모자대신 《갈매기집주인》이라는 《모자》를 씌워 주었다. 돈을 낼 필요가 없는 《모자》여서 그런대로 쓴채 오래도록 지내왔다.

몇해전부터 생활이 껴이기 시작하자 그 《모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데론가 날아가버렸다. 《모자》는 날아 나도 머리는 시리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찬바람이 불어 오자 머리가 시려 모자를 쓰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다.

까짓거 현성에 한번 다녀 오면 모자 하나쯤 사는건 식은죽먹인데 왜 하필이면 머리를 선선히 건사하겠는가.

생활이 좋아 지고 살아갈 걱정이 없어 지니 그의 공양도 커졌다.

여태껏 가난하게만 살아 온 자기다.

하지만 지금을 얼마나 좋은가.

앞으로 더 좋아 질것이라는 생각으로 노상 만족스럽기만 하다.

몸도 부해 지고 얼굴에는 늘쌍 느슨한 웃음이 넘실넘실한다.

이따금 한밤중에 문득 깨여 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고간에는 쌀이 넘쳐 나지, 장에는 옷이 가득차 있지, 식구들은 남 부럽지 않게 살지 하는 생각이 떠올라 마음이 흐뭇해 진다. 그래서 괜히 달게 자고 있는 마누라를 흔들어 깨워 놓고 밤 가는줄 모르며 이말저말 주고 받고...

말이 난김에 하는 소리지만 그는 사실 말을 잘 하지 못한다. 그런대로 마누라에게는 이것저것 몇마디씩 할수 있었지만 남들앞에서는 늘 할구무언이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줄을 몰라서다.

다른 사람들이 거침없이 말하는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암만 해도 놀랍기만 하다. 저들은 어떻게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그렇게도 잘 아는

지, 어떻게 같은 사실을 가지고 그리도 묘하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것처럼 재미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 많은것을 다 기억하면서 신통하게 이야기를 잘하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던 것이다.

헌데 자기는 어쩐가?

남들처럼 재미 있는 이야기는 못할망정 이제 당장 죽게 될 불치의 병에 걸렸다 해도 한마디 유언조차 변변히 할것 같지 못하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 장거리를 다녀 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인즉 《오늘 거리에 사람이 많다, 적다》든가 《고기시장에 돼지고기가 있다》거나 《남새가 비싸서 사지 못했다》거나 하는 따위의 말뿐이다. 대부분 마을사람들과 별로 다를바 없는 자기의 경력을 말할 때에도 《어렸을 때 어머니 늘 내 엉덩이를 때렸다.》, 《학교공부를 네해나 했지만 다 까먹었다》든가 기껏해야 《39년 왕가물때 강바닥이 말라 모두가 물고기를 건져다 먹었다》, 《49년에 공산당이 국민당을 꺼꾸러 뜨렸다》 혹은 《장가 들어 아들딸을 보았다》하는 따위의 따분하고 들을 맛이 없는 소리들을 그것도 두서없이 단마디로 내뱉곤 한다.

그는 책을 볼줄도 모른다.

경극 같은것을 보기는 한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보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고 통 기억을 못 한다.

언젠가 《손오공이 백골정을 세번 치다》를 보고왔을 때였다.

마누리가 방금 보고 온것을 들려 달라고 하자 그는 단마디로 《무서운 손행차가 몽땅 때려 죽었지.》라고 했다.

그쯤 듣고는 성차지 않았던지 마누라가 다시 백골정이 누군가고 물었다.

그랬더니 잠시 눈을 떴부룩때부룩하다가 《어그건 요피가 변한거지.》라고 했다.

아들녀석이 옆에서 듣다 못해 큰 소리로 《아버지, 요피가 변한것이 백골정이 아니구요, 백골정이 요피로 둔갑했던거예요.》라고 통겨 주었다.

그는 더 말을 못하고 시뭇이 웃기만 했다.

진환생은 필요한 말을 골라 할줄도 모른다.

파종을 할 때에도 그저 《호미로 흙을 부스러 뜨리고 씨를 뿌리라》거나 《한포기에 여섯알씩...》하고 누구도 들을 여지조차 없는 뻔한 소리뿐이다.

유성을 만들어 파는 일도 그가 생각해 낸것이 아니다. 감은 어떤것으로 쓰고 만들기는 어떻게 만들며 포장은 어떻게 하고 어떤 가격으로 팔아야 얼마만 한 리를 보며 어떤 곳에서 어느 시간에 팔아야 손님이 많다는 등 모든것들은 다 남들이 말하는것을 들어 알게 된것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유성을 맛 있게 만들어 판다고 우쭐할것도

없다.

저녁무렵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한담을 할 때면 그는 한옆에 쭈그리고 앉아 잠자코 듣기만 했다. 누구도 그에게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아무 반응도 기대할것이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었기때문이다. 말하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열등감밖에 없는 그는 사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나 같았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정신생활》이란 술어가 있다는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도 생활이 나아진 다음부터는 저자신도 미처 자각하지 못한 정신적만족을 갈망했다. 그래서 들을만 한것이 있으면가서 들고 볼만한데가 있으면 무작정 가서 보곤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서야 무슨 재미로 산단 말인가...

어느 날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생산대에서 제일 으뜸 가는것이 어떤것이냐 하는 화제를 두고 네가 옳거니 내가 옳거니 하면서 입씨름질을 벌리고 있었다.

아무말없이 잠자코 듣기만 하던 진환생이 불쑥 큰 소리로 《러롱비가 제일이요!》하고 확신성 있게 젊은 생산대장의 이름을 꺼들었다.

모두들 깜짝 놀랐다.

늘썉 봐야 병어리마냥 입을 꼭 다문채 있기만 하던 진환생이 아닌가.

대뜸 그에게로 시선을 모은 사람들이 그건 왜 그런가고 물었다.

그러자 진환생은 《말을 잘하는 그 사람의 입이 제일 부럽소.》라고 중얼중얼 대답했다.

사람들모두가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진환생은 그만 얼굴이 벌겋게 되었다. 무척 면구스러웠다.

차라리 입을 벌리지 말았어야 했을걸. 그래,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잠자코 듣기만 하는것이 상책이야...

2

진환생의 속생각은 외부적자극이 심한 경우엔 약간 움썹하고 그것도 그의 머리속에서만 맴돌면서 가슴속을 둔장질할뿐 겉으로는 쉽게 나타나지않는다.

지금도 그는 유성을 팔아 새 모자를 사쓸 궁리를 가슴속에 묻은채 현성으로 가고 있는것이다.

술렁술렁 걸었는데도 현성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도 안되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장사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는 1전짜리 차 한잔을 사서 저녁밥으로 가져 온 과자와 함께 천천히 요기를 한 다

음에야 정거장쪽으로 향했다.

가다가 길옆에 있는 백화점에 들렀다. 제가 사려는 모자가 있는지 그리고 값은 얼마인지 궁금해서였다.

진렬매대를 두루 돌아 보는데 마침내 마음에 드는 모자와 마주 서게 되었다.

아주 마음에 흠뻑 드는 신통한 모자다.

덥석 쥐려고 손을 내밀려는데 문득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차!

진환생은 뒤통수를 벽적벽적 굶었다. 야단이다. 원래는 유성을 판 돈으로 모자를 사리라 작정한 자기다. 그런데 유성을 다 팔고 오르라면 상점 문은 분명 닫힐것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래일 아침 상점문을 다시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현성에는 친척도 친지도 없으니 잠을 잘데가 없다. 한지에서야 어떻게 자겠는가. 부득불 오늘 밤중으로 집에 몰아 가야 한다. 이런 제길! 그러니 또 며칠을 맨머리바람으로 지나보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닌가.

진환생은 줄곧 흥그럽던 기분이 저으기 처졌다.

여직껏 별일 없던 뒤머리가 어쩐지 으시시해진다.

한손으로 뒤머수기를 슬슬 문지르며 스적스적 걸음을 옮기던 진환생은 8시가 좀 지났을 때 역전에 이르렀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으나 그는 적당한 자리를 골라 잡고 자기의 상품을 꺼내어 퍼놓았다.

역앞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대체로 저녁밥들을 먹고 나온 때문인지 아이들이 줄라데서 몇개 시간 사람이 있을뿐 얼마 팔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락심할 필요는 없다. 이제 열차가 들어 오고 오르내리는 손님이 많아 지면 잘 팔릴테니까. 9시 40분과 10시 반에 일반차가 들어 서는데 그때면 아마 음식 파는것도 별반 없고 식사를 못한 사람들도 있겠으니 틀림없이 잘 나갈거다. 하지만 만약 그때까지도 못 팔면 야단이다. 11시 20분에 또 일반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너무 늦다. 하루밤 자지도 못하고 30리길을 갈수야 없지 않는가...

진환생의 타산은 틀리지 않았다.

10시반이 지나자마자 유성 여섯근이 다 팔렸다.

그런데 다 팔고 세여 보니 30전이 모자자란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와서 너도나도 사자고 하여 바삐 돌아 치는 바람에 제대로 받지 못한 모양이다.

잘못 계산했나 하여 다시 꼼꼼히 세여 보았지만 역시 그만큼 빈다. 분명 배구력지를 들고 왔던 너석에게 유성을 넘겨 주고는 돈을 받지 못한

것이 틀림 없다.

《재수가 없군.》

진환생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두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느라고 했는데 실수를 하다니. 하기가 두주먹으로 여러손을 당할수 없고 두눈으로 사면팔방을 살필수야 없지. 까칠키, 이제 속을 태운다고 잃어 진 돈이 다시 생길가. 웅근 8원을 번것으로 해두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걸. 80전이 뭐 대수라고...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다시한번 긴 숨이 새여 나왔다.

이젠 그만 돌아 가야겠구나 하고 일어 서려는데 이 일을 어찌하랴. 갑자기 두다리가 노근하고 어깨죽지가 빠근해 나면서 몸의 기운이 말짱 빠져버리는것이였다.

웬 일일가?

혹시 병을 만났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자 더럭 겁이 났다. 방금전에 유성을 팔 때에는 긴장해서 몰랐는데 지금은 확실히 녹작지근하고 목구멍도 짹짹했다.

혹시 값을 불러 주느라고 목이 신것이 아닌가 하여 《아!》 하고 소리를 내보나 코구멍에서 단숨이 혹 나온다. 한손으로 이마를 짚어 보았다. 분명 이마가 따가왔고 찬바람이 불어 오자 온 몸이 으시시해났다.

병을 만났구나!

어떻게 할가 하고 생각하던 진환생은 뜨거운 차나 한고뿌 마시기로 했다.

이미 차집들은 문을 닫은 뒤라 할수없이 역기다림칸에 들어 갔다.

다행히 더운 물통이 있었다. 한데 고뿌가 보이지 않는다.

하긴 위생, 위생 하고 떠드는 때여서 저마다 자기가 쓰는 고뿌를 가지고 다니겠으니 공동용이란 있을수 없지.

별수 없어 위생적이든 비위생적이든 두손으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마시기로 했다. 물이 좀 뜨겁기는 했으나 고열이 나는 때라 눈을 꼭 감고 참았다.

군자도 급하면 하늘소를 탄다고 하지 않는가.

몇모금 마시니 한결 괜찮아 진듯 했다.

허나 집에까지 갈 용기는 나지 않는다 여느 때 같으면 30리길쯤은 단숨에 갈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10만 8천리나 되는것처럼 아득히 멀어만 보였던것이다.

그는 더 지체하지 않고 빈 자리를 하나 골라잡고 앉았다. 미리감치 모자를 사쓰지 않은것이 후회된다.

이게 무슨 랑패인가. 집도 아닌데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러다가

병이 중해 저 가까운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객사를 당하지나 않겠는지!

하지만 다음순간 진환생, 너야 당당한 사내대장부인데 량심에 부끄러운것이 없이 한생을 살았으니 이제 죽은들 왜 눈을 편안히 감지 못하겠는가, 세상에 태어나 여직껏 살면서 유익한 일은 했어도 해되는 짓은 하지 않았으니 무슨 여한이 있으라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결 마음이 후련해졌다. 한바탕 통쾌하게 웃음까지 터뜨리고 싶었다. 그러나 목구멍이 바싹 말라 들어 소리는 나오지 않고 입만 벉글썩해 졌다.

이윽고 그는 흥겨운 음악이라도 심취된듯 결상을 짚고 있던 오른쪽 손으로 텅적다리우를 다독이며 장단을 쳤다.

그렇지만 그의 이런 동작은 참을수 없는 긴 호흡때문에 더 계속되지 못했다.

또 한번 입에서 긴 하품이 나오더니 그의 머리는 인차 결상우에 맥없이 떨어 지고 말았다.

3

잠결에도 날이 환히 밝은것이 알린다.

아직도 사지가 나른하고 정신이 흐리터분하다.

목구멍이 간질간질하여 몇번이나 기침을 했다.

눈을 뜨고 싶지 않아 다시 잠을 청하려고 오른쪽으로 돌아 누웠다.

문득 자기 몸이 구름이라로 탄것처럼 동실동실 떠가는것 같고 흔들거리는듯 한감이 느껴 진다.

혹시나 해서 손으로 만져 보니 몸에 부드러운 것이 덮여 있었다.

진환생은 흠칫 놀라 두눈을 번쩍 떴다.

느낌이 맞았다. 자기가 지금껏 널직하고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것이다.

그는 벌떡 일어 나 앉았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자기가 어떻게 이런 곳에 나왔을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뭔가 기억날듯 싶었으나 인차 사라진다. 그래서 다시 꼼꼼히 생각을 더듬으니 현당의 오서기와 그의 승용차를 본듯 한 생각이 나면서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이 희미하게 되살아 난다.

고열상태에서 그가 잠든지 얼마쯤 지났을 때 기다림칸앞에 현당서기 오몽이 탄 승용차가 와서 멎었다. 래일 성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2시 15분차를 타려고 역에 나왔던것이다.

그때가 11시 40분이어서 아직 차 탈 시간까지는 바쁘지 않아 오몽서지는 기다림칸안을 저널었다.

갑자기 일이 생겨도 그렇고 해서 현당서기가 열차에 오른 다음 가려고 운전사도 기다리고 있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짙던 오서기가 문득 한곳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결상우에 꼬부린채 정신 모르고 자고 있는 진환생의 모습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오몽의 얼굴에 부지중 웃음이 빙그래 떠올랐다.

지난해 가을 진환생이 속한 생산대에 웅근 두달 동안 가 있었던지라 그를 대뜸 알아 보았던것이다.

고지식하고 정직한 저 농민이 왜 여기서 자고 있을까? 혹시 차를 놓쳤는가?

오몽이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다.

어깨가 축 처져 가지고 정신없이 자고 있는 그의 엉덩이밑에는 쭈그러 진 빈 가방이 깔려 있었다.

무슨 물건이라도 잃어 버린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급히 흔들었으나 진환생은 깨여 나지 못했다.

워낙 농민들과는 늘 허물없이 대해 온 오몽은 얼굴에 장난기가 섞인 웃음을 짓고는 진환생의 코를 꼭 잡았다.

대뜸 손길을 통해 그가 열이 높다는것이 느껴져 오서기는 무작정 흔들여 깨웠다.

진환생은 물론 이런 일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생각한다.

자기를 붙들고 묻던 오서기의 말소리가 아직도 들리는듯 하다.

《병이 났소?》

머리를 끄덕였다.

오서기가 다시 《여긴 뭇하러 왔소?》 하고 묻자 대답대신 가방만 만지작거렸다.

오서기가 《가방안에 있던 물건들은 어떻게 했소?》 하고 거듭 물기에 웃으면서 한마디 한것 같은데 뭐라고 했던가? 아무 말도 안했던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차 사정을 알만 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던 오서기와 운전사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타던 일, 어느 기관 진료소같은데서 흰 위생복을 입은 의사선생의 진찰을 받던 일, 청진기를 거두며 의사선생이 급성감기가 왔을뿐 괜찮다고 오서기에게 말하던 일 그리고 돈도 달래지 않고 자기에게 약을 먹이고는 또 몇알을 싸서 주머니에 넣어 주던일이 생각난다.

그래, 오서기를 대신하여 의사선생이 자기를 부축하여 차에 태우면서 운전사에게 《여기엔 침대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초대소에 가야 할가 보군요. 조용한 방에서 하루밤 자고 나면 괜찮아 질테니까요.》라고 했었다. 차가 떠날 때 오서기는 또 《이제 13분밖에 안 남았으니 날 먼저 태워다준 다음 초대소에 가요. 꼭 독방을 내주라고 하시오. 내 친구라면서...》라고 했었구...

여기까지 기억을 더듬느라니 쿵쿵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듯 했고 맞붙어 있는 눈거죽사이로 뜨거운것이 흘러 나왔다.

오서기는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보잘것 없는 농민을 친구라고까지 하면서 제일처럼 극성스레 도와 주다니 ...

진환생의 생각은 계속 이어 졌다.

사실 오서기와와는 그저 풋풋이나 아는 사이일뿐 깊은 정을 나누어 본적이란 없다.

사소하게나마 개인적인 교제라면 딱 한번 있기는 했다.

지난해 가을 생산대에 와서 묵고 있던 오서기가 하루는 함께 식사를 하자면서 집에 찾아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의 말은 마디마디가 《갈매기집》 사정을 너무 속속들이 알고 하는 소리들이어서 얼마나 재미 있게 들었는지 모른다.

그때 그는 한근나마 실히 되는 사탕을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갈 때에는 두끼반식 사비는 되고도 남을 돈을 기어코 남겨 두고 갔다.

이런것을 과연 깊은 친분적인 교제라고 할수있겠는지... 오서기야말로 높은 어른이지만 평백성들을 언제나 살뜰히 돌보아 주는 훌륭한 간부이다.

생기할수록 진환생의 가슴은 점점 더 후더워났고 눈물은 섬없이 흘러 내려 이불을 적셨다.

마음을 어지간히 진정시킨 다음 방안을 자세히 둘러 보던 진환생은 다시금 놀랐다.

거의 사람키만큼 파아란 색으로 칠한 네면벽은 눈 부시게 흰 천정과 알맞춤하게 조화를 이루고 자주빛나는 바닥은 거울처럼 알른알른하여 사람얼굴까지 비칠 정도였다. 방에는 장미색장들과 노란색으로 연하고 부드럽게 칠한 책상, 결상들 그리고 까만 가죽을 씌운 팔걸이의자가 적당한 자리에 놓여 있었다. 자기가 자고 난 침대를 새삼스레 살펴 보니 밑에 칸것은 꽃문양침대보요, 덮은것은 탐탐하고 포근한 이불인데 누가 한번 써본것 같지 않은 새것들이다.

진환생의 몸이 저도 모르게 움츠려 들었다. 자기 몸이, 더우기는 발이 깨끗치 못해 이부자리가 어지러워 질가봐 두려웠던것이다...

조용히 몸을 일으킨 그는 열발가락을 꼬부리고 침대우에서 조심조심 내려 섰다. 그리고는 누가 자기를 잡기라도 하려는것처럼 숨소리조차 내기를 저어하며 살금살금 옷을 입었다.

알른거리는 방안에서 신발은 차마 신을수 없었다. 그래 신발을 손에 든채 나오려다가 가죽의자 앞에서 잠깐 멈춰 섰다.

난생처음 보는 훌륭한 의자가 덩실하니 놓여있었다. 참말로 볼수록 희한했다.

생산대에 있는 나무결상 같은건 대비도 할수없

다!

진환생은 꼭 그림같이 희한한 그 가죽의자를 조심스레 한번 만져 보았다. 그렇지만 쭈그려 질가보아 감히 앉지는 못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방을 나섰다.

복도에 나서니 발바닥이 아주 차거웠다.

현관문까지만 참자 하고 생각하며 몇걸음 옮기느라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신발을 신고 가는것이 눈에 띄었다. 그제서야 그는 신발을 신었다.

부지중 오서기덕분에 저로서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고급한 방에서 하루밤을 지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잤는데 혹시 모자 살 돈을 다 물어도 방값이 모자라지 않을가 하는 걱정이 더럭 뒤따랐다. 언젠가 누구에게선지 이런 초대소방값이 아주 비싸다는 말을 들었던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어쨌든 그냥 갈수는 없다. 이런 고마운 대접에 값을 치를줄도 모르면 그야 진환생이 아니지. 많던 작던 돈은 물어야 한다.

출납에 다가간 진환생은 안에서 신문을 보고있는 처녀에게 한마디 건넸다.

《동무, 결산합시다...》

《몇호실 손님이세요?》

신문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처녀가 묻는말이다.

《저 그건... 동쪽으로 제일 마지막방에...》

처녀가 황황히 신문종이를 거두며 상냥하게 웃음을 보였다.

《오서기동지 차를 타고 오셨던분이군요. 몸은 좀 어떠세요?》

《어, 그저... 이젠 가야겠기에...》

《뭐가 그리 바빠서요. 오서기동지의 오랜 전우라고 하셨지요? 지금 어데서 일을 보세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처녀가 계산서를 내밀었다.

처녀는 참말로 절색이었다!

그러나 계산서를 보는 순간 진환생의 손은 불에 덴듯 까드라 들었다.

글은 몰라도 아라비아수자정도 가려 보는그였다.

《...얼마라고요?》

온몸이 화끈해 지는듯 한 감을 느끼며 그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5원이에요.》

《...하루밤 자는데?...》

그의 코등에 땀이 다 내뿜었다.

《그래요. 하루 방값이니까요.》

진환생의 가슴이 못에서 잉어떼가 요동치듯 했다.

《아이쿠!》 그가 생각했다. 《설마 모자 하나값

이 다 들라 했는데 두개 값이라니!》

《아직 몸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군요. 땀을 흘리는걸 보니.》

처녀가 상냥스레 하는 말이였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왕청같은 소리가 떠들떠들 새어 나왔다.

《저... 난 밤이 깊었을 때 왔기때문에 몇시간밖에 안되겠는데...》

순간 처녀가 웃음을 거두며 마주 보았다. 모든 것을 알아 차린것이 확인했다. 웃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게 칼로 딱 자르듯 그가 말했다.

《어느 때 왔건 관계없어요. 어제 온 손님은 오늘 낮 12시까지 하루 방값을 다 물어야 해요!》

차거운 얼음처럼 팽팽한 처녀의 얼굴을 보며 진환생은 더 입을 벌릴 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계산서를 만지다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거퍼 세번씩이나 세다나니 처녀에게 줄 때 돈들은 땀에 젖어 축축했다.

계산서와 돈을 들이 밀자 이미 신문을 다시 보기 시작한 처녀의 미간이 시끄러운듯 찌프러 졌다. 그렇기는 하나 교양이 있는 처녀여서인지 아니면 오서기의 체면을 생각해서인지 두말하지 않고 받기만 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냈는데도 기쁜 내색은 커녕 알은채도 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니 슬그머니 화가 동했다. 그래서 그냥 훌 가려 했는데 문득 가방생각이 났다. 너무 허덤버 치다나니 가방을 방에 두고 온것이다.

할수없이 방으로 다시 갔다.

바닥이 알른알른하고 깨끗한 방에 들어 서려던 진환생은 잠간 망설였다.

신발을 벗을가?

했으나 인차 《돈을 5원씩이나 냈지!》 하는 생각이 들자 담이 커졌다. 설사 어지러워진들 대수냐 하고 그는 성큼 걸음을 내짚었다.

방안을 휘-둘러 보던 진환생은 가족의자가 눈에 띄자 의젓하게 다가가 서슴지 않고 털썩 앉았다.

《돈을 5원씩이나 냈는데 앉은들 어쨌다는거야.》

갑자기 배 고폰 생각이 들었다. 하긴 조반전이니까.

주머니를 뒤져 보니 엿저녁에 먹다가 남은 파자가 하나 있었다.

두루 살펴 보니 보온병도 눈에 띄였다. 그래서 또 신사들처럼 의젓하게 원탁으로 다가가 더운 물을 한고뿌 쪽 따라서는 줄금줄금 마시면서 파자를 먹었다.

방금 앉았던 가족의자를 피끗 보니 조금도 쭈그러 들지 않아 머리를 기웃거리며 다시 광하고

앉았다. 세번씩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반반한 그대로다.

참 신통한 의자다!

다시 편안히 앉아 파자를 마저 먹고 있노라니 기분이 좋아 졌다. 방금전에 땀까지 흘리면서 고심한 때문인지 머리가 맑아 지고 열도 내린듯 하다.

불현듯 기발한 생각이 뇌리를 쳤다.

《옳아. 채수없이 돈을 쓰기는 했지만 고급약을 사먹고 죽을 병을 고친것으로 치면 그만이지 아닌가.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인걸...》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는 그의 얼굴에는 그야말로 환희롭다 아니할수 없는 밝은 웃음까지 피여 났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그 웃음은 사그러 들었다. 파자를 다 먹고 나자 방금전에 주머니에서 나간 돈 5원때문인지 또 속이 허전했던것이다.

어제저녁에 백화점에서 본 모자가 2원 50전이니까 5원이면 웅근 두개값이다. 작년 분배때 한 공수에 70전씩 돌아 간것으로 보아도 그만한 돈이면 일곱공수하고도 10전을 더 보태야 한다. 지금까지 일여덟시간정도 묵은것으로 계산하면 결국 한시간에 알쥔히 한공수씩 파는 셈이 아닌가.

참말로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다.

그렇다고 한들 어데 가서 하소연한단 말인가. 차라리 처녀가 12시까지라고 했으니 그때까지 채우고 가는수밖에 없다. 아무렴 그만큼 돈을 냈으니 그래야 하구 말구.

어이 없는 생각때문에 어느새 벌겍게 달아 오른 그는 땀발이 내뿜은 얼굴을 닦으려고 수건을 찾았다. 아무리 두리먼거리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꽃문양베개수건을 벗겨 가지고 더러워진 얼굴을 문질렀다. 그리고는 옷도 벗지 않은채 침대우에 벌렁 나가누웠다. 이제는 무엇이 덮을가봐 겁나지도 않았다. 돈을 5원씩이나 냈는데 돼지우리처럼 된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라.

눈을 감기는 했으나 오서기생각때문에 그는 잠들수 없었다.

자기를 얼마나 관심해 주었는가. 혹시 자기가 돌보아 준 사람이 지금 고급초대소에서 몹시 맹랑스러운 처지에 있다는것을 알기나 할가? 자기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기차를 타자니 얼마나 바빴을가. 모든건 모자를 미리 사쓰지 않았기때문이다. 그러다나니 바람을 맞아 감기에 걸렸고 오서기를 만나 초대소에 들었으며 유성을 판 돈에다가 본전 2원까지 합쳐서 5원돈을 날려 보낸것이다.

한데 모자는 어떻게 하는가.

에라, 샀건 못 샀건 여하튼 채수 없는 일이다.

또다시 배가 고폰다. 파자 하나가 비어 있는 창자를 채울리 만무였던것이다.

어제 밤에는 정말 정사가 괜찮았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몇마대라도 자신 있지. 이럴줄을 알았으면 한봉지쯤 남겨 두었을걸. 하긴 그런걸 후회해야 무슨 소용이 있담...

눈을 감고 있으니 배고픔이 더해 지는것 같았다.

량표가 없으즉 점심밥은 어데 가서 먹어야 할가? 굶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여기서 또 하루밤을 더 묵어야 하는가? ...

그는 소스라쳐 눈을 번쩍 떴다.

후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 난 그는 려행가방을 집어 든채 더 지체하지 않고 방에서 냉큼 나왔다. 아직 두세시간정도 남았으나 시간을 가지고 갈수도 없어 아쉬운대로 그냥 내버렸다.

정작 밖에 나서니 머리가 지끈거리던것이 한결 나아 졌다.

공기 맑고 경치 좋아서인지 흔들흔들 발걸음을 옮겨 쉼느라니 마음도 어지간히 개운해 졌다.

웬일인지 방금전의 배고픔도 힘든줄도 별로 느껴 지지 않았다.

한참동안을 부지런히 걸음을 다우치차 어느덧 아지랑이 아물아물 피여 오르는 저 멀리로 자기집이 보인다.

문득 이번 나들이길에 원금도 리운도 말짱 축낸 사유를 마누라에게 어떻게 말할가 하는 걱정이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다.

뭐라고 할가?

놀음놀이를 하다가 몽땅 빼웠다고 할가? 아니, 위낙 도박놀이를 할줄 모른다는건 마누라도 잘 아는 일이지.

그럼 몽땅 사먹었다고 할가? 아니, 언제 그렇게 죽어라고 먹어 본적이 있는가.

소배치기를 당했다고 할가? 안돼. 떨떨하다고 욕질을 할테니까.

하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 주는데 썼다고 할가? 그것도 안돼. 애당초 믿지도 않아.

그렇지. 한 처녀에게 졌다고 하면 어떨가? 안되지. 마누라가 대뜸 의심을 하며 따지고 들테거든... 그럼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하는가?

연신 자문자답하고 이렇게 저렇게 거듭 생각을

굴려 보았으나 신통한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가만, 이렇게 하면 어떨가?

어망결에 한가지 생각이 떠오른듯 우뚝 걸음을 멈춘 그는 마침내 무릎까지 치며 기빠서 환성을 올렸다.

《할 말이 있어. 있구 말구!》

누구나 부러워 할 이번 나들이걸음을 왜 말하지 못한단 말인가. 으시대고 빼기면서 말할수 있고 소리소리 웨치며 자랑할수 있다. 만나자 바람에 오서기와 마주 섰던 이야기를 하고 그가 보는 앞에서 5원돈도 썼다고 하면 대번에 주눅이 들어 고분고분해 질것이 아닌가. 어찌 마누라뿐이라. 생산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할수 있다. 그들중에 누가 감히 오몽서기의 승용차에 발을 올려 놓아 본 사람이 있는가. 누가 언제 한번이라도 하루밤에 5원씩이나 몰어야 하는 고급초대소방에서 자본적이 있는가. 그래, 자기를 두고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할 말이 없다고, 말할줄을 모른다고 비웃지 못할것이다. 옮겨니, 누가 과연 세상 돌아 가는 형편을 모른다고 손가락질하며 알잡아본단 말인가...

생각이 이쯤되니 마음은 똥똥 뜨는듯 했고 어느새 어깨는 잔뜩 쳐들렸다. 자기가 갑자기 대단해 진것처럼 느껴 졌던것이다. 빈 손으로 돌아오는 나들이였지만 그는 유쾌한 기분에 잔뜩 험싸인채 한달음에 집문앞까지 왔다.

과연 그후 진환생의 몸값은 확실히 달라 졌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귀 담아 들었고 생산대간부들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그를 보기만 하면 모두들 《저 사람이 오몽서기의 차를 탔댔다》 거니 《하루밤에 5원씩이나 무는 방에까지 든 사람》이라거니 하면서 수군거렸다. 언젠가 인민공사의 농기계공장 인수원도 그에게 《나한테는 그런 운수가 차례지지 않아. 그런 방에는 도저히 들어 갈수 없지.》라고 까지 했다.

돈 5원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정신적인 만족을 산 때부터 이 진환생은 힘든줄을 모르고 이전보다 더 성수가 나서 결싸게 일을 하군 했다고 한다.